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4월 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68 호

한글대장경 전산화 된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빠르면 상반기 개원
역경 오역등 해결 '기대' … 2006년 CD로 발간

올 연말 완역을 앞두고 있는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이 전산화되어 사이버 무대에 나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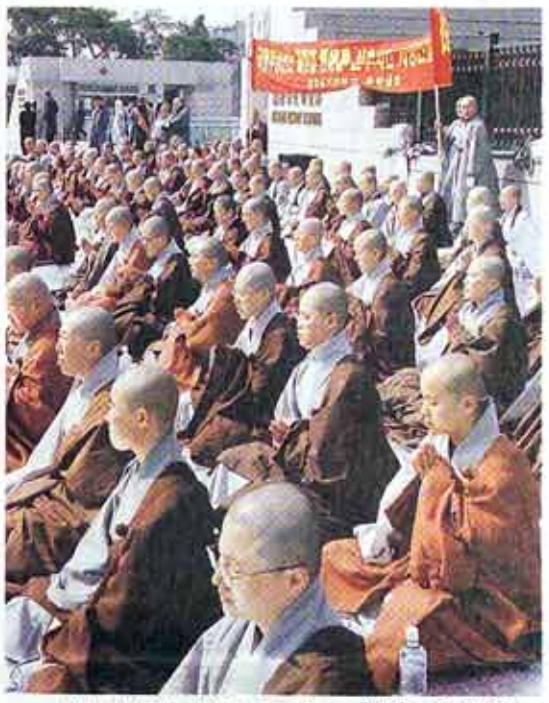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해 말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추진해 온 '전자불전연구소'를 빠르면 상반기중 개원, 〈한글대장경〉 2백80여권과 〈한국불교전서〉 전 12책(冊)(동국대출판부 발행)을 전산화 한다. 이번 전자불전연구소의 개원으로 〈한글대장경〉의 전산화는 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의 전산화와 함께 불전 세계화의 초석이 됨은 물론, 한글의 세계화와 불교의 대중화를 일거에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글대장경〉의 전산화는 30여년 걸친 역경불사에서 나타난 오역이나 문법, 문체상의 문제점들이 전산기술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3년 불전전산화의 세계적 권위자인 랭카스터교수(미국 UCB버클리)를 초청, 불전 전자데이타베이스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불전전산화 작업을 축적해 온 동국대는 인접학문분야의 결속과 보완을 통해 자체역량으로 전자불전연구소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전자불전연구소는 불교학부와 어문학부, 정보산업학부 교수진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며, 전자불전연구소와 함께 설립인가를 받은 전자통신연구소가 기술적인 지원하게 된다.

전자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온 한 관계자는 "대장경의 전산화는 민족의 숭고한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특히 서구에서 불교학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길은 대장경의 전산화 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8면〉

전자불전연구소는 오는 2006년 동국대 개교 1백주년에 맞추어 〈한글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을 CD로 발간하는 것을 첫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도록 하는 검색엔진 개발 및 대장경의 색인화 작업과 〈한글대장경〉의 영역화 작업을 설정하는 등, 대장경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예수부대' 발언 규탄 전도봉 해병사령관의 '예수부대' 발언과 관련, 중앙승가대 학인 2백여명은 3월24일 서울용산 국방부 앞에서 군내 종교편향 규탄법회를 열어 해병사령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중앙승가대 학생회(회장 문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휘관의 특정종교 편향은 군내 반목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장관의 참회 △해병사령관의 즉각 파면 △군종춘령의 처벌 조항 제정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11대 종회 해산 위기

조계종 131회 종회 유회후 의장단 밝혀

의원 45명 해산 서명

25일 개회된 조계종 131회 임시종회(의장 설정)가 성원미달로 유회된 가운데 의장단이 제11대 종회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종회의장 설정스님과 부의장 청화, 법등스님등 의장단은 26일 종회가 유회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종회 중진 의원스님들, 상임분과위원장과 제11대 종회 해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스님은 "종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를 거듭하는 것과 관련 의장단의 책임을 자각한다"며 "종회의원들의 사명감 결여와 입법기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종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26일 종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되자 일부 의원스님들이 지난해 128회 종회에서 종회해산 동의서명을 받은데 이어 다시 서명 작업을 한것도 의장단의 '결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까지 종회해산에 동의서명한 종회의원은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의장단은 빠른 시일내에 의장단과 중진의원과 상임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해산문제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장단은 이에앞서 임시종회를 다시 소집, 종회의 유지와 해산을 둘러싼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내 한국문화재 조사
한-일 불교문화 교류협

일본에 산재된 한국불교 문화유산들에 대한 조사작업이 추진된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법흥)는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올 중점 사업으로 일본내 각 종단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범종, 불상, 탑, 부도, 경전, 미술품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문화재 전문가와 협의회 임원이 참석하는 조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또 공석중인 사무총장에 신흥사주지 도후스님을 선임했다.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안보살은 10여년전부터 불서를 구입, 부처님의 법음이 닿지 않는 곳만 찾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특히 서구 양동시장 상인들은 안보살이 보시한 불서를 한 두권 쯤은 갖고 있을 정도다.

"수승한 불법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어서 법보시를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법보시용 불서가 곁에 없으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집안가득 불서를 쌓아 놓고 사는 안보살의 법보시 예찬론이다.

법보시용 불서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은 1주일을 넘지 않는다. 마음을 밝혀줄 불서들이 방구석에서 나뒹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잠을 설치기 때문이다. 주문한 법보시용 불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배달(?)된다.



법보시 보살

바른 가정생활에서도 자투리 시간을 할애 법보시활동에 적극적인 안보살. 광주지역에는 그의 손길이 미치지않는 곳이 없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곳이 있다. 2천여 시장사람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양동시장. 어렵사리 개척한 곳이어서인지 그에겐 특별구역이다. 서민들의 풋풋한 정과 포교의 보람을 한껏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시장용 법보시불서를 특별히 준비할 정도. 업종에 맞는 불서를 권하기 위해서다. 정육점등 육류를 주업으로하는 곳은 참회관련불서를, 그밖의 상인들에게는 〈49재영험록〉 〈부모은중경〉 〈삼생과 인과〉등을 보시한다.

안보살은 요즘들어 신바람이 날때가 자주 있다. "한권 더 구할 수 없을까요"라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올해 대인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안보살은 "부처님께서 복밭을 가꾸는 기회를 주셔 고맙다"며 "두다리가 성할 때 한걸음이라도 더 뛰어다녀야 하는데…"라며 발길을 재촉했다. 〈김중근 기자〉

구독료납부 온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현대불교→LG '채널아이' 불교정보 독점제공 계약

현대불교신문사에 게재되는 주요 기사와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사가 개발 축적해온 각종 불교정보 및 자료가 4월부터 인터넷 PC통신망 '채널아이'(Channel-i)를 통해 일반에 제공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지난 3월26일 인터넷 PC통신 전문업체인 LG인터넷과 불교정보의 독점공급 및 관리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 불교계 최초로 신문-인터넷-PC통신을 묶는 三元홍보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통신망 이용자라면 누구라도 '채널아이'를 통해 현대불교신문의 주요기사 검색 및 각종 불교 정보를 4월 중순부터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채널아이'에 개설되는 불교정보는 △참여마당 △정보마당 △법문마당 △사이트순례 △공지사항 등 총 12종의 메뉴로 구분해 제공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3년째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불교데이타 베이스 '부다피아'는 종전 방식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이용문의: LG인터넷 고객지원센터
080-50-01434 / (02)369-9900
현대불교 전략정보팀 (02)732-1520

불교문화 체험기행

4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온화한 미소로 정평이 나 있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과 단아하면서도 기품있는 대웅전(국보 제49호)으로 유명한 수덕사, 꼽빛꽃이 만개한 계심사를 찾아 갑니다. 이 답답한 시절에 마음을 환짝 열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화사한 계절에 온화하고 따사로운 백제인의 숨결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백제인의 미소와 숨결을 찾아서'

수덕사, 개심사, 서산 마애삼존불

◇출 발: 4월12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5천원(점심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개혁종단 정통성 부정 좌시않겠다"

조계종 총무원 담화문

조계종 총무원은 황진경 스님등 5명이 95년 제기한 '송월주 총무원장 선출 무효확인소송'과 '송월주 총무원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2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무원은 20일자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총무원은 앞으로도 개혁종단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는 불온한 시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격하게 종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주최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주관
조계종 · 태고종 · 천태종 · 진각종 · 관음종 · 총지종 · 법륜종

후원
국민화의 연등회 · 자민련 불자회 · 한나라당 불자회
군승단 · 경승단 · BBS · BTN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순회 제1차, 국민 화합 기원 -
신흥사 · 불기 2542년 4월 5일(일) 오후 2시

부처님의 지혜로 국난극복을!!! 불자들의 원력으로 국민화합을!!!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처음으로 범종단 차원의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각 종단이 주관해서 매달 전국을 순회하며 공동법회로 열리는 이 법회는 매달 각 법회마다 당면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기원으로 설시됩니다.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신흥사 법회를 시작으로 동체대비 구현 · 지역화합 기원 등으로 11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종단의 지도자들이 각 법회마다 동석, 부처님의 가피와 간절한 호국의 발원으로 나라가 경제적 안정을 시급히 되찾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법회를 봉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 기업 가계의 고통을 하루 속히 극복할 수 있는 불교적 대안을 제시할 것 입니다.

■ 주최/(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주관/조계종(신흥사 수덕사)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법륜종
■ 후원/국민회의 연등회, 자민련 불자회, 한나라당 불자회, 군승단, 경승단,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02-732-4885), 현대불교신문사(02-722-4162)

행 사 일 정

-4월 5일(일) 오후2시 조계종 신흥사 (강원 속초) 국민화합 기원
-5월 25일(월) 오후9시~회향법요식 5월 26일(화) 오전 11시
조계종 수덕사(충남 예산) 파사현정 실천 철야참선정진
-7월 1일(수) 오후1시 관음종 삼교천(춘마 아산) 대참회 영산대재
-7월 4일(토) 오후9시~회향법요식 7월 5일(일)오전11시
천태종 관문사(서울) 동체대비 구현 철야관세음정진
-9월 22일(화) 오후9시~회향법요식 9월 23일(수)
총지종 정각사(부산) 동체대비
-10월15일(목) ~회향법요식 10월 16일(금) 오전11시
진각종 총인원(서울) 민족통일 발원 철야옴마니반메훔정진
-11월15일(일) 오후9시~회향법요식 11월 16일(월)오후2시
태고종 선암사(전남 승주) 대참회 관음예문 연비
-11월27일(화) 오후9시~회향법요식 11월 28일(토)오후2시
법륜종 보현정사(전남 목포) 지역화합기원 3천배

전국순회 제1차, 국민화합기원
● 일시 : 1998(불기2542)년 4월 5일(일요일) 오후2시
● 장소 : 강원도 신흥사
- 1부 법요식 : 통일대불앞
- 2부 국민화합식수 : 통일대불에서 약 150m 전방
* 행사당일 단체 참가 차량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 신흥사 법회 동참안내
· 조계종총무원은 언론사와 불교단체장들을 위해 당일 오전7시 조계사 앞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제공합니다. 문의 02-732-4885
· 불교방송은 당일 오전7시 마포 불교방송국 앞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제공합니다. 문의 02)705-5301~7
· 현대불교신문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스님)의 협찬으로 당일 오전7시 조계사 앞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마련하고, 법회기자 및 우수독자를 모십니다. 문의: 02)722-4162

사 설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불교적 깨우침은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보람을 찾는 일'에서 출발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현실적인 힘으로 진정한 호국불교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5일 설악산 신흥사에서 봉행되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국난극복 참회법회는 IMF와 여러 정치·사회 문제로 매우 어려운 현실을 진정한 참회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불자들의 간절한 원력이 하나로 모이는 동체대비 정신발현의 장이다. 불자라면 사회적 병폐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대승불교의 전생명인데도 그간 많은 불자들은 호국불교의 미명아래 권력과 체제에 맹종하고 사회 곳곳에 도사리는 악의 꽃을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세기는 한국 민족에게 고통의 연속이었다. 1세기전 이땅에 동학운동이 있었고 이어 청과 일본이 멋대로 우리 국토에서 싸우게 했다. 왕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살해되자 겁에 질린 왕은 궁을 비우고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가는 판국이었다. 압록강 일대와 울릉도의 산림벌채권은 러시아에게, 철도부설권은 프랑스와 미국에게 넘어갔다. 50년간 한국민은 일본에게 시달려야 했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50년간 우리는 남북간 대립의 긴장속에 민족적인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후인 21세기말 우리 후손이 20세기말의 조상을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이다. 역대대통령의 망명, 암살에 이어 두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들이 형무소에 갔다. 현재도 우리는 한화로 국민 1인당 6백만원 이상의 외채를 지고 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프랑스에 발주한 고속철도는 완전히 부실화됐다. 기업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싸구려로 팔려가는 기막힌 상황에 있다. 북한의 상황 또한 심난하다. 3백만명이 아사직전에 있으며 위조지폐를 국가기관에서 주도할 정도로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지금도 조선왕조말기와 다름없이 열강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넘겨다 보며 4자회담이니 6자 회담을 거론하는 판이다. 19세기말과 20세기말의 한국 상황은 본질적으로는 다름이 없는 것 같다. 한 외국의 신문에는 남북한이 둘 다 깡통을 들고 남한은 돈, 북한은 식량을 구걸하는 모습이 만화로 실려 있다. 한강의 기적은 외채와 부패의 덩어리임이 이미 전세계에 밝혀졌다.

민족공동체는 발전해 가는 역사에 발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보수와 복고를 고집하는 민족에게는 좌절만이 있다. '아아 옛날이여, 잘 살아보세'의 주문에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영영 빛이 없다. 사회의 빛이 됨을 자처하는 불자는 외형적인 불사(건축이나 물고기방생 등)보다도 민족양심의 갱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직접적인 책임의식을 가져 후손들로부터 못난 20세기 조상탓을 들어서는 안된다. 보살은 중생에 대한 대비(大悲)의 마음으로 병든다고 한다. 보살은 중생의 무의식집합체이자 양심, 착한 마음을 발동코자 하는 바탐이기도 하다. 중생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온누리에 빛을 더한다.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는 조계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달 각 종단이 주관해 여법하게 봉행된다고 하니 종단의 단합과 불자들의 화합을 위해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누란지세에 처할 때마다 선봉에 나서서 호국의 법력을 보여주었던 한국불교의 전통을 잇는 이번 참회법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봉축행사 "간소하고 내실있게"

생명나누기 100일 캠페인 등
지역별 일정확정 준비 '순조'

불기2542년 부처님 오신날을 한달 앞두고 전국에서 봉축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 올 봉축행사는 IMF시대상을 반영, 소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대체적으로 간소하고 내실있게 준비되고 있다. 〈도표참조〉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3월 23일과 24일 직할교구 주지회의, 연등축제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을 잇달아 갖고 행사 준비점검과 일정을 확정했다. 봉축위는 2일부터 4일까지 봉축실무자 회의를 갖고 행사준비를 최종 점검할 방침이다. 봉축위는 10일부터 5월3일까지를 자비의 손길 기간으로 설정 군장병에게 위문품 브내기와 복지시설 방문, 생명나누기 100일 캠페인 등 행사를 편다. 또 1일부터 5월 3일까지 포교활동도 다각적으로 편다. 봉축 엽서보내기와 버튼달기 지하철 등달기 등을 통해 부처님 오신 뜻을 대사회적으로 알린다는 것.

총지종과 진각종등 각 종단들도 전방부대 OP점등식과 종단내 행사를 점검 일정 마무리 작업으로 분주하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와 신도회(회장 류진수)도 26일 봉축연합대법회 결성법회를 갖고 20일부터 5월5일까지를 봉축기간으로 정해 각종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광주전남봉축위원회(위원장 천운)도 24일 회의를 갖고 16일부터 5월10일까지를 봉축기간으로 정하고 봉축탑 점등식등 7건의 행사 일정을 정했다.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무공)는 18일 시청앞 점등식과 28일 민족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등 행사를 정하고 분야별로 준비에 돌입했다. 〈임연태 기자〉

◇전국 봉축주요행사 일정표

일시	행사명	장소	주최
4.3	OP점등식	7296부대	진각종
4.14	애기봉OP점등식	애기봉	해병칭룡사
4.16	봉축특별법회	무각사	광주전남봉축위원회
4.16~5.5	연꽃사진전	무각사	광주전남봉축위원회
4.18	점등식	전남도청앞	광주전남봉축위원회
	점등식	대구시청앞	대구봉축위원회
4.19	봉축백일장	무각사	광주전남봉축위원회
	연꽃노래잔치	동국대 중강당	서울불교청년회
	청각장애인체육대회	가락초등학교	광륜사
	장애인의날체육대회	동국대(예정)	원심회
4.20	점등식	부산역광장	부산불교연합회
4.21	점등식	서울시청앞	봉축위원회
4.22	전통등재현	강남 봉은사	전통등연구회
4.23~25	용성선사 공연	국립극장	대각회
4.24	OP점등식	7사단	총지종
	조찬기도법회	무등산관광호텔	광주전남봉축위원회
	봉축기념연주회	한국일보연주홀	다함께고년소녀합창무용단
4.25	연등축제	동대문운동장~조계사	봉축위원회
4.26	불교웅변대회	조계사	불교웅변인협회
	연등축제	광주공원~조선대	광주전남봉축위원회
4.26	연합대법회	부산역광장	부산불교연합회
4.28	기원법회	프린스호텔	대구봉축위원회
4.29	기원법회	신라호텔	봉축위원회
	찬불가경연대회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대구봉축위원회
4.30	연꽃사진전시회	사진이있는마당	김진숙
	봉축기념사진전	조계사	불교사진연합회
5.3	봉축법요식(전국동일)		
5.5	건강가족마라톤대회	목동청소년회관 주변	목동청소년회관
	부처님그림그리기대회	길상사	원각불공·목어법고박물관
	어린이글짓기대회	충정사	까치마을회
5.6	노인재소자위안잔치	청송교도소	백련장학회
5.10	청소년환경축제	증심사	광주전남봉축위원회
5.16	학술세미나	조계종 불교회관	봉축위원회
5.17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	동국대중강당	청소년교화연합회
	참나청소년문화예술대전	보라매공원	한국불교청년회

법사연합회 추진위 결성

22명 발기 5월 중순 창립…범종단 성격

재가법사들의 결집체인 (가칭)한국불교법사연합회가 결성된다.

재가포교사 22명은 17일 서울 동산교육회관에서 발기인총회를 열어 창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정관 초안 마련과 회장 추대 등 창립에 따른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창립총회는 5월 중순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사단법인화할 계획이다.

발기인은 선진규 박완일 목정배 한정섭 이하우 김철회 정병조 강건기 이중표 김덕수 권지홍 성순경 김재일법사 등 22명으로, 범종단적 성격을 띠고 있다.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재가법사는 "승가의 공백을 메워 포교활성화를 기하자는 것이 모임 결성의 목적"이라며 "재가종단의 창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사는 또 "각기 활동하고 있는 법사들의 포교경험의 공유와 정보교환의 장이 필요했다"며 고 말하고 "포교단마다 다른 불교의식과 교육교재의 통일화 작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6일 열린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전경.

과천-옥수사회복지관 '개관'

조계종 위탁복지관 27곳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과천시와 서울 성동구로부터 각각 위탁받아 운영하게 될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자승)과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이 26일 오후 2시에 동시에 문을 열었다. 이로써 사회복지재단이 위탁받아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은 모두 27개로 늘어났다.

과천시 별양동에 소재한 과천종합사회복지관(02-507-6319)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과 안상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이성환 과천시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같은 시각 서울 성동구 옥수2동 옥수종합사회복지관(02-282-1100) 개관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원장 혜창,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제원, 이세기 국회의원(한나라당), 고재덕 성동구청장 등 5백여명이 참석, 개관을 축하했다.

종단에 간담회 요청
송회장 사표 반려도
중앙신도회 운영회의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3월25일 열린 운영회의에서 송회장의 사퇴의사 표명은 중앙신도회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은 총무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총무원과 중앙신도회와의 간담회 개최를 요청키로 했다.

중앙신도회는 총무원과의 간담회에서 △사찰운영위에 신도 참여 보장 △사부대중의 일원으로서 신도회 권한 보장 △신도교무금 일부를 신도회 재정으로 전환 등을 요청할 것이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 전원이 사퇴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회장은 "지난해 회장 수락 당시 신도교무금 일부의 신도회 기금화를 총무원장과 약속했으나, 이 약속이 지키지지 않았다"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운영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사표를 반려했다.

군승단 **감사위원회 신설키로**

군승단칙 개정 '군법당 투명화' 결의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3월 25~26일 충북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군승단칙을 개정키로 했다.

97명의 군법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군승단은 기획국이 제출한 단칙 개정안과 법당운영청규 개정안을 심의, 개정키로 결의하고 이에 따른 조문작업은 기획국이 마련해 다음 총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음 정기총회는 11월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이전 임시총회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설될 감사위원회는 군법당의 업무실태 및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감찰기능을 수행한다.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보장을 위해 징계의 대상과 종류를 비롯해 제소와 조사, 심의, 의결 등 징계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운영세칙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법당운영청규도 개정해 군법당 운영에 신도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당운영위원회에는 신도회장을 포함 신도회 임원이 참여하며, 사업계획 및 결산업무를 운영위의 주요기능으로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승단의 이같은 '투명화' 움직임은 일반사찰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인사 종교편향"
본사주지모임 성명발표

민족문화수호를위한교구본사모임(회장 설조)은 20일 새 정부 각료인선에서 종교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본사주지모임은 19일 실천불교승가회 등 교계 9개 단체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동감하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본사주지모임은 성명에서 "새 정부의 인선은 대불교계 10대 공약사항을 이행할 것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밝은 세상을 기원하며…

광주 무각사 개원식 및 국난 극복과 불교 중흥 기원 광주 대법회

귀의 삼보 하옵고

우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전쟁(6·25) 이후 최대의 국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혼미에 빠져 있고 주춤했던 국민들의 과소비 행태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불교는 나라가 위난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 위난을 멸치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광주 무각사는 불기 2516년 당시 상무대 사령관이던 송호림 장군이 국민의 총화 단결과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한 민·관·군의 호국정신 교육 도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시 조계총림 송광사 구산 방장스님께 의뢰하여 창건된 사찰로서 그동안 상무대의 군법당으로 사용되어오다 상무대가 장성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광주 지역 교구본사인 송광사에서 관리하게 된 도량입니다.
무각사는 광주광역시의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10만여 평의 시민 공원 안에 10여 동의 요사와 110평에 이르는 큰 법당 등으로 이루어져 도심 포교와 도시민의 정신 교육 도장으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군법당으로 사용하던 무각사를 저희 전남과 광주 불교에서 인수·관리하게 되어, 그동안 수리·보수를 마치고 오는 4월 11일 개원식과 함께 호국정신과
남북통일 기원의 창건 정신을 살려 국난극복과 불교중흥 기원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가 흥할 때는 나라도 흥했으며 불교가 쇠퇴할 때는 나라도 쇠퇴하였습니다. 무각사 개원과 함께 호남 불교가 중흥하고 나라의 위난이 하루속히 극복되기를 기원합니다.

1부 (오후 2:00~4:00)

고불문 ..... 보성 큰스님(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대회사 ..... 지선 스님(백양사 주지)
법어 ..... 월주 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격려사 ..... 천운 큰스님(전남 사본사 협의회장)
축사 ..... 송언종(광주시장), 허경만(전남도지사)
박상규(국민회의 연등회장),박철언(자민련 불자회장)

⊙ 일 시 : 불기 2542년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 조계종 광주 무각사
⊙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 주 관 : 대한불교 조계종 광주 무각사
⊙ 후 원 : 전남 불교사본사 협의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 BBS불교방송, btn 불교텔레비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번지 무각사
전 화 062)383-0108 팩스 062)383-0109
광주불교사암연합회 062)376-3233/5



2부 (오후 4:00~6:00)

특집 공개방송 광주 시민과함께

B·B·S·다·시·듣·고·싶·은·노·래

MC 김 병 조

♬ 남 진·현 숙 ♪
국악인 신 영 희
■ 악단 : 박 찬 일 악단 (6인조)
▶ 방송 : 1998. 4. 19(일) PM 8:00~9:00

불기 2542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주지 현고 대한불교조계종 무각사 회주 법홍 합장

선학원 내부갈등 표면화

지방분원장들 이사회 퇴진 재산환원 요구

"내부규정으로 종단요구 수용"안 내놓기도

선학원 지방 분원장들이 조계종단의 요구사항을 내부규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안을 내놓으며 종단과의 협의에 동참키로 했다.

대구와 대전지역 분원장 30여명은 3월24일 선학원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중앙선원을 방문, 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단과의 실무회의에 분원장 대표 2인을 포함시킨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분원장들은 중앙선원에서 임시회의를 갖고 △이사회가 다년간 종단과의 관계 정상화를 수립하지 못하고 자격제한에까지 이르게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총사퇴하고 새로운 이사진과 협상단을 구성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라 △선학원 재산은 이사회재산이 아니므로 조계종과 분리 독립하려면 등록된 재산을 모두 환원하라 △이사회 임의로 이사를 선임하지말고 지역별로 분원장을 추천받아 선임하라 △중대결정과 정관은 이사회 임의대로 변경하지 말고 재산을 증여한 분원장들 참석하에 의견을 수렴하여 수행하라 등 4개항을 결의했다. 이 내용은 이사들과의 간담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원장들은 이사들과의 간담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종단과 합의 할 방법은 있다"며 종단의 요구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분원장들이 이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종단과의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로 현재의 제재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종단이 더이상의 대화를 거절하고 있고 재단은 자체 승려증발급과 교육위원회 구성등을 준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더이상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은 어렵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둘째는 재단에 등록한 재산의 환원이다. 분원장들은 재단 이사회가 종단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상황을 설정, 등록재산을 환원 받아 종단으로 등록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에 등록한 재산을 개인이 환원 받는 것도 현행법상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적잖은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결국 지방분원들은 종단의 제한조치로 인해 겪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의 책임을 이사회에 물으며 독자적으로 거취문제를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재단측은 "여러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정관개정 불가 의사를 보였던 분원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종단과 맞서 왔는데 지금와서 입장을 바꾸고 이사회를 질책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측이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선학원 내부에 적잖은 진통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연태 기자



"해산 하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설정스님(가운데)과 부의장 청화(좌), 법등(우)스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종회 해산'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할일 태산 유회거듭 사명감 부재 '원인'

조계종 11대 종회 해산론 나온 배경

개혁회의를 통해 구성된 조계종 제11대 종회가 '해산론'의 대두로까지 흘러왔다. 거기에는 종회의원들의 사명감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94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11대 종회는 모두 18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중 8번이 유회됐으며 그 이유는 모두가 성원미달이었다. 126회 종회의 경우 성원미달로 개회조차 되지 못했으며 이번 131회 종회는 안건만 논의한 채 다시 성원미달로 유회됐다.

성원미달로 인한 종회의 유회는 종회 임기 중반부터 두드러지기 시작, 임기가 8개월여 남은 현재까지 계속돼 왔다. 개혁회의 직후 종회가 밤늦도록 논쟁을 벌이며 진지하게 종책을 수행한 것을 감안할때 최근의 유회사태는 개혁의지의 냉각과 책임감의 상실이란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회의장 설정 스님은 26일 유회상황을 지켜보며 "종도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의원들은 허종행위자나 다름없다"고까지 질타했다.

종회 외부가 아닌 의장단과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산론이 제기된 것은 '자성'의 차원을 넘어서 '자학'과 '좌절'이라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스님들은 "오히려 내부에서 먼저 수술의지를 드러낸 것은 발전적인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해산론이 종회의원 개인에게 각성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임기말년의 종회는 할일이 많다. 그러나 종법제개정안등 주요사안들은 번번히 의안으로 채택만 되었을뿐 논의의 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종법제개정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는 하반기에 치러질 종회의원선거, 종회의장 선거, 총무원장 선거등이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렵기다는 것이 중론이다. 총림법의 제정과 종무원법 성보관리법 개정안등은 종단 집행부가 누적된 종무행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열쇠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종회의 거듭된 유회로 종단행정의 상당 부분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해산론'을 또다른 현안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임시종회를 다시 소집해 진지한 자세로 종단 현안들을 해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시각이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종회 해산절차는

조계종의 현행 '중앙종회법'에는 종회해산과 관련한 법조항이 없다. 다만 종헌 제28조 1항8호에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 제청권"과 "중앙종회가 해산되었을 때는 원로회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중앙종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원로회의법제13조와 14조도 종헌 제28조의 관련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종회가 해산을 결의하여 원로회의에 해산을 신청하고 원로회의는 2/3이상의 찬성으로 종정에게 이를 재가 받아야 종회는 해산된다.



수요 인터뷰

5일 '국난극복 대법회' 여는 신흥사 주지 도후스님

"참회하는 마음 호국의 출발선"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단협의회(회장 월주. 조계종총무원장)가 국가경제의 빠른 회생을 위해 각 종단이 주관한 전국순회 공동법회를 11월까지 8차례 개최한다.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 그 첫 법회로 조계종이 주관하여 4월5일 오후2시 강원도 신흥사에서 국민화합을 기원한다. 법회준비에 여념이 없는 신흥사 주지 도후스님을 만났다.

- 이번 법회는 범종단 차원에서 열리는 첫 국난극복 기원법회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업 가계가 모두 경제난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 대량실업사태로 국민들은 마음아파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면 불교는 분연히 그 극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회도 이시대 구제금융(IMF)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호국은 '참회'임을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이를 통한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것이지요.

- 신흥사 법회에는 전두환 前대통령 부부가 참석해 위기극복을 위한 기원사를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불자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어려움을 구하자는 취지의 법회에 전직 대통령이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을 것으로 봅니다. 전前대통령께 법회참석을 청했더니, 불자들부터 마음을 모아나가면 온 국민에게로 확산돼 빠른시일내 국가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마침 가족 전체가 올리고 있는 백일기도 회향도 며칠 남지않아 이번 신흥사 법회를 큰 인연으로 받아들이시더군요.

- 이번 법회는 국민화합을 기원하면서 화합의 나무심기 행사도 있지않습니까.

국민화합기원 나무심기 당일 입장료 받지않기로

▲지역 · 계층 · 빈부 · 종교 등 국민 갈등 요소를 하루속히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구동성으로 기대한 것도 국민화합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회에서는 법요식장인 통일대불 앞에서 약 150m떨어진 곳에 국민화합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 강원도가 지리적인 특성으로 불자들의 동참을 위해 더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4교구 본사 월정사 차원에서도 함께 추진하고 있고 조계종 소속 사찰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음종 법륜종 원융종 등 각 종단 종도들도 동참합니다. 전국 불자들의 원력이 집약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영란 기자

목어

'생명의 숲'

늘어나는 실업자 · 사기 · 절도 · 여중생 자살등 우울한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있다. 그렇다고 마냥 이런 분위기속에서 지낼 수야 없지 않은가.

자신을 움직이는 주인이 자기이듯, 우리를 움직이는 주인 역시 우리들이다. 나무에 새순이 돋고 봄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있다. 계절에 역행하지 말자. 희망을 갖자.

요즘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펼치는 '생명의 숲 가꾸기운동'은 바로 희망가꾸기 운동이다.

10년간 매년 10만명씩 참여하여 전국의 산에 숲을 가꾸는 이 운동은 IMF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공공사업으로 실시되면 참가자들은 산에서 수개월씩 캠프생활을 하면서 나무를 심고 솎아베고, 어린나무를 가꾸고 덩굴을 제거한다. 수종을 개량하는등 사업을 잘 펴면 투입비용의 2.87배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4배의 환경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실업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숲 가꾸기는 더없이 큰 희망가꾸기이다.

숲은 여러면에서 인간을 이롭게 한다.

최근 "산림욕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피놀 성분을 함유한 나무의 정유(나무생장호르몬)는 동물을 진정시키므로 편백 · 잣나무 · 소나무 옆에 서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는 것.

숲은 대기의 탄산가스를 흡수한다. 때문에 탄산가스 흡수를 저해하는 대규모 산림전용 억제 및 휴 · 폐경지 조림사업 강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경학박사(임업연구원 · 39)에 의하면 잣나무의 경우 60~70년 자란다고 봤을때 그루당 연평균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0.0009052탄소t. 승용차 1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955탄소t. 이를 다흡수케 하려면 1인당 평생 1055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나무와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서있는 두개의 갈대단처럼 공생한다. 공생의 연(緣)을 잘 가꾸는 일은 곧 생명운동이며 화합운동이다.

4월5일은 식목일.

"나무를 심자. 10년후 생명의 숲을 연상하면서." 숲가꾸기 시민참여 · 취업 희망자는 (02)771-0370으로 전화하십시오.

극락정토의 염원을 담은
아미타전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극락정토의 발원을 세웁니다.

아미타전도 보고 여가도 즐기고 …

예약자 할인!!

· 기간 : 98년 3월 3일 ~ 8월 30일(181일간) · 장소 : 호암미술관
· 전시품내용 : 총40건 42점(불상 1건 1점, 불화 1건 1점, 서경 3건 3점, 진적 3건 3점, 서예전 1점, 불구 3건 3점, 도자기 1건 1점)

● 관람일정 (미술관↔에버랜드 셔틀버스 운행)

■ 아미타전 관람 : 개장 오전 9시 폐장 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 호암미술관 관람 : 정원 (측림 간정, 소원, 관음정 꽃밭 등) → 미술관관람 (2층 도자기실, 고서화실 → 1층 아미타전)
■ 호암미술관 → 에버랜드

● 아미타전 관람요금 (11명이상 단체에 한함)

상품명	상품내용	일반개인	일반단체	아미타전 우대가격 어른	중고생	어린이
아미타	아미타전관람+에버랜드관람	13,000	11,000	8,500	6,500	4,000
아미타 1	아미타전+에버랜드관람+놀이시설 1종선택	15,000	13,000	10,000	7,000	6,000
아미타 2	아미타전+에버랜드관람+놀이시설 2종선택	17,000	15,000	11,500	8,500	7,000
아미타 3	아미타전관람+에버랜드관람+빅5	22,000	20,000	16,000	13,000	10,000
아미타 4	자유이용권(아미타전관람포함)	22,000	20,000	18,000	14,000	11,000

※ 현대불교신문사로 관람 신청하시는 단체에 한해 우대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생을 원하는 사찰 및 단체는 본사에 문의 협의바랍니다.

■ 공 동 주 관 : 현대불교신문사, 삼성에버랜드, 호암미술관
■ 문의 및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전화 : 02-732-1522, 737-8881 팩스 : 737-0697, 737-0696)

송광사 삼월불사 안내

- 방장 추대법회 · 주지 취임식 및 가사불사 회향 -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효봉, 구산, 일각선사로 이어지는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牧牛家風**을 계승해 왔으며,

20여년 전부터 불일국제선원을 개설하고, 하계수련회를 매년 개최, 국내외에 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제8차 중창불사를 거쳐 중단 없는 불사로 도량의 면모가 일신되고, 결제대중이 150명에 이르고 있으며, 구산선사의 유훈에 따른 중창불사의 회향을 위한 마지막 불사로 율원(비전)과 수련장 불사가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불사는 **先師**스님들의 **加護**와 **叢林大衆**들의 화합, 여법한 정진, 그리고 전국 불일회원과 사부대중의 수희 동참한 원력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계총림 제5대방장에 범일보성대화상(**梵日菩成大和尙**), 부방장에 석림현호화상(**石林玄虎和尙**)을 산중임회(**林會**)와 종회에서 추대되었고, 그 동안 중창불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현 주지 현고화상(**玄杲和尙**)이 후임 주지에 재추천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인년 삼월불사에는 보살계 수계산림과 보조국사 종재 뿐 아니라 **방장스님의 개당설법** 및 **주지 진산식**과 3년에 걸쳐 3천벌을 조성한 **가사불사 회향식**을 성대히 갖고져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동참하신 사부대중과 전국 불일회원은 물론, 뜻 있는 모든 불자들의 수희동참을 거듭 바라면서 이 인연 공덕으로 다 같이 복혜가 구족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법 회 안 내

1 일 시 : 불기 2542(1998)년 4월 21일(음, 3월 25일)~4월 23일(음, 3월 27일) 3일간
① 4월 21일(음, 3월 25일) 오후 7시 보살계 입재 /오후 8시 보살계 심지법문
② 4월 22일(음, 3월 26일) 오전 7시 보살계 계율설법(법문)
오전10시 3차 가사불사 회향/오후 1시 방장스님 개당설법, 주지진산식/
오후 3시 보살계 계율설법 (법문)/오후 7시 전국불일회 정기총회
③ 4월 23일(음, 3월 27일) 오전 7시 보살계 수계의식/오전 9시 법성도 요잡의식/
오전 10시 788회 보조국사 종재동행/12시 무인년 3월불사 회향

2 계 사 : 전계아사리(梵日菩成) 교수아사리(杲山慧元) 갈마아사리(度然法興)

3 동참방법 : 가사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이나 삼월불사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은 송광사 종무소 또는 아래의 연락처에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연 락 처 : ① 본사 :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 광 사**
종무소 전화/**0661)755-0107,0108,0109** 팩스/**0661)755-0408**
② 지역 : · 서울분원 법련사/02)733-5322 · 광주분원 원각사/062)223-3168
· 대구분원 관음사/053)423-4413 · 순천분원 대승사/0661)744-4902
· 부산분원 관음사/051)205-0069 · 부산분원 보덕사/051)518-7790
· 여수분원 보현사/0662)62-5145 · 광양분원 보광사/0667)763-1192
· 송광사 각말사암 · 각지역 불일회

5 동 참 금 : ①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 동참금 30,000원
② 영가천도 동참금 10,000원 ③ 가사불사 : 한가족 한벌동참금 300,000원

♣ 온라인 번호 ① 농 협 615107-51-008814 (예금주 **송광사**)
② 우체국 501676-0014699 (예금주 **송광사**)
③ 국 민 551-01-0470-485 (예금주 **송광사**)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우:540-930)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승보종찰 송 광 사 조계총림

방장 범일 보성 주지 현고 合掌



구미시 모례원서 법회



도문 (재)대각회 이사장 스님(서울 대각사 대각선원 조실)은 1일 구미시 신라불교 초전법륜성지 아도모례원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복지시설에 5백만원 기탁



법타 대구불교방송사장 스님(은해자 주지)은 3월11일 북한동포돕기 금강국수공장후원회, 학산종합복지관, 불교사회복지회, 백천사회복지관, 문경오전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5백여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결성



성오 부산불교연합회장 스님(범어사 주지)는 3월26일 연지동 화지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결성 법회를 봉행했다.

'전통찻집 운영' 특강



용운 초의문화재단 이사장스님은 10일 오후2시 초의 선원에서 '전통찻집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무료 특강을 한다.(02)732-2319

5·18묘지서 위령 천도재



삼중 전국교도소재소자 교화후원회장 스님(자비사 주지)은 3월25일 광주 망월동 5·18묘지에서 영·호남 화합을 위한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위령 천도재를 봉행했다.

삼화사 미타전 기공식



원행 등해 삼화사 주지는 5일 법당 약사전 준공 및 약사천불 점안식과 미타전, 산신각 신축 기공식을 봉행한다.(0394)34-7661

광주불교문화대학 입학식



영조 광주불교문화대학장 스님(증심사 주지)는 3월17일 광주불교교육원에서 광주불교문화교육대학 입학식 개최했다.

불교대서 '지장경' 강의



정우 선경암 주지는 2일부터 3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인천 부평 마하연 금강불교대학에서 〈지장경〉을 강의한다. (032)523-9911

한솔종합복지관 개관



청광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무심정사 주지)은 3월30일 성남시 분당구 정지동 101법지 소재 복지관에서 개관식을 거행했다. (0342)716-4215

한·미얀마 불교교류 협의



태완 한·미얀마 친선협회장 스님은 3월23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서 우폰민트 대사를 만나 양국의 교류증진과 불교문화 교류에 대해 협의했다.

'백운선사어록' 등 강의

법성 대승사 주지는 대승사에서 '백운경한선사어록'과 '불조직지심체요절'에 대해 강의한다.

구치소 불서 구입비 전달



금종 부산해광사 주지는 지난 12일 부산구치소에서 가진 목요법회에서 재소자들의 불서구입을 위한 금일봉을 전달했다.

자원봉사 시민대학 개설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 스님(방생선원 주지)은 3월30일~7월3일 실직자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시민대학을 개설한다. (02)723-6258

'방글라' 독립기념행사 참석

최일산 원곡청소년센터 관장은 3월26일 '방글라데쉬 독립 2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우호 교류와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茶道 익히는 외국인 관광객

Focus

'한 잔의 차/한 조각 마음에서 나왔으니/한 조각 마음/한 잔의 차에 담겼네'

3월25일 봉원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첫 다도시연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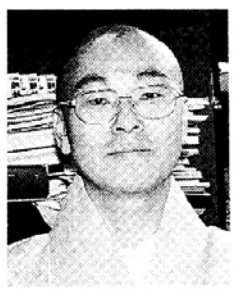
부처님께 차를 공양하는 헌다의식을 시작으로 다구 설명에서 차 따르기, 차 마시기까지 차 마시는 의식 전 과정이 시연돼 삼천불전안이 온통 차향으로 가득했다. 차를 직접 시음하는 자리에서 원법스님(대전 보은정사 주지)은 차 한잔에 담긴 중도·중용의 의미를 설했다. 싱가폴, 인도, 대만 등 동남아권에서 온 외국관광객들의 모습은 진지하다.

싱가폴에서 왔다는 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도 늘상 마시는 차지만 차 마시는 자세와 공덕이 이렇게 심오한지 미처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기석 기자

"사회·종단에 비판과 대안제시"

새불교운동승가회 운영위장 도완스님



"사회와 종단에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된 도완스님(영월 법흥사주지)은 월 1회 포럼및 세미나개최를 통해 불교여론을 향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포럼은 시민운동과 불교적 대응에서부터 종단 개혁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

또 교계에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토론회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가 창립이후 대외적인 활동을 지양해왔다"며 "그동안 내적으로 매월 가져온 세미나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사회참여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사무처를 활성화하여 조직을 정비한 뒤 4월중 초파일기념 포럼을 준비하겠다고.

도완스님은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가불자들까지 참여하는 교계단체로 기구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피력했다.

스님은 교계의 역량있는 재가불자들을 다수 확보하여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현재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6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준회원도 1백40여명이 가입해 있다.

김원우 기자

'1m 1원 마라톤' 참가



◇월면스님



◇승석구 총장

임면 광동학원 이사장 스님(불암사 주지)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은 3월29일 경주에서 열린 '국민대화합과 국난극복의 한마당'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1미터 1원 모임'의 이웃돕기에도 동참했다.



◇혜창스님 ◇원우스님 ◇제원스님 ◇설송스님 ◇영배스님

사회복지원장에 혜창스님

조계종 총무원 부장급 인사

조계종 총무원은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임기 마지막 해를 이끌어 갈 사회복지원장, 호법부장 등 부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총무원은 3월19일과 21일 사회복지원장에 혜창스님(前총무부장)을, 총무부장에는 원우스님(前재무부장)을 임명했다. 호법부장에는 3월19일 중앙종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인준받은 영배스님을 임명했다.

또 기획실장에 제원스님(길음복지관관장)을 재무부장에 설송스님(대전사주지)을 각각 임명했다.

혜창스님은 62년 직지사에서 관응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69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원우스님은 68년 범어사에서 고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4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영배스님은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66년)와 비구계(71년)를 수지했다. 제원스님은 75년 구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동국대 행정대학원, 美 메릴랜드대학을 수료했다. 설송스님은 내장사 상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74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78년)를 수지했다.

우리민족돕기 불교본부 모금

△개인 모금 총액 330,000원(19명) △한 주 한끼굶기 1,037,840원(41명) △밥한공기 나누기 194,000원(57명)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 결연 950,680원(48명) △서초동 정토법당 신도회 450,000원 △성불회 30,000원 △정토회 청년정토 607,000원 △정토회 아니룻다회 85,000원 〈3월25일 현재 총 961,488,212원〉

· 접수:(02)3672-5373
· 계좌: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 (우리민족 불교운동)

■ 직지사 운전불자회 양춘달 초대회장

"김천불교 홍보사절 역할"



직지사 운전자불자회가 3월26일 제8교구 직지사 설법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초대회장에 양춘달(36) 신흥택시노조위원장을 선임했다.

운전경력 5년의 양회장은 "김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교문화를 홍보하는 사절로서의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직지사운불회는 김천의 4개 법인택시40명과 개인택시20명등 총60명의 회원으로 출발했다.

同불자회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 정기법회를 가지며 문화유적답사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등의 사업을 마련해 놓았다. 직지사는 운불회스티커를 제작, 김천 구미등지의 운불회회원들에게 배포하여 경내를 무료로 출입케 하는등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18만 선후배 화합 제목소리 낼터"

대불련 총동문회장 임동주씨



"대불련 10년차로서 첫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던데, 불교계 안팎에서 수행하고 활동하는 대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월21일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이하 대불)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임동주(한국정신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48)씨.

임회장은 "우선 동문들을 지역·직능별로 구분해 주소록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며 "이 주소록은 대학생 후배들이 활동하고 있는 대불련 지부·지회와 유대를 맺고 동문 소식지 발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불 회원들은 지난 30여년간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겨왔지만, 정작 불교계 속에서 온전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불은 63년 설립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시원을 두고 있으며 67년 한국학사불교회를 설립해 지금의 대불 조직을 갖추었다.

이에 따라 임회장은 올해 말경 대불련 선·후배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화와 놀이의 장인 '총동문 하계 캠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수행과 사회운동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3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불의 회원수는 통상 18만명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1천2백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임동주회장은 "대불이 친목단체에서 불교사회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후배의 세대 차이를 좁히는 등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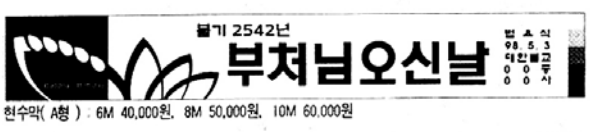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

불기 2542년 봉축행사용품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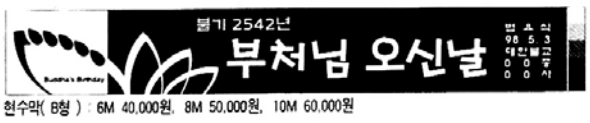
연꽃향기 가득히

btn이 부처님 오신날을 보다 장엄하게 꾸며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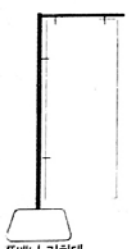
btn이 연꽃향기 가득한 마음으로 4·8 봉축행사 용품을 만들었습니다.
보다 친근한 디자인, 격조 높은 고급품질로 btn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 내겠습니다.
- btn 임직원 합장 -



현수막(A형) : 6M 40,000원, 8M 50,000원, 10M 60,000원



현수막(B형) : 6M 40,000원, 8M 50,000원, 10M 60,000원


폴배너 거치대 25,000원



폴배너 2종 1세트 50,000원
10세트이상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번 : 50,000원 (거치대 포함)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만등기(4장, 2M) 5,000원 재질 : 종이


노트 : 2,000원


노트 : 1,000원



모자 (성인용, 아동용) : 5,000원
썬캡 : 3,500원



조끼 (대, 중, 소) 40,000원



타일링 가격 :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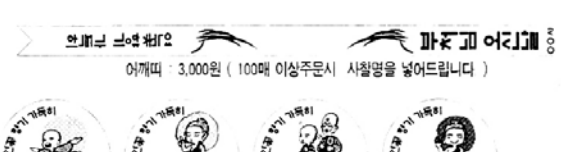
등꼬리표(100장) 2,000원



티셔츠 (대, 중, 소) : 9,000원
라운드티 앞뒤 인쇄, 성인용 아동용



폴로티셔츠 (대, 중, 소) : 15,000원
앞 자수, 성인용 아동용 (고급형)



어깨띠 : 3,000원 (100매 이상주문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버튼 : 400원 (A형, B형, C형, D형 낱개판매)
버튼형 열쇠고리 1,000원 (A형, B형, C형, D형 낱개판매, 뒷면 거울 부착)



팬시 스티커 100원 (A형, B형, C형, D형, E형 낱개판매)



차링스티커 2,000원
에폭시 방수 고급스티커


풍선 : 30,000원
4색혼합 100개 들이

•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ATV 채널32 불교TV에서 방영되는 광고와 각 사찰로 발송되는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문상담전화 (02)3270-3366 (신용카드 구매가능)
• 4월10일까지 선주문시 5%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농협중앙회 069-01-233103 예금주 불교텔레비전(주)

우 121-73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418
문화사업단 : TEL:02)3270-3366(대)
FAX:02)3270-3498

btn 불교텔레비전 32

우리 모임에선

반야라이온스 경로식당 현판



서울반야라이온스클럽(회장 강학일)은 3월 24일 시설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새마을회관에 마련한 종로경로식당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국제라이온스클럽 안문수총재 3지역 김해종부총재등 내외인사와 서울반야라이온스클럽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교사불자회 창립

대구교사불자회(회장 손기완, 대구능인고 교감)는 4일 오후3시 진각종 립 대구능인고 반야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대구시내 1백77개교 3백여명의 교사불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교사불자회는 앞으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구시지부로 활동하게 된다. (053)764-0806

서울시청 해인사 순례

서울시청불심회(회장 제타룡)는 3월 28, 29일 합천 해인사에서 성지순례법회를 가졌다. 29일 새벽예불후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을 친견하고 가야산을 등반 정상에서 산상법회를 봉행했다. 이 법회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불심회도 함께 참가했다. (02)730-2994

부산운불 무사고기원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16일 해동용궁사 입구 교통안전기원탑 앞에서 무사고 기원 교통안전기원법회를 갖는다. 이번 법회는 부산지역 운전불자 3백여명이 참석하여 IMF시대 경제회생기원과 안전운전을 다짐한다. (051)464-2020

'강남포교' 이끌 새 신행단체 탄생

서초구 공무원 불교연합회 내달 2일 창립
서초구청 대법원등 7개기관 1천불자 결집

지자체시대 '우리 고장 불국토'를 염원하는 서초구 1천여명의 공무원들이 서초공무원불교연합회(회장 차정욱, 서초구 부구청장)를 창립한다.

외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서초구청 서울교대 서울지법 방배경찰서 등 서초구지역 관내 7개기관 불자회가 연대하여 5월 2일 서초공무원불교연합회를 창립하는 것은 21세기 한국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고 지역내 불자화합을 통한 불교포교에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진다.

서초공무원불교연합회 창립준비위는 3월 13일 각 관청 불자모임 대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발기인 모임을 갖고 '부처님의 본원인 대자비사상을 근본으로 수처작주(隨處作主) 할 수 있는 시민정신을 고양하자'는 창립 취지문과 앞으로 활동방향을 확정했다.

창립준비위는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7시에 정기모임을 갖고 불교연구발표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관내 사찰순례법회, 서초구지역 장애인및 불우시설 보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서초공무원불교연합회는 5월 발족과 함께 서초사암연합회, 각 사찰 신도회및 각 단체 불교신도회, 서초공무원불자연합회등과 연합하여 서초불교발전협의회를 구성한뒤 지역포교와 불교발전에 앞장서기로 했다. 준비위는 10일 2차 회의를 갖고 회칙및 사업계획 수립, 창립총회 장소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차정욱회장은 "불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며 "지역 사암련등과 불자공동체를 조성하여 서초지역 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IMF 빨리 벗어나게 정진합시다"

경북도 경불회·정각회 합동기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공무원이 IMF극복을 위한 합동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경북도의회 정각회와 경북도청 경불회는 3월 24일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IMF 조기극복을 기원하는 98정기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는 정각회·경불회가 연 2회 갖는 정기합동법회의 일환이기는 하나 IMF를 맞아 위축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했다는 의미가 컸다는 여론이다.

도원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이웃과 고통을 함께하려 한다면 조만간 국가의 경제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정각회와 경불회는 24일 IMF 조기극복을 기원하는 정기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타스님, 직지사 부주지 법등스님, 대구심인당 최지광 정사(前 진각종 통리원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주기돈 대구정각회장, 오장홍 경북도 경불회장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도,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대구정각회는 6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북도청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모임인 경불회에는 2백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직지사 운불회가 26일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직지사 운전불자회 탄생

경북 김천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전불자들로 구성된 직지사 운전자불자회가 창립됐다.

직지사운불회는 3월26일 직지사 설법전에서 6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직지사운불회는 지난 95년 30년 중창불사를 회향한 직지사가 지역포교에 적극 나서면서 이뤄지고 있는 결실중의 하나다.

직지사 운불회의 초대회장에는 양춘달 신흥택시노조위원장(관련인터뷰 4면)이, 부회장에는 이상칠 황악택시노조위원장과 지창수 개인택시운전자가, 총무와 재무에는 박세억 칠칠택시노조위원장과 김기흥 김천택시노조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탐방 법조인불자회

'파사현정' 구현하는 사람들



◇법조인 불자회원들이 강화도 보문사를 사찰탐방하여 대웅전 벽화를 보며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다.

변호사 100명 30년 역사 교계 법률자문역 단골 노인복지시설 정기위문

21일 아침 8시 서초동 대법원앞. 법조인불자회(회장 김홍근, 변호사) 회원 30여명이 강화도 보문사 사찰순례법회 참가를 위해 모여 원로법조인들에게 합장인사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한다.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에 도착한 법조인들은 대웅전에서 삼배후 석굴법당에 모였다. 삼귀의를 시작으로 법회가 열리고 보문사 주지 문종스님 법문이 이어진다. 스님은 "세상이 어려울 수록 부처님 정법의 가르침에 의지하며,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회후에는 보문사 유래를 듣고 유적을 둘러보는 법조인들의 모습은 불교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듯 하다.

법조인불자회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을 목표로 1969년 창립하여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동안 용태영 변호사(前 회장)를 중심으로 성탄절만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송을 제기 75년 부처님오신날을 법정공휴일로 만드는 대성과를 거두는등 교계에 큰 역할을 해왔다. 또 교계의 법률자문과 고문역할을 자임하며 종단과 사찰, 단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도 사찰 순례때엔 법적으로 고통받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도 이때문이다.

1백여 변호사불자들로 구성된 법조인불자회는 업무상 바쁜 일정속에서도 매월1회 전국사찰을 순례하며 법회를 갖고 있다. 올해는 관음도량을 중심으로 순례법회를 갖을 계획이다. 또 명절때면 자광원등 불교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사회봉사활동도 열심이다.

최근 불거진 의정부지검 사태를 보며 '정법에 어그러지는 사악한 생각 깨뜨리고 올바른 도리를 뚜렷이 드러내라'는 부처님 말씀이 이처럼 가슴에 와닿는다는 회원들은 곧은 법집행으로 정토구현을 다짐한다.

김홍근회장은 "회원들이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법회를 정례화하고 법무사, 법학교수, 법조관련계통에 종사하는 직원들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활동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화도=김원우 기자



전법도량 목포불교대학 현판식

조계종 전법거점도량인 목포불교대학(학장 보선스님, 대둔사 부주지) 현판식 및 개교식이 3월24일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대둔사 주지 천운, 백양사주지 지선, 송광사주지 현고, 화엄사주지 종열 스님, 권이담 목포시장, 임송본 목포시의회의장 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월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목포불교대학 개교를 계기로 지역화합과 불교발전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교대구교육원 창립 10돌

불교대구교육원(원장 운성스님)은 3월 25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무공스님(동화사주지) 법타스님(대구불교방송 지사장) 원명스님(대구사원련 회장) 최동원 대구광역시신도회장등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법회에서 수암스님(前 동대 불교문화대학장)이 '불교교육의 목표와 비전'을 주제로 강의했다. 불교대구교육원은 88년 설립, 지금까지 약 3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진관스님 출소 환영법회 봉행

진관스님 출소 환영법회가 3월25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봉행됐다.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종회의장)스님 축사와 KNCC 김동완 목사,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중석 신부, 김근태 장영달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종회의원, 실천승가회, 석림회, 전불련, 민가협, 나눔의집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관스님은 직접 작사작곡한 '나무미륵존여래불'을 불러 눈길을 끌었다.



상주법우회 비로자나불 공양법회

대한불교상주법우회(회장 김종하)는 3월22일 경북 상주시 서성동 소재 왕산에서 보물 제119호로 지정된 비로자나부처님 봄 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만공(극락암 주지) 경남(연수암 주지) 대호(극락정사 주지)스님을 비롯 김근수 상주시장, 강용철 시청 공보실장, 김증철 시민과장 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명예기자=이증철〉

공 고

1997년 12월 10일자 현대불교 신문 광고란에 홍재규(학암)명의로 게재된 광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받았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1998년 3월 일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이 대 산(혜봉)

● 사 과 문 ●

이대산 종정예하

소승이 1997년 9월 24일부터 1997년 12월 24일까지 4회에 걸쳐 이대산 종정스님을 비방,모독하는 내용의 서신(내용증명)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소속 각 종단 종정스님들께도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낸바 있으며 현대불교신문(1997년 12월 10일자)에도 고법판결문과 함께 내용증명 일부를 게재하여 이대산 종정스님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바 있습니다.

이는
1)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중 "각하한다"는 문안을 "기각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잘못알고 소승 측이승소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며

2)내용증명에는 이대산 종정스님께서 불신임 처리된 후 종정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종령을 발동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소승 측 종희에서 불신임안이 처리되기 이전에 종정으로서 적법한 종정권한 행사였습니다.

3)내용증명에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언어를 구사 한 것은 소승의 수행과 덕화의 부족이였음을 시인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종단의 최고 지도자를 비록 비방 모독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승의 행위로 인하여 이대산 종정스님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단과 종도를 나아가 불교계에 크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깊이 사과 드리며 차후로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1998년 3월 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원복리 80
임오사 조실 혜암(학암) 재규
입적인 대한불교 법상종 종정 연암 우영명

법주사 강원 학인모집 공고

98학년도 법주사강원 신입생 및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98학년도 증설 과목 및 외래강사
1. 내 전 - 화엄경현담(대교과)
2. 교 양 - 중국불교사·초급한문·중급한문·전산기초
3. 특 강 - 비교종교학·중국선종사
4. 외래강사 - 덕민큰스님(전 쌍계사 강주)
성본스님(동국대 교수), 지명스님(청계사주지)

- 다 음 -

■ 모집학과 : 사미과(치문반) 00명
사집편입 00명
■ 입학자격 : 조계종 승려로써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 사집과 편입의 경우 사미과 수료자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
은사스님 추천서
주민등록 초본
증명사진 5매
■ 접수기간 : 2542년 4월 1일~4월 14일
■ 전형일시 : 2542년 4월15일 오후 1시
■ 장 소 : 강원 큰방
■ 준 비 물 : 기사·장삼·발우·기타 학업에 필요한 것
■ 문 의 처 : 법주사
(0433)43-6783
(0433)43-4858, 3615

불기 2542년 3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강원

주지 혜 광 · 강주 혜 남

법회안내



각성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 교수)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부산 구도회 〈능엄경〉 법회.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 한국불교영상통신강원 경전연구 야간반 〈불조직지심체요절〉 강의. 서울 봉은사 넷째 일요일 오전 10시 〈원인론〉 법회. (051)809-8945~6



일광스님(광주 자비정사 주지)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 10시 신중기도 법회. 매월 음력 7일 오전 10시 정진기도법회.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거사림법회. (062)234-0879



혜천스님(손모음선원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30분 관음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30분 지장법회. (02)3437-6958



법운스님(광명청룡사 주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1시반 영등포 구치소 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가족법회. (02)612-0609



강건기교수(전북불교대학 학장) 8일 오후 2시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불교와 기독교' 주제 다보문화 강좌.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3시 전북불교대학 토요법회.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전북불교대학 〈수심결〉 강의. (0652)226-7878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나라사랑 충혼 기려
표충사 사명대사 추모재

"이 땅에 우리국가 우리민족이 영원히 존속 번영해야 한다"는 크나큰 원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했던 사명대사, 그 호국의 마음을 현재에 되살리고자 하는 춘계향사가 열린다.

밀양시와 표충사(주지 신허)가 공동주최하는 509회 춘계향사는 호국충혼을 깊이 추모하고 널리 선양하고자 하는 취지로 255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 표충사 표충서원에서 열리는 이날 향사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기허대사의 행장소개, 헌공, 헌향, 헌화에 이어 전통유교식 제향 등의 순서로 치뤄진다. (0527)52-1150

남해에 핀 고려 호국얼
이산각碑 판각시연대회

호국의 염원을 팔만대장경에 새기던 고려인들, 그들이 얼이 남해 앞바다에 되살아 난다.

3일부터 5일까지 팔만대장경이 관각되었던 성지인 남해 관음포 앞바다와 충렬사에서 팔만대장경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각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많은 불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이산각연구소(소장 안준영)와 남해문화원(원장 이동선)이 주최하는 팔만대장경 목재 채취 및 관각대회, 판각시연 행사가 그것. 남해 벚꽃 축제기간중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민들과 학생들에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 판각시연과 관각체험을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기위해 치뤄진다.

국난극복을 염원하던 그 고려인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국극복의 염원을 팔만대장경 관각에 담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0599)33-6590, (0594)64-6969



◇국난극복을 위해 고려인의 마음을 되새기며 남해에서 재현되는 팔만대장경 판각행사에 참가해 보자. 사진은 해인사 홍제암 판각시연 모습.

예수재 모든것 한눈에
조계종 포교원 자료집 배포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음력 윤5월을 맞이해 〈생전예수재 자료집(68쪽)〉을 발간, 보급하고 있다.

자료집은 예수재의 참된 의미, 의식 절차에 담긴 뜻, 예수재 동참 방법, 기도와 발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포교원은 불교의 전통재례인 생전예수재의 참된 뜻을 널리 알리고 신심고양의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자료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1부당 1천원에 배포하며, 3백부 이상 주문시는 해당 사찰명과 사찰의 행사일정을 표지4에 인쇄해준다. (02)720-7060~4.

보름달과 함께 탑돌이
불국사 · 대구BBS

신라때부터 휘영청 찬란한 둥근달이 뜨는 보름날, 친지나 이웃끼리 지극한 마음으로 탑을 돌며 각자의 소원성취를 위해 기원하는 풍습인 탑돌이.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는 11일 대웅전에서 탑돌이 법회를 봉행한다.

대구 불교방송과 함께 주최하는 이번 법회는 고승대덕의 법문에 이어 장적(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스님의 안내로 불국사 참배 및 관람 등을 하게 된다.

이번 법회를 통해 서원을 빌며 정진 발원하는 탑돌이 법회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보자. (053)427-5114

맘에 드는 짝 만나세요
능인복지관 인연찾기 행사

노력하지 않고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없다.

능인선원사회복지관(관장 지광)이 18일 오후 4시 능인결혼예식장에서 '선남선녀 인연찾기 행사'를 연다.

33세~37세 미혼남성불자와 30세~33세의 미혼여성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보자. 참가를 원하는 불자는 직접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02)557-5800

울릉도 향나무 숲으로
'향찾사' 3~6일 식목행사

모진 해풍과 척박한 자연환경속에서 더욱 향기로워지는 울릉도 향나무는 우리의 전통향으로써 애용돼 왔다. 한때 울릉도에 원시림을 이뤘던 울릉도향나무는 그러나 남벌과 관리소홀로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의 전통향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향기를 찾는 사람들(대표 박희준)은 식목일을 맞아 우리향문화의 현주소를 알리기 위한 울릉도향나무 가꾸기 운동을 3일~6일까지 울릉도 현지에서 실시한다.

수입향과 인조향의 홍수속에서 전통향을 다시 살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이번 행사에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02)723-8155

나의 수행일기



김 연 수 〈변리사〉

금강경 '공관법' 만나 제2의 삶

'범소유상 개시허망' 늘 염송 번뇌 제거

불교와 인연이 된지 어언 20년, 그동안 나는 화두참선을 위주로 수행을 삼아왔다. 그러나 알다시피 화두참선은 쉬운일이 아니다 더구나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을 해가면서 화두를 참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너무도 힘이들어 참선공부를 포기할 무렵이었다. 내게 결정적으로 큰 인연이 다가왔다.

유마선원의 이제열법사님으로부터 〈금강경〉에 입각한 공관법을 만나게 된 것이다. 〈금강경〉의 공관은 세간의 모든 법을 실재로 보지않고 헛되고 망녕된 것으로 보아 그 본질이 공함을 꿰뚫은 공부방법이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가운데 전제된 일체의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절대적이 아닌 무상적 존재이며 무아적 존재이다. 이 무상과 무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幻)이나 공(空)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열 법사님은 바로 이 관법을 〈금강경〉을 바탕으로 하여 지도하고 있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이 실재하지 않고 허망하다고 여기는 관 공부를 하게 되면 혹 허망하다는 소견에 빠져 현실도피자나 허무주의자가 되지않을까 하고 염려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일체를 환이나 공으로 봄으로해서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가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을 아주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밝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상세한 법문을 들고 보니 흥미와 희망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롭게 여겨졌다.



그 방법은 이렇다. 수행자는 우선 바깥대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기의 모든 마음의 흐름을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고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공관이 되기위해서는 맨처음에는 이 게송을 집중적으로 염불하듯 속으로 암송한다. 다음에는 이와같은 수행의 힘으로 자기의 마음에서 파생되는 탐욕이나 성냄 미움 등의 좋지 않은 감정을 개시허망이라고 떠올리면서 격파시켜 나아가고 나중에는 기쁨 즐거움 등의 쾌락적인 감정을 소멸시켜 나아간다.

순간순간을 살다보면 생활상의 문제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빨려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개의치 말고 앉고 서고 일하고 움직이는 속에서도 마음을 문득 문득 개시허망이라고 여겨서 끊이지 않게끔 한다. 이렇게 되면 처음의 일념으로 암송했던 힘은 망녕된 인식활동을 그쳐 지법(止法)을 이루게 하고 갖가지 마음흐름을 보는 것은 관법(觀法)을 이루게 하여 모든 경계의 본질을 지혜로 통찰함으로써 완벽한 지관쌍수를 병행하게 한다. 그리고 최후에는 이 수행도 화두의 단제(單提)와도 같이 번개처럼 때려주는 큰 힘이 있어 그 작용으로 본연의 주인공 자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자리가 드러날때에는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밖의 경험을 겪게 된다. 다치 산이 무너지듯 허공이 꺼지듯 자기라는 망녕된 식(妄識)이 크게 무너져 청정한 자성자리를 보게되는 것이다. 나는 이 수행이 너무나도 많은 외부경계에 끄달리며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한 순간에도 수없이 일으키는 집착과 고뇌들을 확실하게 끊어줄 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도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생활과 더불어 얼마든지 장애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금강경〉 공관법을 세상에 널리 추전하고자 한다. 이 공관법이야 말로 현대생활에 맞는 아주 효과적이고도 전통적이며 한편으로는 아주 새로운 수행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다. 나는 이 수행을 통해서 굉장한 삶의 브랍을 찾았다. 나는 아직 더 닦아야 할 중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내가 불문에 귀의하여 안심입명할 바를 얻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자그마한 나의 이 밝은 마음을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이들에게 널리 회향되었으면 하고 기도 드린다.

게 시 판

♣ 알림

△신입생수련회=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임혜진)는 3일부터 5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신입생을 위한 특별 수련·경주 유적지 순례를 갖는다. (051)469-0458

♣ 강좌

△청소년 음악·미술=양정청소년회관(관장 범산)은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강좌를 마련한다. 강좌 내용은 플룻, 간소, 서양화, 뎃생, 한국화 등이다. (051)868-0750

△아생화 키우기=동화사 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7일부터 3개월간 야생화 강좌를 실시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 강좌는 들꽃을 기르고 연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강의한다. (053)784-3669

△경주 위덕대 사회교육원=경주 위덕대(총장 손제석) 사회교육원은 불교교리, 영어회화, 컴퓨터 등 3개분야 16주 과정의 강좌를 실시한다. (0561)760-1026

△어린이바둑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3시 어린이 바둑교실을 연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는 무료 및 감면혜택도 준다. (02)852-0525

△무료수지침=삼화불교대학(학장 혜인)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30분 수지침 무료강좌를 개설했다. (02)511-2026

♣ 모집

△생활영어 기초과정=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웅)은 생활영어 기초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 (02)817-8052

△가사지원 자원봉사자=연꽃마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을 방문해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을리치료 자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물리치료를 담당한 자원봉자를 모집한다. (02)852-0525

△목욕서비스 자원봉사자=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여)은 노인들의 목욕서비스를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월 1~2회 동참하고자 원하는 이는 누구나 가능. (051)893-5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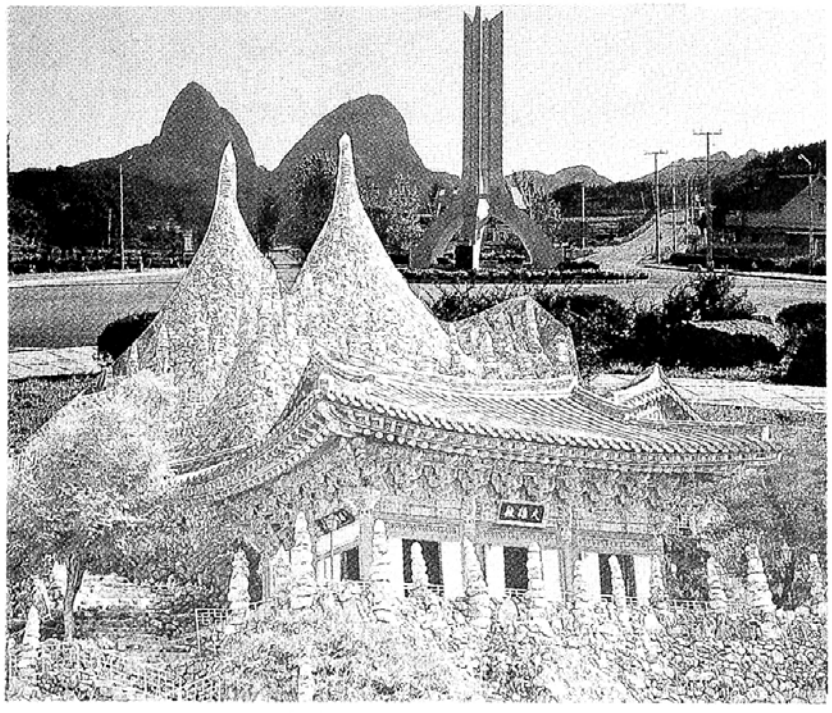
△합창단원=도선사(주지 동광)가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55세이하 여성불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연습. (02)993-3161

♣ 이전

△해인동문회(회장 설정·조계종종회의장)는 3월9일 조계사 경내 교육문화회관 2층 (옛 포교원 자리)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20-8113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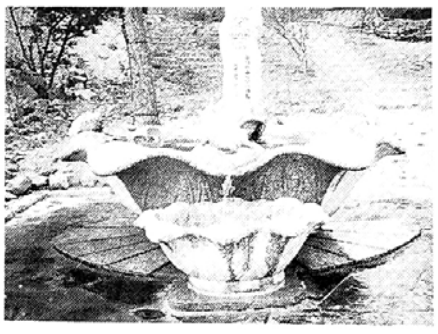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법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문화 소식



송춘회씨 찬불가 5집

불자가수 송춘회법사가 4집에 이어 3년만에 5번째 찬불가 CD와 카셋트테이프를 펴냈다. '산중별곡(김점도 작사 곡)'을 타이틀곡으로 내논 이번 CD와 카셋트테이프에는 '내소사의 깊은 사연(차상우 작사 송운선 작곡)' '하얀연꽃(차상우 작사 송운선 작곡)' 등 신곡 4곡과 등대지기, 클레멘타인 등 널리 알려진 곡에 부처님가르침이 담긴 가사를 새롭게 붙인 노래들도 함께 실었다.

또 법회순서대로 찬불가를 따라할 수 있도록 삼귀의, 예불가, 반야심경, 청법가, 새법우 환영가, 발원문(세민스님 독경), 사홍서원, 산회가 등의 노래를 삽입해 놓았다.

류영수씨 사진전



류영수씨(경희대 사진과 강사)가 6~11일 서울 삼성포토갤러리에서 '깨달음을 찾아서'〈사진〉 주제의 사진전을 갖는다. 이번 사진전은 미국 샌프란시프코 보림사의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신행생활을 담은 28점의 흑백사진이 전시된다.

류씨는 "이 사진기록은 먼 타국에서의 한인 사찰과 교포불자들의 모습이지만 어쩌면 스님을 통하여 나를 보았고 교포불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불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찬불음성공양 경연

대구광역시신도회가 주관하는 제5회 찬불가경연대회가 29일 오후3시 대구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예선은 18일 오후 3시 보현사내 대구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열린다.

독창 중창 합창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가자격은 개인, 가족, 사찰신도회, 합창팀, 신행단체 등. 참가신청 4월 15일까지. (053)253-2886

桐寺址 목탑자리냐 금당자리냐
"정밀조사해야 안다" 관련학자 공통 견해

"하남시 동사지(桐寺址)에서 황룡사 9층목탑보다 더 큰 목탑지 발견."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불교사 내지 건축사를 다시 써야 하는 일대 사건이다. 〈본지 167호 7면 보도〉

황룡사지보다 규모가 크다고 했으니 조성연대도 삼국시대로 올라간다. 통일신라시대로 내려오면서 석탑이 주류를 이루고 목탑의 규모도 훨씬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대 목탑지가 발견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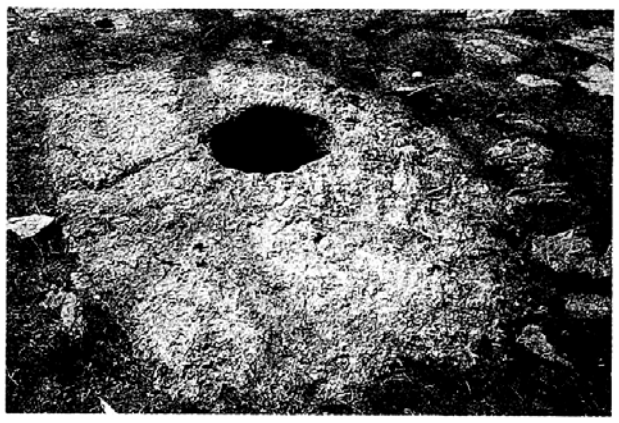
88년 동국대박물관은 현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소재하는 동사지를 발굴조사하고 황룡사 금당지와 거의 맞먹는 유구를 발견했으며 중앙에 불상의 대좌로 보이는 8각 기단부를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목탑지란 주장은 이 지역 향토사학자들과 일부 학자에 의해 꾸준히 제기됐다. 장충식교수(동국대)는 8각 기단부 중앙에 노출돼 있는 돌덩어리가 목탑의 심초석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사리함을 넣어두던 사리공의 형태가 뚜렷하고 심초석 주변에 주춧돌로 보아 황룡사와 같은 기단 구조의 목탑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8각기단부 중앙 돌 목탑의 심초석이다"
- 장충식교수

강찬석 백제문화연구회장은 탑의 중심에 있는 심초석에서 남쪽 끝 주춧돌까지의 거리와 동쪽 끝 주춧돌까지의 거리가 각각 14m이므로 가로세로 28m인 7칸짜리 장방형의 목탑지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황룡사 목탑보다 4m정도가 더 큰 국내 최대규모의 목탑지가 확실하다.

문명대교수(동국대)는 △목탑지의 경우 정방형 아닌 것이 없는데 현재의 유구로는 정면 7칸 28.90m 측면 6칸 20.80m밖에 안되고 △이곳을 목탑지로 비정할 경우 따로 금당지가 있을 만한 곳이 없으며, 5층석탑과 이 자리가 동서 일직선상에 배치되는 점 등에서 오히려 금당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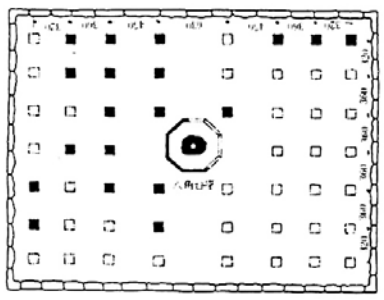


◇목탑의 심초석이라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유구. 중앙에 사리공이 뚜렷히 남아있다.

"정방형 아닌 목탑지는 없다"
- 문명대교수

탑권위자와 불상권위자의 팽팽한 대립 가운데 관련 학자들은 자세한 언급은 피하면서 황룡사에 버금가는 동사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위원들 역시 동사지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규명을 위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현장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8년 동국대박물관이 추정한 금당자리. 정면 7칸 측면 6칸으로 중앙에 논란이 일고있는 유구가 있다.

윤기석 기자

불심시심 〈123〉

모든 생각 초연해

晴日宜春服 (청일의춘복)	맑은 날 봄옷이 마땅해
東風二月天 (동풍이월천)	봄바람 부는 2월의 날씨
潭空人影倒 (담공인영도)	못이 비니 거꾸로 선 사람 그림자
林暖鳥音圓 (임난조음원)	숲 따뜻하니 새 소리도 원만하다
花嫩紅生面 (화눈홍생면)	꽃은 연약하여 얼굴에 이는 붉은 빛
柳垂碧拂肩 (유수벽친견)	버들 드리워 어깨 스치는 푸르름
詠歸山色裏 (영귀산색리)	읊으며 돌아가는 산 빛 속에
意思更超然 (의사갱초연)	모든 생각이 다시 초연해

인악(仁嶽 1746~1796)화상이 지은 '망회정에 노닐며(遊忘懷亭)'라 한 시이다. 화상의 이름은 의첨(義沾)이요, 자가 자의(子宜)요, 인악은 호이다. 8세에 소화를 배우기 시작하여 아무리 깊은 뜻이라도 한 번 들으면 이해하여 향리에서 천재란 칭찬을 들었다.

18세 때 향리의 동료들과 용연사로 공부하러 갔다가, 스님들의 청정한 모습을 보고는 같이 되어 체발하고는 벽봉(碧峰)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벽봉은 큰 그릇임을 알고, 서악(西嶽), 추파(秋波), 농암(聾岩) 등에게서 배우게 하였다. 23세에 다시 벽암으로 돌아와 강단을 맡으니, 서산대사의 8세손이 되고, 상봉(霜峰)화상의 5세손이 되었다.

전편이 봄날의 경치를 시인적 재치로 변화있게 서술하였다. 봄이라는 계절이 어느 계절보다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것이기는 하지만, 봄옷이 주는 상쾌감 또한 여느 계절에 견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춘복(春服)이라는 어휘 자체에서 느끼는 촉감이 이미 감미로움을 더해 준다. 첫구의 이 한 단어가 전편의 봄내음을 싸안는다.

인영의 전도(倒)는 못이 비어서 더 그렇게 보이고, 새소리를 시각화하여 둥글다(圓)한 표현도 봄의 모든 것을 생동화시키는 활유법으로 재미있다. 꽃과 낯(面), 버들과 어깨(肩)의 맞물림도 시인의 소재 선택의 높은 안목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우리나라 현존철불 72구"

최인선교수 논문 발표
북한 개성博 1점 소장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 좌상.

우리나라 철불 중 현재 확인되는 것은 총 72구이며, 중부지방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지역에는 개성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傳적조사지 철불(傳은 구전상 전해진다는 뜻)이 유일한 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인선교수(순천대 사학과)의 97학년도 한국교원대 박사학위 논문 〈한국철불연구〉에서 확인됐다. 철불연구로는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받은 최교수는 "9세기 선종이 유행하면서 비로소 등장하는 철불은 서민 대중들에게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에서 조성됐다"며 "이로 인해 통일신라시대의 철불은 모두 대작(大作)이며 여래형 좌상이라는 도상적 특성과 함께 지방의 선종사찰에 봉안됐다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당시 수도였던 경주에 철불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고 문헌기록에도 그 유례가 없다는 점. 최교수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투박하고 질감이 좋지 못한 철은 하층민들이나 사용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문경 봉암사철불처럼 도적들의 후환을 막기위해 산간벽지에 거대한 철불상을 조성했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9세기 철불의 양식을 분석해 볼 때 830년경 실상사 창건과 함께 조성된 실상사 철불이 우리나라 철불의 효시를 이루며, 통일신라시대의 철불은 대개 현실의 인간상에 가까운 현실주의로 표현된다. 이에 반해 광주철불 傳보원사지철불 등 고려전기에는 통일신라 전성기의 불상을 그대로 모방한 복고풍이 유행하면서도 철이 많이 생산되는 충주, 원주를 중심으로 지방색을 띠는 철불도 함께 조성된다. 〈석〉

"안양 삼성산 일대 고려초 불교문화 산재"

단국대, 지표조사 보고

안양시 삼성산 및 관악산 일원에 산재한 불교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단국대 사학과가 96년 10월부터 98년 2월에 걸쳐 17개월간 조사한 안양지역 불교유적은 삼막사를 비롯 안양사, 염불암, 불성사, 반월암, 망월암, 망해암 등 7개 사찰. 삼막사 3층석탑, 망월암 3층석탑, 망해암 석조여래좌상 등은 고려초 삼성산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활발히 전개됐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 삼막사·불성사·망월암에 봉안된 3구의 불상과 마애부도는 조선시대에까지 불맥이 꾸준히 이어져왔음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마애부도는 다른 지역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돼 안내판을 설치, 이 유적이 스님의 부도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막사 지장보살좌상, 망해암 석불입상 등과 더불어 등곡대석굴(일명 원효굴)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삼막사 인근에 있는 원효굴은 자연미와 인공미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석굴사원으로 그 존재의의가 매우 크다.

그동안 세간에 구전되던 안양사 7층전탑(소실)이 고려 최영장군에 의해 중수됐던 사실도 문헌에서 확인됐다.

加서 29년만에 귀국 박상륭 씨

"불교의 우주관 소설에 담을터"



영화 '유리'의 원작 〈죽음의 한 연구〉의 작가인 소설가 박상륭(58)씨가 69년 캐나다로 훌쩍 이민을 떠났다가 29년만인 최근 귀국했다.

박상륭씨는 한국문학사에서 둘도 없는 특이한 존재다. 장편 〈죽음의 한 연구〉뿐 아니라 소설집 〈열명길〉 〈칠조어론〉으로 우리 문학에서 소위 '구도적 형이상학 소설'과 '우주적 리얼리즘'을 추구한 작가로, 그의 소설을 읽기에는 또다른 구도적 자세를 요한다.

"세계는 몸·말씀·마음의 우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우주에서 마음의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작품에서 인간이 도달해야 할 곳은 마음의 우주라는 메시지를 토해낸다.

"불교를 세속화해 보시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데 그게 어디 나쁩니까. 문을 연다는 것, 그것은 곧 우주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불교에 내려오도록 하지말고 불교가 중생들을 위해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다.

영구귀국한 그가 또 어떤 파격적인 작품을 내놓을지 독자들의 기대가 크다.

한국불교법사 연합회
발 기 인 총 회

한국불교증흥을 위해 불교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인식하여 현장 포교하시는 법사님들을 모시고, 한국불교법사 연합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총회를 갖고저 하오니 법사 여러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1998년 4월 17일 오후 3시
- 장 소 : 동산교육회관(안국동)
- 대 상 : 현장포교하시는 법사
- 문의처 : 02)732-1206

한국불교법사연합회(가칭)

■ 발기인

선진규	박완일	한정섭	이하우	김철회
목정배	정병조	강진기	이중표	이건호
임선교	허성구	김덕수	권지홍	성순경
송춘회	이지행	신근식	김종성	노혜광
곽정진	박상갑	김재일(무순)		

교리강좌 안내

먼저 **대승불교연구원**을 개원하였음을 사부대중에게 보고하고 인사드립니다. 본 연구원은 대승교리를 연구하여 불서를 간행하고 대승보살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중의 요청으로 유식학특강을 비롯한 교리강좌를 아래와같이 개설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 내 ●

1. 강좌시작 : 1998년 4월 16일(목) 오후 6:30
2.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6:30~9:30
3. 강의장소 : 서울 중구 묵정동
   대학문화원 강의실
4. 문의전화 : 02)264-7120
   FAX 02)264-7120
5. 강의교재 :
   유식학계론, 불교학계론(강사 오형근)

1998. 3. 25.

대승불교연구원장
(전동국대불교대학원장)
오 형 근 합장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만든 화제의 책!
알기쉬운 불교미술



값 9,000원/동국불교미술인회 엮음

조계종 '98 신도 교육의 해 권장도서

-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 만든 화재의 책
- ◆불교미술 전반에 걸쳐 도판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

일반인을 위한 불교미술해설서

-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면서도 어려웠던 불교미술,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부처님과 탱화, 그리고 모든 성스러운 불교미술품에대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사찰의 모든 불교미술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미술가 모임으로 전국 각지의 사찰에 많은 작품들을 조성, 봉안해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품전과 주제전,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 전통불교미술발전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원과 불상, 불화의 의미 ·법당과 부처님, 탑 ·석조물, 문루와 그 의미 ·법구, 불교의 상징물, 단청

동국불교미술인회 펴냄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02)738-1117
보급처 불교방송사업국 ☎(02)705-5302

한글대장경 280권 마무리 예산 부족

"역경지원 예산 축소 안된다"

정부 15% 삭감 재검토 해야
조계종 총무원 예비비 보충키로
'한글대장경' 판매저조… 불자 관심 절실



◇역경사업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서는 정부와 종단 각 사찰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사진은 지금까지 발간된 한글대장경.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 대장경 역경사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정부와 조계종이 재정지원규모를 축소하고 후원회마저도 지원계획이 없어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64년 시작돼 35년간 2백50여권의 한글대장경을 펴내고 마지막 남은 30여권을 마무리함으로써 대작불사를 회향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

역경은 조계종단 3대사업의 하나로 불교계뿐 아니라 우리문화유산 재발굴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돼 왔다. 최근 5년간 예산지원은 연간 정부 4억, 조계종단 1억원씩을 비롯 동국대와 후원회 등이 분담해 왔으나 역경원 한 해 소요예산 12~13억원에는 크게 못미쳤었다.

그러나 문화부는 정부 각 부처 예산이 15% 삭감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6천만원 줄어든 3억4천만원을 올해 지원예산으로 편성, 국회 예산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조계종은 17일 열린 임시종회에서 절반을 삭감한 5천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총무원은 역경이 국가적 사업임을 고려해 예비비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5년간 24억여원을 지원해왔던 역경진흥회도 올해는 지원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예년에 비해 최소 2억여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난해까지 1년 평균 9억여원이 들었던 제작비가 종이값과 인쇄비 등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예산부족은 예상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상황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70년대까지 지원되다가 80년대 들어 국고지원 중단사태로 오랫동안 역경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던 전례가 있는데다 또다시 역경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업예산의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해 온 대장경 판매도 IMF영향으로 크게 줄어, 올해 1~3월간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 사찰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각 사찰과 불자들이 한글대장경 단 한 권씩만 구입하더라도 상황은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 또 스님들이 관심을 높인다면 한글대장경 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경원 최철환 편집부장은 "올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지만 어떻게하든 회향할 계획"이라면서 "역경불사는 단순히 불교계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문화사업이므로 종단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열린마음 열린불교 | 원혜스님 지음

"모든일의 출발은 열린마음입니다"



원혜스님의 두 번째 수상집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진리를 체득한 수도자의 지혜가 한올 한올 엮어진 책. 오늘과 미래의 불교를 넘나들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되돌아보고 대승보살정신이 삶을 이끄는 힘임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변화는 작은 겨자씨 속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에 불과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인식해 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임을 강조한다. 또 현대사회에서의 수행의 기능과 전법·복지·사회·문화적 기능이 사찰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맺어져야 하는가를 통해 미래불교의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8천원〉

화제의 책

마음자리마다 별빛이 | 원공스님 지음

'참나'를 찾아야 하는 이유 무엇인가



인간의 강함은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지혜에 있으며, 그 지혜를 조금씩 살려 낸다면 자신이나 세상에 지지 않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는가. 원공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은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 찾으라고 권한다. 붓다의 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삶의 보람과 인생의 충실감이 얻어지며, 늘 최고의 오늘을 살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역경과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영원하며, 자기 속의 또 다른 자기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반야심경을 통해 투시하고 있다. 〈토방 8천5백원〉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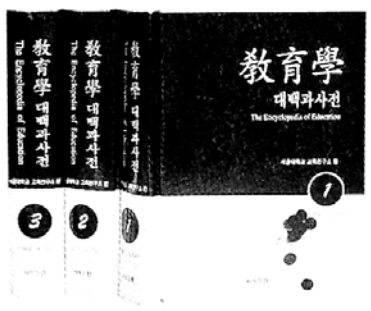
한국의 전통문화 | 임영정 지음

불교와 한국문화의 독창성 조명



조각 건축 미술 등 우리 문화의 많은 부분이 불교적 특색을 띠고 있다. 특히 양식적인 면에서는 분명 우리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후 우리만의 것으로 정착됐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불교문화를 포함한 우리 문화가 어떤 과정과 굴곡을 거쳐 발전해 왔는가를 조명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개념에서부터 불교의 수용과 발전, 불교문화의 일본전파 등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함께 이차돈, 일연, 혜초스님 등을 전통사회 발전의 공헌자로 다루고 있다. 이밖에 도선의 풍수지리설, 민간신앙, 세시풍속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아름다운세상 9천8백원〉



'불교의 교육사상' 등 5백여 항목

「교육학 대백과사전」 나왔다

종교를 포함한 교육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육학 대백과사전〉(하우동설 刊)이 나왔다. 서울대 교육연구소(소장 윤정일)가 펴낸 〈교육학 대백과사전〉은 한국 동서양 교육사를 비롯 교육철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재정학 등 31개의 교육영역을 분류, 각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요개념 및 주제 5백여개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불교의 교육사상'과 '원효의 교육사상'이 소개돼 있으며, 동국대 박선영교수와 이화여대 정희숙교수가 각각 집필했다.

이외에도 '교육과 종교' '종교교육과 도덕교육' 등 종교관련 분야도 다루고 있어 교계를 비롯한 각 단체에서 교육정보자료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6배판 크기에 총3권 3천1백여쪽의 분량으로 전국 1백여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5백여명의 연구인력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가나다순과 분야별로 표제어 목록이 마련돼 있어 찾고자 하는 주제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정가 22만원. 하우동설 출판사 (02)997-9728

조계종 포교원 '불교교리' 펴내



사찰에서 쉽게 불자들을 교육할 수 있고, 일반인도 불교교리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교재 〈불교교리〉가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이 펴낸 이 책은 입문교육을 마친 불자들이 불교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발간된 교리교육교재로 '부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부처님 법을 따르면 어떤 과보가 있는지' '바른 신행이란 무엇인지' 등 신행의 원리를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교의 종교적 이해와 실천·불교의 근본교리가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

'작은책과 떠나는 불교여행' 시리즈 9·10·11권

'선사열전' '불교의 역사' '촉도장정'

크지 않아서 들고 다니기 좋고 두껍지 않아 부담없이 골라 읽을 수 있는 책. 그러나 불법의 향기가 가득한 책. 민족사에서 〈작은 책과 떠나는 불교여행〉시리즈 9·10·11번째인 〈선사열전〉 〈불교의 역사〉 〈촉도장정〉 세 권이 나왔다. 정병조교수(동국대 부총장)가 쓴 〈선사열전〉은 달마 혜가 승찬 도신 등 42명 선사들의 삶의 자취와 일화를 통해 초탈적 여유와 향기를 담아내고 있다.

이봉춘교수(동국대 불교학)의 〈불교의 역사〉는 인도 중국 한국불교의 역사를 간략하면서도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 세 나라 불교의 발전과 변천을 짚으면서 불교가 교리나 신앙세계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삶의 함축임을 느끼게 한다.

〈촉도장정〉은 조흥윤교수(한양대 문화인류학)가 그의 스승 민영규박사와 함께 한국과 중국선종사의 맥을 짚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천성을 몇년에 걸쳐 탐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촉은 중국의 사천성을 달리 표현한 말이다. 선종사 전개현장과 신라불교의 정립 및 삼계교(三階敎)에 대한 내용을 축으로 조교수가 탐사에서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새로나온 책



▲티벳 사자의 서=94년 나왔던 〈티벳 사자의 서〉를 현대 감각에 맞게 재구성해 새로 선보였다. 불교가 말하는 삶의 지혜와 사유의 정수를 통해 죽음의 길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내적인 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한다. 죽음에 관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면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공사 1만5천원〉

▲개벽시대를 여는 사람들=저자인 이화여대 최준식교수는 우리의 전통속에 살아 숨쉬는 종교와 문화를 무시한 채 외래문화를 맹종하고서는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책에 최제우, 최시형 등 겨레의 스승 5인의 실천적인 가르침을 담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주류성 7천5백원〉

▲남산이래 큰 동네=서울 남산에서 청계천에 이르는 중구 일대의 역사, 지리, 민속 등을 뽑아 엮은 책. 숭례문 등 보존해야 할 유산과 광교 등 지금은 없는 역사유적을 사진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또 이 곳의 흐뭇한 미담, 아름다운 민속, 애환이 깃든 곳도 함께 곁들여져 흥미를 더한다. 〈수문출판사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2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5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6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연구회	반출판사
7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8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9	불교사상의 이해	동국대불교대학원	동국대불교문화대학
10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구입문의:(02)737-0695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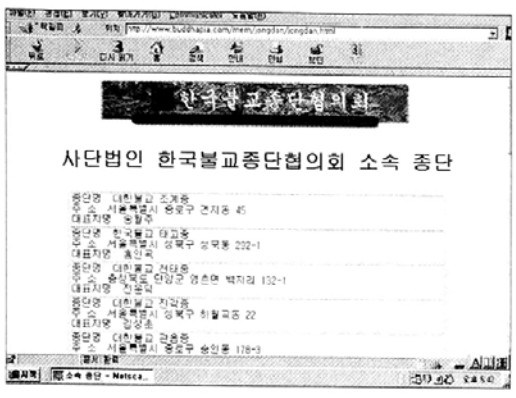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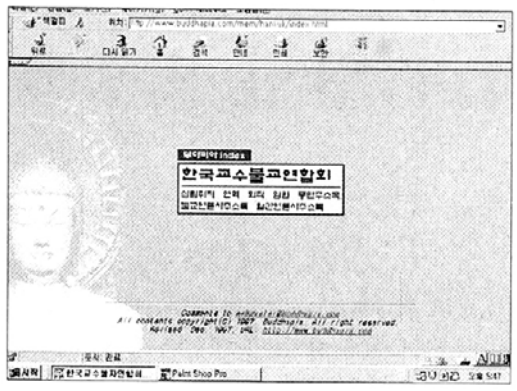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3,5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인터넷 홈페이지 포교시대

현대불교 전략 정보팀 사찰·단체 홈페이지 최저가 제작… 종단협등 17곳 '서비스'

정보화시대의 총아로 불리는 인터넷에 쏟는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데 힘입어 인터넷의 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를 불교 포교의 공동체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는 집이 필요하듯 인터넷 불교 가상공간에서 수행·포교·법회 등 신행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선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한다.

현대불교신문사 전략정보실(실장 조원회)이 지난 3년간 인터넷에 개설-운영해온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는 한국불교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온 보고(寶庫)로써, 이곳을 찾는 국내·외 불자네티즌의 수행을 돕고 한국불교를 알려 왔다. 한국불교 관련 정보와 이 정보를 찾는 네티즌들이 모이는 가상공간의 '인터넷 도량'인 셈이다.

또 전자우편(e-mail) 등 시공을 초월한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한 부다피아는 가상공간에서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티벳망명정부·삼발라출판사·EBTI 등 주요 단체들과 상호교류의 폭을 넓히는 장을 마련했다.

이와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의 역할은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찰과 단체들이 국내·외 불교계에서 자신을 알리고 교류의 장을 새롭게 열며 '게시판' '전자우편' '음성' '동영상'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해 신도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기울일 수 있게 한다.

조계종, 동국대학교, 승가대학, 고려대장경연구소, 불교운동본부 등 불교계 주요 단체들이 연달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현상도 가상공간의 신행활동에서 홈페이지는 필수 요건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95년 10월 부다피아 정보센터를 개설한 현대불교신문사는 △부다피아를 제작·운영(96년) △서울시청 BBS(전자게시판) 개설(95년) △한국전력연구원 홈페이지 제작(96년) △불자를 위한 인터넷 교육(97년) 등의 통신사업을 꾸준히 벌여왔다. 나아가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토대로 사찰과 불교계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제작 하고있다. 다른 인터넷 업체보다 60%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된 홈페이지를 제작, 현대불교신문사 D/B 부다피아와 초고속 통신망인 채널아이(Channel i)의 '부다피아 불교정보'에 각각 등재된다.

오종욱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제작 대행 비용(1페이지 기준)

구분	내용	비용
그래픽 디자인	필름 및 사진 스캐닝	3,000원
	컴퓨터 그래픽	9,000원
홈페이지 문서	HTML 코딩	8,000원
컴퓨터 시스템 구성 및 아이콘 배치 구성	홈페이지 구성	8,000원
합계		28,000원

※영상과 음성 스프트웨어 기술이 이용되는 홈페이지는 별도 협의



◇ '소쩍새마을'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는 본사 전략정보팀.

부다피아 제작 주요단체 홈페이지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맑고 향기롭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한마음선원 ▲불광사 ▲대한불교한누리 포교회 ▲소쩍새마을 ▲삼화불교대학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혜초여행사 ▲민족사 ▲시공사 ▲불광출판사 ▲여시아문 ▲인터넷 불교정보 바바니(Bhavani) ▲부다피아 (총 17개)

뜨는 정보 인터넷도량 부다피아 '법문마당'

"한국고승 1백여명의 설법 듣는다"

인터넷 가상공간 부다피아에서는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현대 고승 1백여명의 생생한 육성법문을 만날 수 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채널아이 부다피아불교정보에서 제공하는 △법문마당이 화제의 '인터넷 법석'이다.

이 서비스는 현대불교신문이 지난 3년간 현대 고승들의 수행과 보살행의 정수를 엮어 재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지상법석'과 '수행한담' 등을 그대로를 제공한 것이다.

사진·텍스트·깨끗한 그래픽 등이 마련된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국내 최초 인터넷 법석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현대 고승들의 사진 등 각종 자료들을 검색-열람-다운로드(가져오기) 할 수 있어 인터넷 상에서 불자네티즌들이 무궁무진하게 D/B로도 이용 가능하다.

'채널아이' LG 설립 인터넷 상용통신망

LG그룹이 15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7월10일 설립한 채널아이는 3월16일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인터넷 전용 초고속 멀티미디어 상용통신망이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PC통신망인 채널아이는 안정적이고 빠른 접속과 인터넷 항해를 위한 14개 채널 메뉴를 개설해 놓고 △뉴스 △재테크 △비즈니스 정보 △온라인 네크워크 △교육 △문화 △예술 등을 제공하는 한 수 위의 네트워크 서비스망이다.

이 서비스는 채널아이 사이트(http://www.channeli.net)를 방문해 가입한 후 채널아이의 전용 브라우저인 '채널 뷰(Channel View)'로 이용해야 한다



◇채널아이 불교정보

'채널 뷰'는 국내에서 널리 이용되는 외국산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익스플로러보다도 사용하기 편리하며 채널아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져오기)할 수 있다.

현대불교신문 검색-열람서비스 '가동'

인터넷에서 현대불교신문과 여시아문 서적 등을 검색-열람-다운로드(가져오기)할 수 있는 '부다피아 신문검색' 서비스가 시작됐다.

현대불교신문사 전략정보팀이 6개월간 자체 개발한 검색엔진(Seon)과 부다피아 D/B를 연결한 이 서비스에서는 지금까지 현대불교신문에 수록됐던 기사들과 연재물들을 검색-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불자네티즌이 빠르고 손쉽게 신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큰스님법어 △길을 묻는 이에게(상담) △이렇게 들었다(경전말씀) △주부신행담 △시방세계 △과학과 불교 △생활 속의 불교 △신문검색 △다시 푸는 경서 △불심시심 △신간소식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 각 항목마다 검색엔진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 이 서비스는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에 개설된 '신문검색' 서비스를 이용, 찾고자 하는 주제의 키워드를 입력해 사용한다.

D/B 부다피아 수록정보

한국불교역사-종단소개 등 불교관련 서비스 '다채'

현대불교신문사 D/B인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는 △한국불교역사 △종단소개 △사찰 △학술 △문화 △해안사 보호운동 등 총 14종의 서비스를 개설하고 불자네티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불교역사에는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372~1891년까지의 고승 1백99명의 행장을 기록한 '동사열전'과 나옹화상 혜근 등 40명의 스님을 소개하는 '고승열전' 등이 수록돼 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한국불교 4대종단의 창종·종조·교세·역대종정·종헌·종법 등을 등재한 △종단소개와 종계종 25교구본사의 △전통사찰 등도 볼만한 정보이다.

전통음식 연구가 김연식씨가 소개하는 △한국사찰음식과 △원성스님 동승전, 98년도 전국불교교양대학 모집 요강을 살필 수 있는 △불교교양대학, 국내·외 사찰과 불교단체를 찾아 인터넷 여행을 떠나는 △불교홈페이지 △사이버기행 등이 불교 문화·학술 관련 서비스.

이외에도 △해인사 보호운동 △주간교계소식 △98달력 △링크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제공된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지난 3년간 축적해온 이 정보들은 LG 상용통신망 채널아이 '부다피아 불교정보'에서 △참여마당 △불교정보마당 △법문마당 △사이트순례 △공지사항 △주간운세 등 총12종의 서비스를 통해 독점 제공된다.

고침 제166호 9면 일승종 법운사 웹사이트 주소가 Cybertemple.org의 오기였으므로 바로 잡습니다.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봉축현수막**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대한불교 조계종
조 계 사

▲ 불자의집 교패



▲ 차량용 스티카



▲ 어 깨 띠



〈일반〉 〈고급〉
▲ 리 본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이번 봉축행사에 각 사암에서는 봉축위원회 지정 현수막을 사용하여서 불교계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공식 지정업체로 선정된
감로기획에서는
국민적 축제인 불기254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현수막을
질기고 품질이 우수한 최고급 천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덕 큰스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가 격 표 ◈

품 명	규 격	가 격
현 수 막	90cm×6m	40,000원
	90cm×8m	50,000원
	90cm×10m	60,000원
불자의집 교패	2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1,000원
차량용 스티카		300원
어 깨 띠	1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500원
리 본 일 반	5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20원
리 본 고 급		330원
리 본 귀빈용		1,000원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FAX:(02)738-8682

불기 2542년
奉 부처님 오신날 祝

DX-707 스페셜 마이크
25% 할인판매 + 무료보시품!

- **기 간** : 98년 4월 20일까지
- **할인판매 수량** : 선착순 50분 한정
- **주문방법** : 입금 확인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고감도
유선핀 마이크
가격 : 50,000원



DX-707 스페셜 마이크는
전국 7000여 사찰에서 사용중인 법당 스님전용 마이크로, 염불, 설법시 자체에서 소리 조절이 되며, 염불, 목탁소리가 같은 크기로 들어갑니다.

법당 음향설비

- (상담역)음향 연구가
  무선설비기사: 김 문 화
  아마추어 무선사 HL 1ACU

- 송금구좌
  국민은행 : 210-01-0273-863
  우 체 국 : 013441-0000397
  (예 금 주 : 김 문 화)

- 법당전용 시스템 엠프
- 방생법회, 휴대엠프
- 고성능 무선 핀-마이크

DX-707
스페셜 마이크
가격: ~~200,000~~원

기념 할인가: 150,000원

유코전자
본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02) 697-9976, 605-3235
FAX (02) 695-9676

한형조

무문관 탐방

46

용담의 촛불 ②

숭신은 그 후 호남의 용담에 자리잡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에게 어느날 덕산이라는 거만한 학승이 찾아왔다.

덕산은 지금의 사천지방인 촉(蜀)땅 사람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계율을 공부하다 철학적 측면에 깊이 침잠했다. 특히 〈금강경〉에 밝아 주변에서는 그를 주금강(周金剛)이라고 불렀다. 당시 강서와 호남에서는 육조 이래의 선이 활발히 개화하고 있었는데, 덕산은 견성성불이니 즉심즉불이니 하는 선의 표어에 불같이 화를 냈다. "아니 이런 무지한 것들이 있나. 경에 의하면 천겁에 걸쳐 위의(威儀)를 배우고, 만겁에 걸쳐 세행(細行)을 닦아야 성불할지 말지라고 했는데… 범부의 마음이 곧 부처라니 이런 망발이 어디 있담. 내 내려가서 혼쭐을 내주어야겠다."

그는 평생의 득의(得意)인 〈금강경〉주석을 등에 지고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며칠이 지나 호남의 예주라는 곳에 이르렀다. 해가 중천이어서 어디 점심이나 해야겠다고 주위를 둘러 보니 한 노파가 떡이며 만두를 팔고 있었다. 노파는 그런데 물건을 팔 생각은 않고 덕산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등에 지고 있는게 무엇이오.?" 덕산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금강반야경〉의 연구서요." "그래요. 그럼 어디 물어봅시다. 제대로 대답하면 떡과 만두를 공짜로 드리겠소. 대답이 적절치 못하면 안됐지만 어디 딴데 가서 허기를 달래시오." 덕산은 재밌다고 여겨 그러마고 응낙했다.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고 했는데 스님은 대체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 하시오." 이 말에 덕산의 말문이 터억 막혔다.


그림 · 이준석

점심(點心)이란 이름 그대로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말이다. 간단한 식사를 그리 말했다. 노파는 배고픔을 느끼고 그것을 달래는 마음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다. 〈금강경〉의 인용은 의미심장하다. 과거의 마음은 물같이 흘러갔다. 아프고 저리던 혹은 몸서리치던 그때, 기쁨에 겨워 혹은 근심에 싸여, 혹은 지겹고 권태롭던 그때의 마음도 물같이 흘러갔다. 다만 그 흔적과 상처만이 기억으로 남아 아득한 창고에서 인연따라 떠오른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누가 미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대와 예견 혹은 공포의 얼굴로 현재를 간섭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것을 미래의 마음이라 할 수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 여기 현재의 마음이다. 문제는 이 현재의 마음 또한 파지할 수 없다는데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를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판타 레이). 한 시도 고정적인 것은 없다. 지금의 마음을 파지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기억으로 남은, 혹은 대상화된 마음은 살아있는 현재의 마음이 아니다. 새로운 물이 현재의 자리를 잠시 차지했다가 다시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염염상속(念念相續)밖에 없어 보인다.

불교는 말한다. 불변하는 것, 영속하는 것, 진정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다섯 더미(五蘊)가 가상으로 얽어 놓은 자아라는 환각(maya), 그리고 그 자아가 형성해 놓은 세계라는 허구에 살고 있다. 플라톤의 비유를 들면 범부의 삶은 동굴 속에 어른거리는 그림자일 뿐이다. 노파는 묻는다. "그런 비실재의 환각 너머에 진정한 실재는 어디 있는가. 네가 연구한 〈금강경〉은 그 세계(空)의 비밀을 알려 주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진정 체득하고 있느냐."

배움의 세계는 얼마나 허망한가. 실재와 마주하지 않고 관념과 논리로 얽어놓은 세계는 얼마나 허물어지기 쉽고 취약한가. 학자들은 자신의 머리로 구축한 세계가 얻어들은 잡동사니이며, 그것은 실재로부터 소외된 허구임을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그 간극이 비수처럼 자신을 찌르는 때가 온다. 삶의 생생한 현실에 부닥치거나 실존적 한계상황에 다다를 때 그는 문득 새롭고 낯선 세계와 만난다. 선사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학자들의 소외, 그 착각을 깨우치고 이원화의 각질을 깨부수려 한다. 공안 혹은 화두가 그 장치이다. 때로는 논리의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거나, 삶의 고통과 환난 속에 내던지며, 때로는 신체의 직접적 감각의 실재를 화들짝 체감하게도 한다.

한 브라만학자에게 스승이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 학자는 책에서 읽은 대로 대답했다. "그것은 최고의 실재, 세계를 형성하고 전변시키고 있는 영원의 브라만입니다." 스승은 그의 머리를 잡아다가 물통 속에 처박았다. 캑캑거리며 발버둥치던 그를 꺼내 놓고 다시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 "예, 그것은 숨쉴 공기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허식과 군살을 다 떨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선사들은 숨쉴 공기조차 아직 삶의 근본 속살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조차 떨어내고 마지막의 '그것' 조차 방하(放下)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그곳에 선의 비밀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선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러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오"

떡파는 노파 질문에 덕산스님 말문막혀

바른생각 열린 마음에서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5

정사유 ①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흔히 삶은 본래부터 아름다움, 비참함, 외로움, 슬픔 등 숱한 감정들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행복은 우리의 주변에서 시작되는가?

부처님께서는 삶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가치를 볼 수 있다면 행복이란 의부 환경에서 오기 보다는 마음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어떤 곤경에 처해 있더라도 마음을 열고 깨끗이 하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사유(正思惟)는 이같은 마음의 도리에서 시작한다. 〈법구경〉은 이렇게 시작한다.

>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 마음이 주(主)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만든다.
> 불순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 반드시 문제가 생기리라,
> 수레를 끄는 황소 뒤에 바퀴가 따라오듯이.

이 구절에는 정사유의 뜻이 담겨져 있다. 바로 열림과 수용이 그것이다.

우리는 명상을 시작할 때, 명상이 어떤 길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다. 사람들은 "마음이 평화롭고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명상을 한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리기 위해", "즐거운 마음을 갖기 위해" 등 특별한 이유를 달고 명상수행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 "명상의 결과 기대말고
> 현재의 자기를 발견하라
> 수행의 가치를 알게된다"

이들에게 요행(僥倖)이 생긴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요행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 명상에서 요행을 찾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명상은 이제 단순히 숨고르는 일이 되고, 권태와 실망이 뒤따라 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명상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한다.

"진실을 말하라!", "사유(思惟)여! 계속해서 일어나지 말라" 등을 읊조리며 명상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자.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만한 도움이 되겠는가? 아주 조금일 뿐이다.

방송에서 빠질 수 없는 광고와 마찬가지다. 어떤 방송을 한창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을 때 광고가 끼어들면, "광고없이 방송했으면"하고 짜증내기 쉽다. 그래 봐야 광고는 계속된다.

열린 마음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길…" 등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자신의 가치를 보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은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일이다. "열심히 정진했다면 생각들이 맑아지고, 고귀한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세밀히 마음의 소리를 듣고 타인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을 꼼꼼히 새겨야 한다. 욕망 · 행복 등 마음의 움직임 하나 하나를 놓치지 말고, 그런 감정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때 마음의 움직임을 충족시키는 한낱 술(術)보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배우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만 마음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무를 키울 때, 먼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쫓아주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나무는 저절로 자라난다. 하지만 나무가 얼만큼 빨리 자라줄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이같은 명상수행에서 고귀한 정신적 부(富)와 소중한 가치들을 배울 수 있다.

명상수행의 시작 단계에서는 참을성과 꾸준함이 필요하지만 얼마 지나면 신심과 확신이 생긴다. 그리되면 우리는 수행의 가치를 알게되고 수행이 하고 싶어진다. 즉 사람들과 어울려 떠들기보다는 조용한 곳에 혼자 있고 싶어지면서 정진과 자기 성찰을 위해 따로 시간을 가지고 싶어한다.

기본에서부터 한걸음 한걸음씩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리면서 수행해야 한다.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번역 = 오증욱 기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4

불교와 수학

49

일즉다 다즉일

김 용 운

세포 하나가 인간의 생명 좌우하듯 개인의 '연기고리' 인류미래에 영향

지난 호에는 생로병사의 전과정에서 저마다의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 여지가 있음을 말했다.

생물학에서는 '개체발생(個體發生)은 계통발생(系統發生)을 되풀이한다'는 명제가 있다. 처음의 생명의 씨가 원시의 바다에 발생한 이래 작은 세포에서 올챙이와 같은 물고기,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하였으며, 그것은 마치 태아가 어머니 자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 가는 과정과도 같다. 전인류의 진화의 역사를 태아는 10개월이라는 밀도 짙은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생명체이며 이들은 이 순간에도 생로병사를 되풀이하면서 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한다. 세포와 인간, 인간과 인류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들 사이의 차원도 다르다. 그러나 자신이 의식하건 말건 낱낱이의 인간은 인류의 진화 발전에 나름대로의 책임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다. 갓난아이의 세포수는 몸무게 1kg당 약 1조(兆)개, 3kg의 아이라면 3조개의 세포, 체중 50kg의 사람이면 50조의 세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낱낱이의 세포는 모두 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사람 세포의 핵에 포함되는 유전자의 기본 정보양은 약 30억의 화학문자로 쓰여져 있다. 이들은 인간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은 채 생로병사를 되풀이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세포가 병들게 될 때 인간은 중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행동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절망의 위기에 몰아넣기도 한다. 낱낱이의 인간은 전인류의 생존 양식에 엄청난 책임을 지니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 세포 하나가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고, 한 개인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一卽多, 多卽一', 즉 '부분이 전체와 같고, 전체가 부분과 같다'는 불교 철학의 국면에서도 유효하다.

불교 철학의 무게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저마다 작은 생명체가 고유의 사명과 의미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똑같이 생긴 인간이 둘도 없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유전공학의 발달로 고등 동물의 클론화가 성공해서 복제 양 돌리를 탄생시켰다. 이 기술은 인간의 신체 어느 부분의 세포로부터도 같은 유전자를 뽑아 낼 수 있으며, 따라서 같은 유전자로 된 복제 인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은 그 실현이 종교적,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유보 상태에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복제 인간의 탄생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에 관련된 중대 관심사는 '같은 세포로 복제된 수많은 인간은 모두 완전히 같을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복제 인간일지라도 절대 같은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인도 밀림에서 발견된 두 명의 늑대 소녀가 있었다. 8살 3살 정도로 짐작되는 마아니와 카마로 이름지어진 이들은 기구한 운명으로 유아 때부터 늑대의 굴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생김새는 분명히 인간인데도 이들의 행동은 완전히 늑대와 같아서 말도 못하고, 일어서서 걷지 않고 늑대처럼 기어다니며,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 음식을 핥아 먹었다. 이 두 소녀는 끝내 인간 사회로 복귀할 수가 없었다. 늑대 사회에서 살면 인간도 늑대처럼 된다는 실례이다.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환경적 요소를 불교에서는 연(緣)이라고 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소는 '나'의 됨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기의 고리가 인간을 결정한다. 최근의 카오스 이론에서는 단 3개 정도의 요인으로 모델화한 일기예보조차도 그 변화과정을 정확히 추적할 수 없음을 밝혀내고 있다.

하나의 현상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 가운데 하찮은 것으로만 보이는 것도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새로이 바뀌어진 환경이 또 한 번 그 인간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 녹수청산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성어린 손길에서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9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IMF시대…교계 무료급식소 500여곳 운영

'밥보시'로 情나누는 사회



◇장충단공원에서 소일하던 노인들이 동국대 학생식당에서 불교신행연구원이 제공하는 무료점심을 들고 있다.

"걸식아닌 부처님의 공양 받는 것"
노인들뿐 아니라 중년층도 줄 서
이용자 느는데 보조금등 예산 동결



◇장충단공원 입구에서 노인들이 불교신행연구원이 제공하는 식권과 떡·김밥을 받고 있다.

3월23일 오후 12시10분 서울 남산 자락의 장충단공원 입구. 1백여명의 노인들이 줄지어 서있다. 그중엔 40~50대의 중년층도 적지 않다. 한 낮 텅빈 공원 운동장 주변에 노인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줄을 지어 선 까닭은 뭘까.

다름아닌 1시에 시작되는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의 무료점심 공양을 기다리는 행렬. 이미 1시간 전부터 하나 둘 씩 모여 식권 또는 떡·김밥과 차를 받기 위해 모이기 시작한다. 자칫 늦게 줄을 서면 김밥도 받아 들기 힘들다.

장충단공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16일부터. 불교신행연구원이 동국대 생활협동조합의 도움으로 무료급식을 시작한 날이다. 이제는 소문을 듣고 다른 동네에서 전철·버스를 타고 오거나 걸어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매주 목요일 장충교회에서 급식하는 날(목요일, 급식인원 3백명)을 빼고는 불교신행연구원이 월~금요일 오후 1시에 배식을 하고 있다. 아직은 자금이 부족해 50명에게만 식권을 배부하고 50명에게는 떡·김밥 등을 나눠준다. 호응이 좋아 조만간 2백명으로 대상인원을 늘릴 예정.

김현준원장은 "지난 몇년간 월간 〈법 공양〉을 발행하며 '법 보시(法布施)'에 힘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밥 보시'가 더욱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무료급식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3월25일 오전 11시 서울 탑골공원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연출된다. 원각사에서 노인들을 위해 무료 국수공양을 실시한 것. 국수를 세번이나 삶아 나눠준 인원은 모두 7백여명. 주지 보리스님은 국수공양 내내 목탁을 치며 〈천수경〉 〈경허스님 참선곡〉을 독송했다.

기자가 사진을 찍으려 하자 한 노인이 "얻어먹는 것도 부끄러운데 왜 사진을 찍느냐"고 소리쳤다. 이에 보리스님은 "이 점심공양은 얻어먹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에게 베푸는 공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각사는 매주 수·일요일 원각사지 마당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IMF사태 이후 실직사태로 가장이 경제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무료급식소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과거에는 줄을 서는 사람이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이었지만, 지금은 중간중간 건장한 중년 남성들도 서 있다. 심지어는 손자·손녀의 손을 잡고 차례를 기다리는 노인들도 있다.

95년부터 등산객을 위해 무료 점심공양을 실시해 온 관악산 연주암의 경우 몇달간 내방객이 폭증하자 3개월의 예고기간을 거쳐 1천원의 보시금을 받고 있다. 실직자로 추정되는 등산객이 두·세배로 늘어 평일 5백여명, 휴일 1천~2천명이 먹을 부식비와 연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 주지 자승스님은 "보시금을 모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무료급식현황에 따르면 경로당(이용노인중 34%가 결식), 무료급식소를 포함한 전국의 급식소는 225개소. 급식인원은 2만2천3백여명에 달한다. 이중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61개소이며 7천8백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타 사회복지관이 103개소, 봉사단체가 48개소, 개인이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불교계는 사회복지관 경로식당과 사설 무료급식소 사찰 등을 포함 5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 〈표 참조〉

삼계동과 미아6동의 '자비의 집', 연꽃마을의 송파·마포·인천동구경로식당,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관음의 집' 등 무료급식소와 지역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등 교계 무료 급식장의 경우 예년보다 30~40% 증가한 노인들이 무료 점심공양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

그러나 무료급식 이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자체 보조금등 예산은 동결된 상태여서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복지관들은 급식비의 60~70%(연 1천~2천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예산을 보조받고 있으나, 지방 복지관 및 사설 무료급식소는 미미한 지자체 지원금과 후원금 등으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경로연금 항목의 정부예산이 최근 추경에서 5백59억원이나 삭감되는 등 노인·장애인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저소득계층의 생활고가 극심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차원의 긴축예산이 불가피 해짐에 따라 종교·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교계 무료급식소 관계자들은 "사찰은 각종 불사를 유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에게 따뜻한 점심공양 한 끼라도 베풀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각사 주지 보리스님이 탑골공원 무료 점심공양 내내 독경을 하고 있다.

글=김재경 사진=고영배 기자

◇교계 무료급식단체 현황 (무순·사찰급식소 제외)

단체 및 시설	점심공양 횟수	급식인원	연락처
정불련 미아자비의집	월~금요일	130명	(02)945-4200
정불련 상계자비의집	월~금요일	130명	(02)936-8533
연꽃마을 송파경로식당	월~토요일	130명	(02)203-3677
연꽃마을 마포경로식당	월~금요일	250명	(02)365-3678
연꽃마을 인천동구경로식당	월~금요일	300명	(032)765-3677
연꽃마을 수원경로식당	월~금요일	160명	(0331)45-3676
원각사	수·일요일	600명	(02)741-8822
대구불교사회복지회	토요일	600명	(053)476-6631
불교사회교육원	화·목요일	120명	(0561)43-1106
자비공양의집	월~금요일	160명	(0551)85-2181
부산 진여원	토요일	210명	(051)337-1080
인천 파안의집	월~금요일	80명	(032)865-0108
평택 수양정사	일요일	300명	(0333)53-8077
길동 관음의집	월~금요일	80명	(02)483-5061
불교신행연구원	월·화·수·금	100명	(02)582-6612
대구 자비의집	월~금요일	200명	(053)255-3248
조계사 청년회	2·4·5번째 일요일	500명	(02)735-3724
대각사 청년회	넷째 일요일	300명	(051)245-8781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월~금요일	100명	(0391)653-6375
개금사회복지관	월~금요일	70명	(051)893-5634
광환사회복지관	월~금요일	100명	(051)363-2063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월~금요일	130명	(02)852-0525
금강사회복지관	둘·넷째 수요일	70명	(0416)856-6110
길음종합사회복지관	토요일	90명	(02)985-0161
냉림사회복지관	월·수·금요일	75명	(0582)32-5677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월~금요일	100명	(051)365-0471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월~금요일	130명	(0343)93-3677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월~토요일	150명	(0371)782-8131
모전사회복지관	월·수·금요일	90명	(0581)355-0106
몽운대종합사회복지관	월~금요일	170명	(051)264-9033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월~금요일	100명	(0662)652-4242
백천사회복지관	월~금요일	50명	(053)811-1347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월~금요일	100명	(042)633-1141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월~금요일	80명	(02)817-8052
삼전종합사회복지관	화요일	30명	(02)421-6077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월~금요일	120명	(0392)31-8761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월~토요일	80명	(062)941-8248
옥수종합사회복지관	화요일	150명	(02)282-1100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월~토요일	85명	(062)266-3853
자양사회복지관	월~금요일	100명	(02)458-1664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월·수요일	150명	(0551)31-8017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월~수요일	30명	(02)806-1375
하산사회복지관	월~토요일	100명	(0562)48-6165

인터뷰

「자비의집」 자원봉사자 엄광애 씨



"젊은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요"

"활동력 있는 젊은 엄마들의 자원봉사와 후원금이 더욱 필요해요."

93년말 개설된 교계 최초의 무료급식소인 서울 미아6동 '자비의 집' 최연소 자원봉사자인 엄광애보살(36). 초등학교 2·4학년 딸과 7살바기 유치원생 아들을 둔 젊은 엄마 엄보살은 "불교계도 교회처럼 젊은 여성 자원봉사자가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백여명의 '자비의 집'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40~50대 가정주부. 엄보살은 젊은 나이에다가 직장생활(대한생명 생활설계사)까지 하는 보기드문 미시족으로 주위의 언니 봉사자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한달에 2번 봉사가 있는 날이면 집 근부에 도장을 찍자 마자 무료급식소로 달려온다. 경력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노인들의 점심공양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는 모습이 이미 베테랑이 다 되었다.

4년전 '자비의 집' 후원회원으로 있다가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는 말에 선뜻 나섰다. 집안 살림에 직장생활하랴 사찰(면목동 보현정사) 다니랴 정신이 없지만, '관세음보살' 정근과 함께 봉사활동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즘은 아들이 실직한 노인들과 50대 중년남자들이 늘어나는 마음이 아파요. 평소 100여명이던 인원이 140여명으로 늘어난 반찬을 세가지에서 두가지로 줄여 미안할 따름이죠. 불자들의 도움이 어느때보다 절실해요."

엄보살은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님 같은 노인들이 언제나 즐겁게 점심공양을 할 수 있도록 늘 '관세음보살'을 염송한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업체 봉축현수막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98.5.3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현수막 규격	가 격
90cm× 6m	40,000원
90cm× 8m	50,000원
90cm×10m	60,000원
90cm×12m	70,000원

※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 주문 환영합니다.
※ 봉축위원회가 제정한 각종 봉축행사용품도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 제작 관계상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후문 옆)
☎(02)723-4306~7, FAX:(02)738-8682

봉축위원회 지정 『불자의집』 교패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 크기:5.5cm×7cm
■ 보급가:1개당 1,000원
■ 2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봉축위원회 지정 봉축 어깨띠
▲ 고급공단으로 제작
▲ 색상 노랑색, 분홍색, 오렌지색, 흰색
▲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봉축위원회 지정 차량용 스티카
이웃과 함께
■ 크기 : 10cm×10cm
■ 가격 : 300원
■ 일반스티카(10종) 1,500원

봉축 리본
▲일반리본 ▲고급리본
♣ 색상이 다양합니다 (꽃분홍, 분홍, 노랑, 청색)
♣ 귀빈용 3단 꽃리본도 있습니다 (1,000원)
♣ 타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5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상유품(象喩品) ①

我如象鬪 아여상투
不恐中箭 불공중전
常以誠信 상이성신
度無戒人 도무계인

나는 저 코끼리가 싸울 때에
화살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지극한 믿음으로써
계행 않는 사람들을 제도한다

譬象調正 비상조정
可中王乘 가중왕승
調爲尊人 조위존인
乃受誠信 내수성신

저 코끼리가 잘 길들여지면
임금이 타기에 알맞은 것처럼
마음을 잘 조섭하면 존귀한 사람
정성과 믿음으로 높임 받는다.

雖爲常調 수위상조
如彼新馳 여피신치
亦最善象 역최선상
不如自調 불여자조

오로지 나쁜 행에만 빠져든 사람
항상 탐욕으로 자신을 묶으니
저 코끼리 만족할 줄 모르듯
그런 까닭에 자주 탯집으로 드나든다

本意爲純行 본의위순행
及常行所安 급상행소안
悉捨降伏結 실사항복결
如鉤制象調 여구제상조

욕심따라 뜻따라 행을 하고
항상 편안하길 바라던 마음
모두 다 버리고 항복 받아 잡아매니
재갈 물려 코끼리 길들임과 같네

樂道不放逸 낙도불방일
能常自護心 능상자호심
是爲拔身苦 시위발신고
如象出于堁 여상출우함

도를 좋아해 방일하지 않고
늘 스스로 마음지키면
이것이 이 몸의 괴로움 뽑는것
저 코끼리 수렁에서 빠져나오듯

若得賢能伴 약득현능반

어진 이 만나 함께 선 행하되 굳세면 듣고 봄 항복받아 뜻을 잃지 않는다

비록 늘 길들여진 것이라도
잘 달리는 당나귀라도
가장 좋은 큰 코끼리라도
스스로 조어함만 같지 못하다

彼不能適 피불능적
人所不至 인소불지
唯自調者 유자조자
能到調方 능도조방

저 길들인 코끼리라도
사람들이 못가는 곳은 갈 수 없지만
오직 스스로를 길들인 사람은
그만이 능히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다

如象名財守 여상명재수
猛害難禁制 맹해난금제
繫絆不與食 계반불여식
而猶暴逸象 이유폭일상

저 '재수'란 이름의 코끼리는
사납고 해로워 제어하기 어렵다
붙잡아 매어두면 밥도 먹지않고
오직 난폭하게 날뛰기만 할 뿐

俱行善惸 구행행선한
能犬諸所聞 능복제소문
至到不失意 지도부실의

만약 어진 이 만나 짝할 수 있어
함께 선을 행하되 굳세게 하면
능히 보고듣는것 항복받아
이르는 곳마다 뜻을 잃지 않는다

不得賢能伴 불득현능반
俱行行惡惸 구행행악한
廣斷王邑里 광단왕읍리
寧獨不爲惡 영독불위악

어진 이 만나 짝할 수 없어
거칠고 나쁜 행 굳세게 하면
저 넓은 왕읍을 버릴지라도
차라리 홀로 되어 악을 짓지 말라

寧獨行爲善 영독행위선
不與愚爲侶 불여우위려
獨而不爲惡 독이불위악
如象驚自護 여상경자호

차라리 홀로 선을 행할지언정
어리석은 이와 더불어 짝하지 말라
홀로 되어 악행하지 않는 것
저 놀란 코끼리 제몸 지키듯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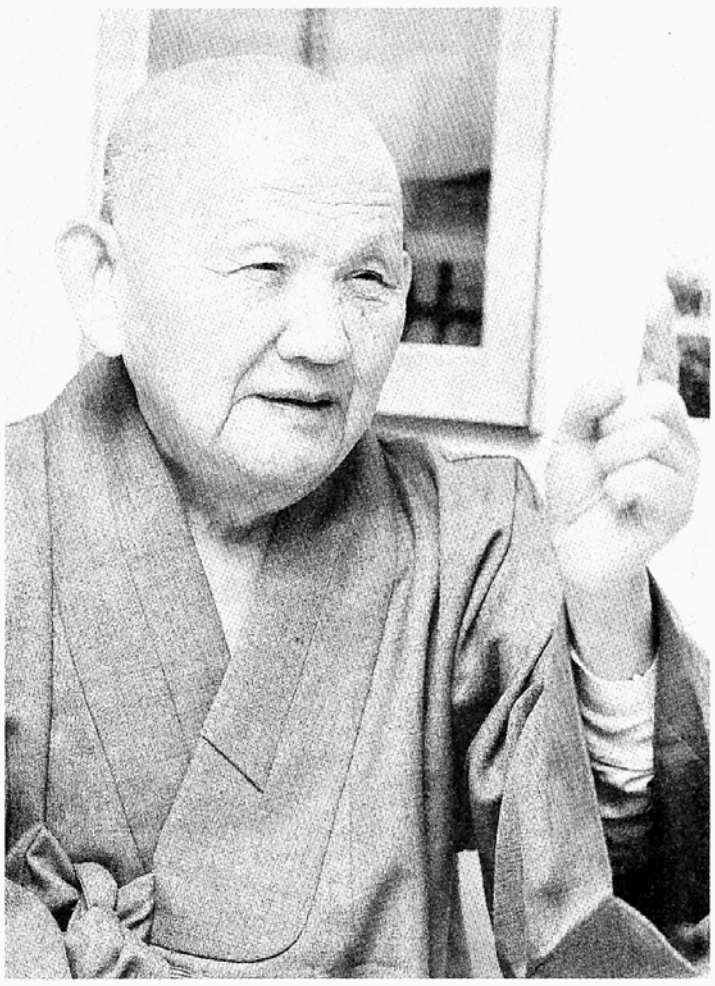
沒在惡行者 몰재악행자
恒以貪自繫 항이탐자계
其象不知厭 기상불지염
故數入胞胎 고수입포태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밖에서 원인 찾지마세요

충담스님 〈승가사 회주〉



약력
- 1913년 5월 경기 가평 生.
- 1930년 4월 삼각산 승가사에서 심월화상을 은사로 출가.
- 1944년 4월 서울 무학산 승가사 창건
- 1956년 5월 경기 가평 호명산 감로사 창건
- 1990년 1월 한국불교 태고종 원로 추대
- 1992년 7월 20하안거 성만
- 現 성동구 승가사에 주석

지금 나라안팎에서 온통 경제난국이라 아우성치고 있지만 말만 앞세우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된게 누구탓입니까. 왜 원망을 밖으로 돌립니까. 원인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분수를 모르고 사치와 과욕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탐·진·치 삼독에 빠져 있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허욕과 망상을 부린 결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어요. 높은 자리, 화려한 궁전, 명예 등이 모두 헛되고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치열한 수행을 통해 허깨비밖에 안되는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불도를 이루겠다는 큰 원력을 낸 것이지요. 혼탁한 세상일수록 부처님의 진리가 천고에 빛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다시는 이 땅에 나라를 잃은 한(恨)이나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 열일곱이었을 거예요. 온 나라가 나라잃은 설움에 아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출가하신 형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출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인생에 얽힌 매듭을 풀고,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고생하는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뿐이라고요. 그래서 긴 머리 칭칭 동여매고 짚세기 신고 걷고 걸어서 삼각산 승가사를 찾았습니다.

출가하고는 나무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 새벽 예불을 비롯 절에서의 모든 일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삼각산을 비롯한 심산유곡은 물론 한강 상류로부터 마포나루를 지나 임진강에 이르기까지 행각정진을 계속 했습니다. 징용을 피해 고국을 떠나 중원(中原)땅 만주벌판에서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국광복을 기원했고 촘촘히 하늘을 수놓으며 눈부시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광명이 날로 더하여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길 서원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부처님 법의 수레바퀴 굴리기를 염원했던 것입니다.

'온 세계 불길이 가득하여도 반드시 뚫고 나가 불법을 듣고 모두 다 마땅히 부처가 되어 생사에 헤매는 이 구제하여라' 나라잃은 슬픔을 객지를 떠돌며 달래다보니 화두아닌 화두가 잡히더군요. '염기염멸 즉생사(念起念滅 卽生死)'란 말이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보면 그게 다 사라져 버리고 말죠. 사바세계가 다 고(苦)라 했어요. 괴로우니까 고통에서 벗어나야겠고 그래서 화두를 잡는데 사실 세상에 화두아닌 게 어디 있나요. 고에서 벗어나려는 중생의 마음이 곧 화두입니다. 만주벌판에서 노숙을 하며 잡은 화두가 바로 조국의 광복입니다. 나라잃은 슬픔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동포를 일깨우는 거였어요.

1945년 8월15일 백중마지를 마치고 아리랑고개를 넘어 왕십리로 오던 길에 일본순사에게 불들렸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같은 하늘아래 같은 땅을 밟고 살며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사는 우리들에게 해방은 너무도 감격스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동족상잔의 6·25가 터졌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요. 병원과 화장터를 오가며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환난이 하루바삐 소멸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세상에 화두 아닌것이 없어요 苦에서 벗어나려는 중생의 마음이 곧 화두입니다"

국방군에 소집되어 막노동과 전투 속에서도 염불외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휴전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 역시 평화통일의 염원과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도량을 호명산 감로암에 마련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든 여섯이예요. 나라잃은 설움과 전쟁의 참혹함을 맛보았고, 그보다 더한 불교분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저 북녘땅의 동포들은 굶주리고 있으며 이 땅의 우리들은 무분별한 사치와 과욕으로 경제난국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덧없습니다.

'약념일구 아미타불 능멸팔십억겁 생사중죄(若念一句 阿彌陀佛 能滅八十億劫生死重罪)

약념일구 아미타불 성취팔십억겁 수승공덕(若念一句 阿彌陀佛 成就八十億劫殊勝功德)'

육조혜능대사는 염불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을 염(念)하는 것이 만세(萬世)의 티끌번뇌를 뛰어넘는 묘한 길이요, 부처가 되고 조사(祖師)가 되는 정당한 원인이며, 삼계(三界)의 천상인간의 눈이요, 마음을 밝히고 제 성품을 보는 지혜등불이다"고 답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미타불을 지성으로 한번 부르기만 해도 팔십억겁 동안 지은 죄가 다 소멸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극락세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이곳이 곧 극락인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감로암에 따로 토굴을 만들어 좌선정진(坐禪精進)하며 틈틈이 서방극락교주 아미타불을 관하고 염불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토3부경 중 관무량수경 16관법 중 제1관을 참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서쪽을 생각하라. 중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눈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아 지는 해를 똑똑히 바라보라. 해를 보고 난 후에도 눈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큰스님 수행한담

모든것이 내탓입니다"



◇모두를 버리는 것을 화두로 삼고 수행하는 충담스님의 마지막 서원은 남북통일과 불국정토가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기원하는 소신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사진은 1970년초 선암사에서 대중스님들과 함께 한 충담스님(왼쪽에서 두번째).

불교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체득하기도 전에 의심하면 대자유 얻을 기회 잃어요

말과 행동 성실히하여 나와 남 구제해야 어렵고 힘든때 일수록 원력·발심 필요

을 갖으나 눈을 뜨나 그 모습이 한결같아 보이도록 하라"고 관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관(觀)이란 사물의 겉모습뿐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다는 것은 시각을 통해 감각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사물의 표면을 투시해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사마타(奢摩他), 즉 지(止)에 의해 마음의 산란함을 정지하고 이것에서 나온 지혜로써 제법의 실상을 똑바로 보는 것을 관이라 합니다. 수행자들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의 염불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선 오후 3시쯤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눈이 멀 것이라며 말리고 있지만 나는 조금도 변함없이 정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틈틈히 사경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지극한 마음으로 써 내려가는 것은 한량없고 그지없는 공덕을 쌓는 일이지요. 특히 〈무량수경〉에 설해진 부처님의 말씀을 사경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유연해지며, 삭막한 시대를 정화하고자 하는 서원이 저절로 생깁니다. 〈무량수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죄악이 넘치고 부정하여 진정한 즐거움이 없느니라. 쿠디 스스로 결단해서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더욱 많은 선행을 쌓도록 하여라. 그리고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마음의 때를 없애며, 항상 말과 행동을 성실히 하여 표리가 없고, 자신을 제도할 뿐만 아니라 남도 구제하여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성불의 서원을 굳게 세워 많은 공덕을 쌓도록 하여라"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지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원력이 필요합니다. 범부중생이라도 한번쯤 이 세상을 정화해보겠다는 발심을 낸다면 발심을 낸 그때부터 이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늙은 이 납자의 마지막 서원이 있다면 여법하게 소신공양을 하며 회향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허망한 몸뚱아리를 공양올림으로써 모든 중생들이 사바고해(娑婆苦海)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요.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 제23에서 희견보살은 육신으로 공양함을 서원하며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옷으로 몸을 감고 향유를 끼얹고 스스로 그 몸을 태워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이가 여든에 들어서면서 나도 소신공양의 서원을 세웠어요. 분단된 이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고 사회가 안녕하며 헐벗고 괴로운 중생이 없어지고 불국정토가 앞당겨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의미에서 발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본래 부처님의 법 아래 삼천위의(三千威儀)와 팔만세행(八萬細行)을 함께 하고 또 뜻을 함께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위정자들의 정쟁 속에 휩싸여 타의에 의해 16개 종단으로 갈라지다니 이제 오십이 넘는 종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승풍을 진작시키고 삼보를 호지하고 정재와 교권을 수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속히 제종통합 원융회통의 정신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생사일여(生死一如)라 했어요. 나고 죽음이 한가지란 말이예요. 모든 사람들이 백년동안의 인생에 전전긍긍하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원인은 바로 죽고 사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일념으로 수행해 생사의 도리를 깨친다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본래 생사가 없는데 사람들은 착각하여 생사를 보고 있어요. 우리의 이 생각의 기멸(起滅)이 딱 끊어지면 바로 그 자리가 흔들림없는 본래 마음이니, 그 흔들림없는 데에 죽음이 있을 수 없지요.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내버리는 것을 화두삼아 하고 있어요. 일념으로 정진, 참선을 하고 수양을 쌓아서 불생불멸하는 본래 마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간혹 나를 찾아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극락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불교의 목적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입니다. 즉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중생을 제도하여 사바고해를 불국정토로 만들어서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요. 염불이나 간경, 참선, 주력 모두 성불을 위한 좋은 방편들입니다.

'생자필멸(生者必滅) 회자정리(會者定離)' 세상에 나온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을 것이요, 만난 이는 누구든 헤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그래도 영원히 멸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즐거우며,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청정한 본래의 참 성품인 불성을 증득하는 길이 수행에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사경을 하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관무량수경〉에서는 극락왕생의 수행방법으로 세가지 복을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간에서 행하는 도덕상의 선행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섬기며, 살생을 하지 않고 열가지 성업을 닦는 세복(世福)이요, 둘째는 삼보에 귀의하여 계율을 지키는 계복(戒福)이며, 셋째는 대승의 깨달음을 구하는 보살행으로서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의 도리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는 행복(行福)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기본자세인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가 손에 잡힐 듯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하기 이전에 미리 의심부터 한다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영영 멀어질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부처를 만들어내고 부처님 법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바르고 오묘한 이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늘 자기를 잊어버리고 바깥으로 헤매는 중생들을 일깨우는 가르침이지요.

여러 불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으신 험난한 길을 그대로 따라 수행하기를 원하지만 근기들이 없어 쉽게 포기를 합니다.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게 중생이지요. 그러나 한번 발심한 이상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마세요. 용맹심을 내 정진하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말세일수록 그릇된 욕심을 버리고 참회하며 불법을 증득하고자 하는 발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수행을 해 불법의 등불을 하나 켬으로서 이 세상의 혼란과 어지러움을 환히 밝힐 수 있습니다.

정리=윤기석 기자

47 와 경전

현우경



밀 원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어찌보면 인간의 삶은 시간이란 베틀에다 천을 짜듯 문양을 새기는 것이 아닐런지. 그래서인가? 곁에 두고 펼쳐보는 경전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회의와 의심이 미덕일 수 있었던 20~30대 젊은 시절에는 명징한 논리와 깊은 사유가 요구되는 〈금강경〉이나 〈능엄경〉 같은 류의 경을 자주 펼치더니만 불혹고개를 넘다보니 지금에는 평이한 문체에 이야기가 있는 경전을 가까이 하게 된다. 그 중 즐겨 보는 경이 〈현우경〉이다.

이 경은 십이분교(十二分敎) 중 아바다아나(비유의 이야기를 모은 경전)에 속한다. 그 내용과 구성을 보면 현재의 행위를 과거사의 이야기로써 설명한 것, 미래를 예언하는 수기, 현재의 행위에 따른 현재의 과보, 부처님이 되기까지의 부처님 전생이야기인 본생담 등 다양한 내용이 비유와 우화 형식으로 꾸려져 있다.

'……/ 어제의 무지함이 오늘을 돌고/ 오늘의 집착이 내일의 약속장소로/ 있는 곳도 모르는 채/ 지옥과 극락을 헤매이다/ 한가닥 인연으로/ 한판 도박이라도 하는 듯/ 돈오돈수를 잡으려 한다'고 노래했다. 출가사문이라면 어느 누군들 돈오돈수의 매력에 이끌리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우경〉에서는 깨달음은 도박이 아니라고 구구절절히 이야기한다. 부처님같이 수승한 근기를 지닌 분도 아승지겁의 세월을 수행하여 비로소 부처를 이루신 것이라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수행이라도 헛되지 않는 것이라고. 깨달음은 순간의 일이나 아승지겁의 세월이 그 순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우경〉은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아승지겁의 수행을 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경박한 이들에겐 진중함을, 지나치게 진중한 이들에겐 삶

중생들의 세상살이 그대로 펼쳐져 아승지겁의 과보 보여준 비유설법

내가 〈현우경〉을 가까이 두고 좋아하는 이유를 몇가지 이야기해 본다면, 우선 〈현우경〉에는 우리네 중생들 세상살이가 그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현우경〉을 읽다보면 내가 마치 무대 위에 선 배우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내가 맡은 배역은 참으로 다양하다. 때론 오로지 법을 구하기 위해 신명을 바치는 구도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미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 스승 부인의 유혹을 거절한 연유로 백 개의 손가락을 자르러 다니는 봉두난발의 앙굴리말라가 되기도 하고 오백 명의 거지 중 하나가 되어 구걸하다가 부처님을 만나 환희심으로 발심출가하기도 한다. 또 어느새 인도 최강의 나라 국왕이 되어 만천하를 호령하기도 하며, 천하절색의 미인이 되어 뭇남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호랑이, 코끼리, 소, 앵무새 등이 되었다가 용왕이나 천인(天人)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는 드디어 부처님이 되어 미혹에 쌓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펴기도 한다.

또한 이 경은 과보의 성취와 깨달음에 대한 사행심을 없애준다. 어느 스님은 '도박같은 돈오돈수'라는 시에서의 여유를 준다.

어느 서양 문학가는 존재의 뿌리와 정신의 축을 잃고 부유하는 현대의 군생들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상태라 규정하기도 했다. 이런 이들에게 〈현우경〉은 사람살이가 팔랑팔랑 부유하는 깃털같은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반대로 지나친 존재의 무게를 떠받고 사는 출가사문같은 이들에겐 사람살이가 늘 무거운 것만은 아니라고 가르쳐 준다. 내 경우 한없이 아득한 空의 심연, 중중무진으로 펼쳐진 화엄의 광활함, 이런 무거움으로부터 조금 비켜나고 싶을 때, 그 때 〈현우경〉을 펼친다.

〈현우경〉은 천상으로부터 날짐승 길짐승, 지옥중생에 이르기까지의 육도중생들이 때로 현명하게 때로 어리석게 엮어나가는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세계를 열어보임으로써, 어리석고 못난 이들도 수행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깨달음의 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눅들지 않게 해준다. 또 깨달음에 대한 열정으로 조급하기 조급한 이들에겐 느림의 미학인 아승지겁의 수행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 생에서 생사를 결판내지 못했다는 자책과 자괴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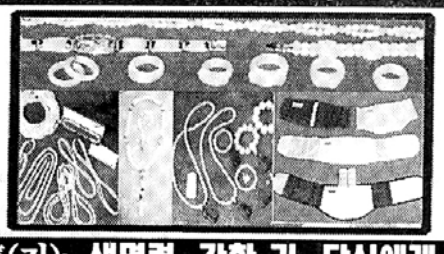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수강생 모집. 사경은 재화복이 있고 법과 대가 있습니다.(통신도 가능)
반야심경, 법화경 모든 경전 서예 수강생 특별지도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절·염불·독경·참선·기도 (수련안내)
삼천배를 108일간, 하루 만배씩 100일간 100만배, 삼년동안 잠자지 않고 석가모니불 염불정진, 한문금강경 십만독, 한글 금강경 일만독 수행하며 터득한 수행의 비전을 테크닉을 공개 수련합니다.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①숨이 차고 헐떡대며 절하는 것은 마음이 크게 동요된 것으로 정신 집중 안되고 폐와 심장 등의 신체에 무리가 오는 어리석은 수행이다. 들숨과 날숨을 절 동작에 정확히 대입하여 자연 단전 호흡되면 삼천배를 하여도 숨차지 않고 힘들지 않으며 절삼매 이루고 강력한 기운의 집중과 방출로 일생 감기, 몸살 안걸리고 당뇨, 치매, 중풍은 예방되고 치유된다.
②염주들고 숫자세고 시계보면서 절하는 것은 나보감은 수행이다. 호흡과 동작에 숫자를 대입하면 자동으로 헤아려지며 정신 집중이 좋아져 생각이 또렷또렷해지고 기억력이 상당히 향상된다.
③합장하고 절할때, 일어설때 우주의 밝은 기운이 몸에 쌓이는데 염불하면서 절하거나 입벌리고 절하면 기운이 빠져나가 몸이 흔들리고 힘이 들며 몸살나게 되니 허 입천장에 말아붙여 단전에 쌓인 기운을 유통시켜야 생기가 나게 된다.
④요가, 선체조, 기공체조, 단전행공, 명상체조보다 동작과 호흡의 일치가 전혀 무리없이 쉽게 잘되며 장소 구애 않받고 돈낭비, 시간낭비 않으며 지극한 신심이 증대되고, 단기간에 효과 발휘하는 최고의 건강법이며 만인류는 필히 실천해야할 수행법이다.
⊙ 염불 時 철야 정진
올바른 자세가 계속 유지됨으로 졸립지 않고 피곤하고 지겹고 괴롭지 않으며 갈수록 정신은 맑아지고 자동으로 염불되고 자동으로 단전 호흡되어 힘이 넘치게 되는 가장 쉽고 언제나 실천 가능한 수행법이다.
⊙ 참선 기초수행, 와선호흡법, 염력기도법, 신비의 도인건강법
● 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기본수행법 수련
● 매주 토요일 저녁9시 ~일요일 아침 8시 철야용맹정진
● 예약수련, 넉넉한 복장, 수련회비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 (0338) 71-7745 (수행상담시간 오후 5시~8시)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목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히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알파파(α)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여종의 뇌내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목찜어서 사이만 효과가 있습니다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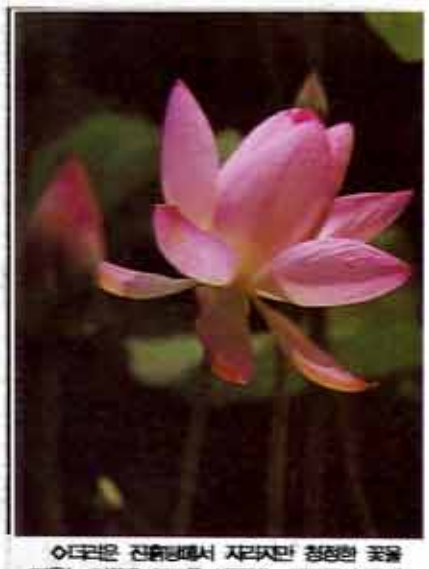
納淸 鍮器
중요무형문화재 77호
이 봉주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보급합니다.
納淸 鍮器 製品 디자인을 모방하여 생산 판매되는 유사품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입 · 문의처
T. (0345)498-6262~5
F. (0345)498-6265

월2회 연재

상식으로 보는 불교문화

"
짝트고 잎돋아 꽃피고
열매 열림은 '생주이멸'
우주진리 드러내는 것
"

꽃



어두운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다. (사진 · 김근중)



수증에 물감을 들여 수공으로 만든 지화.



연꽃을 들고있는 부처님 주위로 코끼리 네 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불국사 극락전 아미타.



선암사 선방 앞의 '백매화'
3백년 이상된 고목에 호드러지게 핀 매화꽃이 흩뿌릴 때는 마치 꽃비 내리는 극락정토인듯 장관이다.
(사진 · 석선암스님)

마음에 꽃 피니 밝은 세계 열려

이심전심 염화미소 '禪의 백미'

꽃공양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 담겨

만다라화 부처님 '법화경' 설법때 내린 꽃비

'꽃이 비처럼 내리는 화엄세계.'

〈아미타경〉에 이런 표사가 나온다. 경전에는 꽃이름과 꽃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또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고 난 후에는 언제나 천상에서 꽃비가 내려 장엄하고 있다.

꽃은 화려한 자태와 오묘한 색깔, 매혹적인 향기로 지고의 아름다움을 상징해 왔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한 진리를 꽃으로 비유하고 꽃이야기가 많은 것이다. 꽃비가 내린다는 것은 또한 그곳이 우리가 지향하는 극락정토라는 상징적 비유이다.

꽃소식은 봄이 옴을 상징한다. 봄이기에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 봄이라고 하지 않는가. 죽음과 추위, 어둠에서 새롭고 밝고 아름다운 세계가 열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꽃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향기와 아름다운 마음을 준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어 피어있기 어렵다는 듯이다. 즉 아무리 당당한 권세도, 부도, 명예도 영원할 수는 없고 결국은 무상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씨가 싹을 틔어 잎이 돋고 꽃을 피워 열매가 맺는 과정은 그대로가 부처님이 설하신 생주이멸(生住異滅)의 연기이다. 하나의 꽃에서 우주의 진리, 생명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대중들에게 한송이의 꽃을 들어보이자 모두들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하는데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지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염화미소(拈花微笑)'. '염화미소'는 무언으로 마음이 통해 이심전심으로 진법하는 것을 지칭한다. 부처님은 '여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이 있으니 이를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고 했다. 염화미소는 중국 송대(宋代)이후 선종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말로써 실질적인 선종의 시원이 됐다.

■ 연꽃(蓮花)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다. 더러운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청정하게 꽃을 피운다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은 번뇌 가득한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불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비유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

부처님이 깨우치고 나서 사람들을 보니 마치 호수의 연꽃으로 보였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진흙속에 있고, 헤어나려 하고, 간신히 머리만 내밀고, 꽃을 피우려 애쓰는 등 이런 모습은 인생의 고뇌에 휩싸여 있는 중생의 모습이였다.

탐진치가 난무하는 세속에 살면서 본성을 자키는 삶이 얼마나 될까.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경계에 부딪쳐 흔수되기 보다는 극복의지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같은 고고함을 가지고, 말고는 그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 꽃꽂이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가지 공양물중 으뜸이 꽃공양이다. 불자들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에 담아 공양함으로써 진실된 소망을 발원해왔다.

불교전성기에 생화를 공양하던 것이 꽃꽂이의 근원이 됐다. 욕법공양의 꽃꽂이는 상단공화로 부처님께 올리는만큼 가장 아름답고 청정한 꽃으로 장엄하고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요란스럽게 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불교꽃꽂이는 기교·기능의 예술성이 아닌 믿음이 우러나야 한다. 즉 부처님께 올리는 꽃꽂이는 꽃병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꽃(진리)을 아름답게 심는 의식이다. 우리나라의 꽃꽂이는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자연주의에 불교의 불전공화형식(佛前供花形式)을 받아들이면서 상·중·하단 공화가 형성됐고 삼각구도를 기본으로 좌우대칭과 인위적인 표현이 가미된 기법으로 발전했다.

■ 꽃장식

옛날에는 지금처럼 사시사철 꽃이 흔하지 않아 절에서 큰 재를 지내려면 주로 스님들이 여러날 전부터 종이에 화사하게 물감을 들여 수공으로 만든 지화(紙花)로써 불단을 장엄했다. 지화는 불교적인 영향으로 탄생해 널리 퍼졌는데 형산재



시면서 지금도 갖가지 꽃모양이 만들어져 장엄되고 있다. 큰 잔치시 종이연꽃 세 송이를 한가지에 달리도록 만들어 음식위에 꽂는 수파련(水波蓮)도 세간에 유행했다. 초창기에는 부처님전에 치장했던 조화를 금, 은, 브석으로도 만들었다.

특히 꽃장식은 연꽃이 많이 쓰였다. 임종시에는 커다란 연꽃으로 꽃상여를 만들어 극락왕생을 기원하기도 했다.

■ 법화경 · 화엄경 · 아미타경

꽃에 바유된 바른 가르침의 경전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연꽃처럼 현상의 변화에 변화되지 않고 우주의 진리에 순응하여 인격을 완성하며 세상을 광화로운 이상향으로 가는 길을 설한 경전이다.

말 그대로 '꽃으로 꾸몄다'는 뜻의 〈화엄경(華嚴經)〉은 아름다운 마음의 행동을 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계의 맨밑에는 풍륜이 있고 위에 향수해가 있는데, 향수해의 커다란 연꽃속에 있는 세계를 부처와 정토세계를 보여주는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라 했다.

〈아미타경〉은 극락정토를 연꽃으로 상징했다. 극락정토는 연꽃으로 장엄된 아미타여래의 세계였던 것이다. 이밖에도 가장 오래된 경전인 〈법구경〉 등 불교의 많은 경전은 꽃을 바유대상으로 삼고 있다.

■ 꽃살문

대웅전 극락전 등 중요한 예른 꽃으로 곱게 치장되어 들어서는 이에게 마곳이 극락정토임을 느끼게 해준다.

절문 중 유명한 정수사 법당 중앙 2칸 창호 어간은 푸른꽃병으로부터 여러색깔의 꽃이 피어나간 모양을 조각한 꽃살창호로 돼 있다. 통나무판을 파아 밑일이 꽃무늬를 새겨 마치 화병에 풍성하고 화려하게 꽃꽂이한 모습이다.

■ 만다라화(曼陀羅花)

만다라화는 부처님이 나타날 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성한 꽃이다. 빛깔이 미묘하여 보는 이의 마음에 열반락을 느끼게 해준다고 한다.

만다라화는 인도의 뜰은겨울이 끝나면 제일먼저 피는 꽃중의 하나로 꽃잎이 없으므로 그 꽃이 봉폭로 1m나 되는 나무위에서 비처럼 쏟아진다는 것이다. 경전속에는 수없이 이 꽃이 쏟아지고 있다.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 가부좌삼매에서 무량의처삼매에 도달했는데 만다라화가 세존과 대중들위로 뿌려져 부처세계가 6종으로 진동하고 감탄의 소리인 '우다나'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고 한다.

■ 우담발화(優曇鉢華)

우담발화는 3천년에 한번씩 핀다는 상상의 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도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한다. 1m 높이에, 타원형형태로 흡나무과에 속한 우담발화 나무가 있다. 잎이 무성하고 3센티의 포도알 같은 열매가 열리는데 이 것때문에 우담발화나무 아래는 개미와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좋은 수행처였다고 한다.

우담발화가 3천년만에 한번 꽃이 핀다는 것은 부처님 설법을 듣는다는 것은 여간한 인연이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다는 어려움을 비유한 것이다. 또한 우담발화가 무화과처럼 호리병모양의 과실안에 매년 많은 꽃이 피지만 밖에서는 볼 수 없어서 나온 말이기도 하다.

■ 사라수꽃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때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라쌍수가 때아니게 꽃이 피어 만개했다. 사라수꽃은 후두둑 떨어져 부처님을 덮었다고 표현돼 있다.

사라수는 인도전역에 분포하는 나무로 줄기가 곧바르며 잘자라 키가 보통 30m나 된다. 껍질은 황백색이며 광의 귀모양 같은 흔기나는 잎에 꽃개의 유유빛을 내는 작은 꽃이 달린다. 줄기에서는 두나라고 부르는 향내음을 내는 수지가 추출된다. 세번째 부처인 비바사부처님도 사라수꽃나무 아래에서 계달았다고 한다.

■ 국화 · 매화꽃

매화꽃은 눈속에서도 피어 불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다. 매화는 고결한 사람의 품계나 격을 상징하고 있다. 예전에는 선원에서 수행중는 큰 스님들이 매화나무지팡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때문에 고찰에는 담에 꽃아 뿌리가 내린 큰 나무가 됐다는 수백년 묵은 매화나무가 많다. '9월9일에 국화가 새로 핀 것은 시절 인연이 분명한 말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고려 혜심스님)'는 시처럼 국화는 백죽공(白菊花)의 사상을 표상해주는 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국화가 대표식을 장엄하는 꽃이 된걸까.

김원무 기자



욕법공양중 꽃공양 장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공양은 공양중의 으뜸으로 꼽힌다.



정수사 법당의 꽃살문(부분).

봉축 현수막
⊙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에 아기 부처님을 팔라로 넣어서 제작해 드립니다.
⊙ 공정이 복잡하여 미리 주문을 받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가 격:
6m × 90cm = ₩35,000
(그외의 현수막은 상담후 결정)

불기 2542년
奉 부처님 오신날 祝
대한불교 ○○종 ○○사

※ 현수막 1장 주문하시면 등꼬리표 100장을 드립니다.

한울기획
◆ 전화:(02)474-2040~1
◆ FAX:(02)477-2316
조흥은행 임미순
435-06-085707

불자로서의 교직윤리

교사도 '상구보리 하화중생'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23〉



그림 · 이준석

敬業 교직 종사 자부심 · 긍지갖자

樂業 사랑으로 가르치면 즐겁다

勤業 교육자의 자질향상 끊임없이

나는 교육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윤리관을 경업(敬業), 낙업(樂業), 근업(勤業) 이라고 본다. 이것을 교직윤리라고 하여도 좋고, 교육자의 자세라고 하여도 좋고, 스승의 길이라고 하여도 좋다.

우리가 만일 교직을 멸업(蔑業), 고업(苦業), 태업(怠業)으로 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경업이라 함은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일이요, 낙업이라 함은 학생을 사랑하는 즐거움이요, 근업이라 함은 끊임없는 연찬에 의하여 실력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교직윤리는 다른 어떤 직업에도 해당이 된다.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일(경업), 그 직업에서 일하는 자체가 즐거우며 일에 몰두할 수 있고(낙업), 일의 능률향상과 자기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킴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함은(근업)모든 직업의 공통적인 윤리관이다. 여기에서는 교직윤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독자들은 각자 자기의 직업에 비추어 보아 생각하고 해석하여 주기를 바란다.

1. 경업

경업은 교직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일이니 이것이 스승의 제1차적인 자질이다.

나는 얼마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실력과 우수한 교수방법을 지닌 K교사를 지극히 싫어하고 있다. 그 까닭은 그가 교실에 들어오기만 하면 교원이 된 한탄을 학생들에게 늘어놓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교사는 입버릇처럼 "나는 계속해서 교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거야. 기회가 있으면 전직할 것이고 사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지"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직을 싫어하면서 왜 교직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흔히 교원은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교원들 스스로가 교직을 멸업(蔑業)으로 생각할 때 과연 누가 교원을 존경할 것인지? 교사에게서 투철한 교육관이 엿보이며 어느 모로 보나 교사다울 때 사회에서는 그를 스승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정치가는 정치가다워야 하고, 은행가는 은행인다워야 하며,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정치가 같은 교사, 군인 같은 교사, 실업인 같은 교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스승 같은 교사'가 될 때 교사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될 것이다. 교원은 학생들의 동일시 대상(同一視對象)이 되므로 아동들은 교원의 행동 하나 하나를 모방하게 된다. 교원의 말투, 걸음걸이, 글씨뿐만 아니라 흥미, 태도, 가치관, 신념도 점차로 교원을 닮아가게 된다.

교원의 감화력에 대하여 그 예를 '학습동기의 유발'에서 들어보기로 하자. 학습동기 유발의 방법으로는 목표의 확인, 경쟁심의 고취, 칭찬, 참여의 장려, 결과의 확인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지엽적인 방법이며 근본적인 방법은 '교사의 열중'이다. "열중하라, 열중은 무서운 힘으로 전파한다"라는 신념이 내가 40년간의 교직생활에서 얻은 귀중한 신념이다.

몇 해 전에 정년이 지난 어떤 노교육자가 한 장의 사진을 보이면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 사진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하였고 일제시대에는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그 때 수학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 중(약 20명)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가 5명이나 되는데 전원이 이학박사, 공학박사들이며 인문사회 계통의 박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아동에게 미치는 교사의 감화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경업을 하려면 교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르게 생각하고(正念), 바르게 알아야(正知) 한다. 정념, 정지함으로써 교직자로서의 올바른 생활(正命)을 할 수 있다.

2. 낙업

낙업은 교직을 즐기는 것을 말하며 교직을 즐기려면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교원의 가슴 속에 가득차 있어야 한다. 아침에 집을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무거운 발걸음이었으나 일단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만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즐겁고 좋을 수 있을 때 교직은 낙업이 될 수 있다. 만일 아침에 명랑하고 기분 좋게 집을 나왔지만 학생들을 보면 시달릴 생각이 앞서며 이마가 저절로 찌푸려진다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 이러한 고업(苦業)을 어떻게 일생동안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예로부터 위대한 스승은 한결같이 제자를 사랑한 교육자이며 또한 어른이 된 후에도 기억에 남는 스승은 제자를 사랑했던 분이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작용과 감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니 그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교직은 즐거운 직업이 된다.

논어(論語)에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之'를 '教育'으로 바꾸면, "교육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육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며 교육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육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만 못하다"로 될 것이다. 모름지기 '스승'이라 함은 교육하는 것을 즐기는 교육자를 말함이니 교육하는 것을 즐기려면 그 밑바탕에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 교육자에게 필요한 자질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소중한 자질은 바로 학생에 대한 사랑이다. 교직은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간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람은 교육자가 될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마음속에 평생동안 간직하고 고마움을 잊을 수 없는 교사는 지식을 잘 전달한 교사보다 학생을 지극히 사랑했던 스승이었음을 교육자 스스로가 확인하고 '학생사랑'의 스승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는 사섭법(四攝法)을 실천하는 교사이다. 사섭법은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이다. 보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법보시이며 불자는 학생을 가르칠 때 부처님의 법이 은연 중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편애하지 않으며 모든 학생을 사랑의 말로 이끌고 학생들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며 사제 동행의 길을 걸음이 바로 학생을 사랑하는 교직윤리이다.

3. 근업

근업이라 함은 끊임없는 연찬에 의하여 자기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교직을 흔히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한다. 교직에 과해진 핵심 과제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일이다. 가끔 지식과 기술의 전달을 비관하는 말이 들리는데 만일 교직에서 지식 기술의 전달 기능을 제외하면 교직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지 의문이다.

교원들의 학교에서의 하루 생활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데 교육자의 사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명은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느냐에 있으며 교직의 이와 같은 사명은 학교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으며 또한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즉 교원은 지식과 기술의 전달자이므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흡수하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은 평생교육의 실천자가 되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교원이 게으름을 피우려면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다. 경험과 요령으로 10년간 똑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지도하여도 그것 때문에 좌천되고 파면되는 일은 없다. 다른 직종에서는 그 직업에 대한 게으름은 그 결과가 눈에 보이게 즉각 나타나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얼마 안 가서 그 직업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교직의 경우 지식 산업인데도 지식 흡수에 대한 태만으로 인한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칫하면 교직은 태업(怠業)이 되기 쉽다. 교원이 "독서하지 않는다", "연구하지 않는다", "실력이 없다"라는 평을 사회나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듣게 된다면 다른 모든 면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스승'으로 존경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는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정진(精進)의 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지식에 내재해 있는 절대적 진리를 탐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불자로서의 교직윤리이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그림 · 박구원

걸망

운수납자들의 만행 '봇짐' 무소유의 홀가분한 생활상징

흔히 '걸망을 걸머지고 간다'는 말을 한다.

'걸망'이란 스님들이 발우 · 목탁 · 경전 · 때로는 시주받은 공양물 등을 담아 등에 메고 다니는 일종의 배낭이다. 걸망이라는 단어가 '걸'자로 시작했고 대개 스님들이 탁발할 때 쓰는 것을 본 사람들이 걸망을 걸식할 때 쓰는 망태기로 착각하는 예가 많다. 이는 철저한 착각이고 오해다.

걸망은 일종의 대형 주머니라고 보면 된다. 무명천에 먹물을 들여 걸망을 만들어 메고 이 절에서 저 절로, 이마을에서 저마을로 구름처럼 다니는 스님들의 모습은 홀가분한 생활의 표본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의 귀에 익은 말에 '괴나리봇짐'이 있다. 간단한 봇짐을 통틀어 '단봇짐'이라고 한다. 괴나리 봇짐이든 걸망이든 번거로운 이동장비를 피하고 언제나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상태를 유지할 때 쓰는 장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걸망 하나에 생계를 의탁하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스님들의 행각을 불교 전문용어로 '만행'이라고 한다. 만행은 탁발과 함께 스님들의 수행의 중요한 과정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국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참다운 스님이 되어보자는 의도로 만행을 한다.

일요일이 되면 도시 근교의 산에는 온통 서양식 걸망이 원색의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걸망을 메고 갈대가 하얗게 핀 산모퉁이를 지나가는 스님을 찾기가 힘들다. 한 번쯤은 걸망에 발우를 담아 메고 홀가분하게 먼 여행을 떠나는 여유와 한가로움을 비록 상상으로나마 즐겨 볼 만도 하다. 걸망을 메고 다니며 경험한 자료를 분석하여 오늘 이 시대의 중생이 진실로 겪고 있는 아픔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도서를 제외한 영화, 영상, 음반, 공연 예술 등 다방면의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상품권 판매 실시!
책방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37-0686, 732-1521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놓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인터넷 e-mail 접수 가능합니다.

• 건 강 •

한방암정보
02) 700-6366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선착순 20명 모집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대보생식
02) 427-9162~3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찾으시며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탐사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 수맥연구원 약간명 모집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能仁 看病會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3-16
011-337-0353
02-809-1831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강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해외허가 제 745호
중국 베이징 해외유학 및 연수안내
기공속성반
침술속성반
한방속성반
※ 전화 주시면 안내서 발송해 드립니다.
서울 사무소 대표전화 02)737-0437
북경 사무소 6594-9401~3

氣明綠岬 ↔ 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밝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실제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 잃으신 분들 매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기를 찾아 드립니다.
016)340-4459 ●
02)897-7731 ●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 대 불 교 신 문
강 릉 지 사
0391) 43-5599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진 로 선 택 · 작명 · 기타
기초부터 증강후 자신있는 간명에 이르도록 책임지도합니다.
■ 강의기간: 3월 3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금요일(주2회) 오후 1:30~4:30(3시간씩)
■ 수강료 : 교재제 포함(월 10만원)
마포구 대흥동 801-57
T. (02)713-4852~3
한국명리연구원

전 워커힐 신라 피아니스트
PIANO 전문 LESSON
⊙ 찬불가 (찬불가곡 · 찬불가요 · 찬불동요)
⊙ Jazz Piano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자 3개월 완성(가요 · 팝송 · 가곡)
강남피아노 교습소
02)554-1512

• 구 인 구 직 •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 현재 수업진행중 ●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 3개월 졸업 ●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 통신생도 모집
■ 강사 : 철학박사 학장스님 직접강의(동양철학, 침술)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개인 운세도 직접 감정중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 극빈불자는 수강료 무료 보시함.
강동구 길동 458번지 길동시장시장(지하철5호선 길동역)
혜능불교대학 內 ☎ 02)482-4550, 488-1569

대리점 모집 및 대출상담
◆ 무자본
◆ 대상 : 만 20세이상 (주부, 정년퇴임, 명예퇴직자 대환영)
◆ 특전 : 교육비 40만원, 초기 1년 활동비 지원, 육아수당
※ 성과급 (30~90만원보장)
◆ 대출상담 환영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삼성생명보험(주)
전화 02)959-8966~7
호출: 015)908-6427 PCS:019)321-5880

경력 관리직 모집
삼보에 귀의하오며 함께일할 도반을 모십니다.
■ 연령 : 40세이상
■ 대상 : 남 · 여
연락처 02)738-4224
(현해)나 찬 귀 합장

종무원 모집
■ 대상 : 남자 ■ 직책 : 사무장
희망하시는 분은 당사에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 의논바람.
대한불교조계종 반야바라밀결사 보현도량
도솔산 도 안 사
T. 0334)676-8700
F. 0334)676-8704

평생을 모십니다.
절 신축불사(지장 · 명부시왕단)에 동참하실 재정능력있는 보살님 모십니다.
※등참하실 분은 평생 절에 모시며 사후의 장의일체 49재 및 제사를 봉행해 드립니다.
02)888-1642
011)686-9925

• 법 회 안 내 •

대 모 집
■대 상 : 만 25세 이상 남녀
■기 간 : 1998. 2. 27~ 3. 5
■대 우 :
15일 교육후 30만원 교육비 지급
6개월까지 30~50만원 보장
일속에서 참자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 명퇴자 적극환영 ※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051)818-7601~2

구 직
50대 독신 남자로서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처사겸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 면허이며 지방도 좋습니다.)
0351)41-1152 박 성훈
※ 주간에 전화 안받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부전 겸 사찰관리를 맡기실 도량은 연락바람.
송 암 스님
032)439-3233
011)764-5046

● 무료담선법회
:월~금 오전10~12시까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 금강경
● 심신건강상담소
-개인상담: 월~금 오후 1~6시
-직장인 · 대학생: 월 · 수 · 금오후 7시~9시
-방문상담: 토 · 일요일
강남구 역삼동 제일생명 4거리 부근
02)539-1478
015)8312-5478

마정수기법회
이번 초파일에는 범빙회 큰 장로이신 우창대사(74세)스님이 오셔서 마정수기법회를 개최합니다
심불의 수기와 심의 축복을 통하여 물자들의 왕성한 정진을 이루며 뜻하는 일 원만하여 나라에 헌신하는 보살의 삶이 더도록 용기와 지혜를 북돋우어 줍니다.
아울러 남북평의 교류를 통해 부처님 구세대비 원력이 세계평화달성에 협력하는 물자의 시정을 깨닫게 합니다.
가족모두, 친지들, 이웃들 함께 오시어 뜻깊은 초파일에 수기와 축복과 설법을 통해 참불자가 될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들의 꾸꾸한 신심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여 세계를 평화롭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우선 인도합니다.)
■ 때 : 2542년 5월 3일 10시 - 부처님오신날
■ 곳 : 도솔산 도안사 (0334-676-8700)
대한불교조계종 반야바라밀결사 보 현 도 량
주 지 송 암 · 법 사 홍 교 합장

• 불 교 용 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불 교 미 술 •

탁자,닫집,법상,문짝,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학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락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락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불교 조각원
02) 732-7326

• 탈 종 공 고 •

탈종 확인서
■ 주소 : 경남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667
■ 성명 : 김태윤(법명:지관)
■ 생년월일 : 1960년 9월 3일생(660903-1821614)
상기인은 1996년 3월 10일자에 본 종단을 탈종하였음을 확인함.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일공 배 선 석

• 장 의 · 납 골 당 •

21C 장묘문화를 열어갑니다.
★ 중합납골당 '영묘각'
개인단/부부단/가족단/문중단/불당/합동봉안/영구위과봉안
★ 종합장례서비스 '백팔(108)상조회'
아직도 타종교인의 손으로 장례를 치르십니까? 석오사사 직영 108의사에서는 전국 어디나 출장 장례를 올려 드립니다 상조회에 가입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운산 석왕사 직영
백팔(108)상조회/장의부/영묘각 사무국
24시간365일 상담/출장대기 032)6128-108/032)6673-404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3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여 행 •

각국 할인 항공권 및 비자안내
미국비자 · 일본비자
중국비자 그외 각국비자
※ 여권발급 · 각국 할인 항공권 성지순례 상담(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일광여행사
대표전화 02)736-6272

• 기 타 •

「부다피아 포교기금」
PCS 016 핸드폰 특가판매
(기한 '98.3~4.10 ※특전 220분 무료통화)
● 삼성 애니콜 1100 ₩170,000 ● 삼성 애니콜 2000 ₩200,000
● 삼성 애니콜 3100 ₩400,000 ● 현대 걸리버 1100 ₩125,000
(※ 각 기종 가입비 포함)
◐ 가입방법 : 전화나 방문접수→입금→개통→송달
문의처 02)732-1522 「부다피아 포교기금」

• 사 찰 안 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전국무료전화직통:
080)723-4082
광 진 불 사

◇ 부산시 구서동 선경1차
포교당 45평
◇ 전세 1,500만
◇ 월세 80만
※ 전세 · 월세 조정가능
051)517-2080
〈종무소〉

◇ 위 치 :부천시 괴안동
◇ 평 수 : 건평 40평 (상가건물내 위치)
◇ 가 격 : 보증금 1500, 월 60 전세 5,500
◇ 상담후 절충가능
032)663-0340
032)341-6760
011)766-8562

◆ 명당 사찰 부지
◇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대 · 전 6,000평, 준농림)
◇ 동남향으로 땅가운데로 맑은 물 흐르고 주변 모두 국유림으로 완전 무공해 청정지역
◇ 사찰, 농 · 목장, 연수원, 동호인주택 외, 다목적 용도 가능
◆ 주변시세의 1/3價, 평당 1만 5천원
0373)374-0029
판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 4층건물 2층 30평
◇ 방 2, 주방 1, 법당1
◇ 가 격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700만원, 월50만원
※ 가격절충가능
02)438-2973
017)263-6908

◇위치 : 대전시내 역전근방
◇대지 : 40평(한옥주택)
◇가격 : 보증금 2,00만, 월 16만 (시설비 포함)
◆ 가격절충 가능!
042)257-6733

전통사찰 운영하실 분(急 양도)
◆위 치 : 경기도 의정부 인접
◆부 지 : 1,300평 종교용지
◆법 당 : 35평 전통목조기와(법당내 3m 석가좌불)
◆요 사 : 50평 전통목조 기와
◆삼성각: 전통목조 10평 외 공양간 전통 목조건물
◆시 설 : 시설일체 무상기증
◆가 액 : 6억 5천만원(투자는 12억 했습니다.)
◆특 징 : 빼어난 산세를 자랑하는 명산에 소재한 사찰로서 정상에는 기암절벽과 계곡이 조화를 이루고 경내에는 10m미속물, 연못과 1급수 계곡물이 사철 흐르고 주변 도지이앱으로 확장불사 가능, 통산로 및 유원지로 개발되어 관광 기도 사찰로 유명함. 사회복지시설로 적합하고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음.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양도의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무속인,보살및 대리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국불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 : 012)1648-6334
(24시간 호출可)
상담전화 : 02)512-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 위 치 : 강원도 영월 (제천에서 더 가까움)
◇ 평 수 : 730평(종교용지)
◇ 법 당 : 40평
- 산신각, 요사채 4동, 석등, 석탑,
- 방10개, 화장실
◆ 기도도량으로 적격임
◇ 가 격 : 1억 3천 5백만원(절충가능)
※ 서울에서 2시간 20분 거리
※ 8일 오후~9일까지 스님사정상 부재로 진화받지 못합니다.
0373)374-1765

◇ 암자 · 공부할 분
◇ 위 치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천천리 372-1
◇ 대 지 : 90평
◇ 건 평 : 20평 (방2개 - 주방, 거실, 욕실)
◇ 차량진입, 즉시입주 가능
◇ 96년도 신축
◇ 가 격 : 2천 550만원
053)813-5155
814-6785
012)1073-6780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서울 마포구 성산2동 동사무소앞
◇ 건물보증금 : 천만원에 월세 55만원
◇ 시설양도금 : 1,900만원 (고급시설완비)
◇ 층건평 : 35평종 법당 1칸, 방2칸, 부엌 1칸,샤워및 화장실 1칸
◆ 베란다및 옥상 사용가함
02)374-5295
011)742-2955

◆ 도심포교당 하실 분
◇ 위치 :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 부근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에 4층, 법당40평 (옥상 사용가)
◇ 가격 : 보증금 2천만.월세 60만원 (시설비 별도)
◆ 사정상 급매합니다.
011)833-1712, 011)301-1711
0525)33-0705

◆사찰 및 부지
◇ 위 치 : 경남 진주시
◇ 부 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 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법 당 : 평토작업 완료
◇ 기 타 : 약 1,000평 작설차 나무 식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 가 격 : 2척 5천(절충가능)
◇ 특 징 : 공원에서 제외된 산속요지의 옛사찰터(건축등 허가 됨)
016)589-0560
0591)758-3445

◇ 위 치 : 서울 강서구 화곡 8동
◇ 대 지 : 93평
◇ 건 물 : 건물 50평 (구옥)
◇ 가 격 : 평당 240만원
◇ 급매 (교환가능, 분할가능)
0454)43-7681

◇ 위치 : 마산시
◇ 평수 : - 대지 200평 - 전답 430평 - 합 63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 : 20평(방 3칸)
◇ 삼성각 : 5평(완전목조 단층)
◇ 지하수 200M(전기시설 농사용 전기사용)
◆ 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양도금액 : 2억 2천(가격 절충가능)
011)563-0108(주지 직접)
0551)21-5737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나' 이끌수 있어야 '남' 도 이끌수 있어

마음공부 · 주인공공부 차이점

문 이른바 공부라고 한다면 마음공부가 제일 으뜸가는 공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맡기는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공부와 주인공 공부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게 무어냐고 묻는다면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이 지옥고에 빠질 수도 있고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누구라도 이 마음의 도리가 묘법이고 광대무변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마음의 시자(侍者)일 뿐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자기의 근본 주인공을 믿고 아래로는 제 몸의 수억 중생들을 돌보면서 밖으로 또 내 식구 내 동포를 한마음으로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환경에 따라서 사장노릇을 하기도 하고 부하노릇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상인노릇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게 다 마음먹기에 따른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가고 오는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일체 행동이 다 마음에 달려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일체만법이 돌아가는 것, 저 태양이나 우주 천체까지도 다 마음의 근본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묘법인 마음의 근본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그 광대무변한 마음의 근본을 하찮게 생각해서, 큰 스님네들이나 불 보살이라면 모를까, 우리같은 중생이 어찌 그런걸 알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고 부처님의 뜻을 받지 못하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가 터지지 못해서 그렇지 부처님과 형상도 같고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자기 낳기 이전을 보지 못하니까 중생이라는 말을 듣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못났다고 하기 이전에 제 마음의 근본인 주인공을, 바로 그것이 보배인데 그 주인공을 믿어라, 일체만법이 다 거기에 들어 있으니 주인공을 믿어라 한 것입니다. 주인공! 하면 거기에 우주의 섭리가 다 포섭되고 일체만법이 다 들어 있으니 그게 바로 묘법이다, 불가사의한 뜻이 거기에 다 있다 이겁니다.

물론 '주인공'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 바꿔부를 수 있지만 마음의 근본이야말로 보배중의 보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할 때에 입으로만 그렇게 부르는게 아니라 '주인공이야말로 수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나를 형성시켰고 모습을 바꿔가면서 행하고 화해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뿌리로서, 삼천대천세계가 공심으로 공체로 공생으로 공용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합해서 일컫는 것이니까 뜻으로서 '주인공!'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믿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주인공! 당신밖에 없어!'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형성시켰고 끌고 왔으니까 되는 것도 거기서, 안되는 것도 거기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진정코 믿기에 진정으로 일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주인공! 나좀 낫게 해줘.' 이런다면 벌써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인공이 근본이니까 '주인공밖에는 못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죽는 것 사는 것이 다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시자인 이 몸뚱이도 다 거기서 끌고 다니는 것이다 하고서는 턱 믿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됩니다. 말하자면 나부터 알아서 나를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남도 이끌어 줄 수 있고 일체제불과 한자리 할 수 있으니, 위로는 부처님을 나와 더불어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능력의 공덕법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를 알면 계율은 저절로 알아지고 지혜도 열려서 스스로의 마음자리에서 빛보다 더 빠르게 오고 갈 수 있고 가서 보고 끌어다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이것은 신비하고 도도하고,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향내를 내고 만가지 열매가 익어 만가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음공부와 주인공을 믿고 놓고 관하는 공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마음공부가 현실과 동떨어져, 내 생활을 떠나서 있는게 아닙니다. 바로 생활속에서, 잠자고 먹고 일하는 그 속에서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가면서 하는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병들었다고 합시다. 그 병이 난 것도 주인공에 그렇게 믿고 맡길 수만 있다면 바로 자기가 믿고 나가는 것이니 아니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건 다짐합니다. 자기가 실험 안해보고, 체험 안해 보고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이런게 있습니다. 뭐 공부랄 것도 없지만 마음도리를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 병에 끄달리기 쉬운데 이 도리를 알려고 하면 가령 부처님 앞에 돈을 갖다 놓고 정성을 드리더라도 '일체 제불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바로 내 마음이요, 당신의 형상이 바로 내 형상이니 어찌 둘이겠습니까? 주인공! 당신밖에는 해결하지 못하지요' 하면서 정성을 드린다면 마음공부 하니 좋고 병도 나을테니 좋고 그 돈을 모아서 또 만물만생을 건질 수도 있으니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묘한 마음도리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본래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하니까 발견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내 몸을 끌고 다니는데도 이런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선장이라고 한다면 내 몸 속에, 오장육부의 세포들은 내가 마음을 쓰는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약하게 먹고 '에이, 이렇게 사느니 죽는게 낫다' 한다면 몸속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운행을 하면서도 '나도 죽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걸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또 이런게 있습니다. 이사를 하려는데 '그쪽으로 가면 삼살방이라 못쓰게 된다'고 누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영 꺼림칙한 채로 이사를 했더니 안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이면 '삼살방이 어디 있어! 사방이 툭 터졌는데, 내 한마음이 일체제불의 마음이고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한마음인데 어찌 삼살방이 붙을 자리가 있겠는가!' 하고선 똑같이 이사를 했는데 안되기는 커녕 잘되기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마음공부 한다는 사람이 가령 거기에 걸려서 두려워한다면 그런 공부 왜 합니까? 어차피 이 몸뚱이는 옷 같은 것이라 언젠가 벗어버릴테고 한번 벗지 두번 벗느냐 하고서는 당당하게 나간다면 뭣이 붙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질 못하고 무서워서 안절부절한다면 그게 미신이요 귀신이고 거기에 매여서 노예로 사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라면 세세생생에 노예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마음이 그렇게 보배로운 줄 모른다면 내 마음을 수레바퀴 굴리듯이 굴려 쓸 수 있는 능력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도리를 모르니 어느 때에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겠습니까.

지금같이 바삐 돌아가는 세상엔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공부라야 합니다.

삼성각 명부전공양 꺼림칙

문 제 어머님께서 독실한 불자시라 저는 가끔 어머님을 모시고 절에 다닙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절에 가실 적마다 대웅전뿐 아니라 삼성각이나 명부전에도 꼭 공양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왠지 그것이 미신같고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거기엔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 불교를 탄압하고 농토를 다 빼앗고 스님네들을 못살게 구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고 공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칠성각

☞ 18면으로 계속

"네가 내가되고 내가 네가되고
모습없는 모습들이 무엇이든 되는
멋진 묘법이 마음도리에 있어"



그림 · 최주현

마음도리 알면 계율·지혜 열매 절로 익어
기복은 자기 무시·부처님 뜻 외면하는 것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63)

막혔던 샘이 터져 용솟음치게 될 것이니—.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일이 가장 좋다. 사량으로 계획을 세워 무엇이 되게 하기에 앞서 오직 믿고 맡김으로써 진리의 근본 원천으로부터 샘이 솟아나게 하라.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을 하게 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무한한 능력에 눈을 뜨게 되고 자신에게 저절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일체를 다 놓고 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무심이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무심이 되니까 오히려 다 뚫리게 된다. 사방이 다 뚫리면 모든 것이 다 들어온다. 반면에 경계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면 우선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 전체를 움직이지도 못한다."

내게 다가오는 경계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미 닥친 경계를 거부하는 것은 더 더욱 자연스럽지 못하다. 어떤 경계라도 올만한 까닭이 있어서 온 것이다. 비록 그 인과관계의 전말을 내가 모른다해도 거기엔 반드시 내가 개입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내가 살아 있음으로써 경계를 겪게 되는 것이니 일단은 내 탓이다. 고로 다가온 경계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할뿐 더러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경계라도 맑은 거울에 비친 풍경을 보듯이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있음으로써 경계가 있고, 그 경계마다 내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믿는다면 차라리 그 경계 앞에서 숙연해 질 일이다.

'내게 다가오는 경계란 내가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거부할 게 아니라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를 길잡이로 삼아 한 단계 더 발전해 보리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수행자이다. 그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을 향해 크게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싫은 경계가 있고 좋은 경계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잘못된 것 잘된 것이 뚜렷한 것 같다. 그러나 경계가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과거·현재·미래를 다 종합해서 본다면 잘못된 것 잘된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수행자의 입장에서라면 잘못되고 잘되고 조차도 없다.

다만 지금의 내 사량(思量)으로 보니까 싫고 좋고 잘되고 잘못되고가 있을 뿐이다. 잘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는 판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계가 다 나의 진화를 돕는 길잡이라고 한다면 잘못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니 잘되고 못되고는 내 사량일뿐 경계는 길잡이로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계는 그냥 경계인 것이다.

경계를 그렇게 거울에 비친 풍경쯤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처럼 자연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거기엔 근심 걱정도, 초조와 불안도, 분노와 회한도 끼어들 자리가 없을 것이니 어찌 자연스럽지 아니하랴. 거기엔 자만심도 우월감도 붙을 자리가 없을 터이니 어찌 자유스럽지 아니하랴.

다만 행동 그 자체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일체의 사량 분별이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오로지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찬 행동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마다에 사량으로 토를 달고 분별로 색을 입히려 한다. 이것은 누구 탓이다, 이것은 무엇때문이다, 이것은 불운한 일이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이다, 못나서이다…, 좀으로 끝이 없다. 그러나 경계마다 꼬치꼬치 따지고 든다해서 다가올 게 안오고 이미 닥친 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쉽게 벗어날 일도 그 사량 분별때문에 더욱 얼키고 설켜 나를 옭죄게 된다. 내 행동만 시들해지게 만든다. 내 생명의 에너지만 손상을 입게된다.

태양이 내려쬔다. 바람이 분다. 비가 쏟아진다. 그래도 나무는 자라기를 멈추지 않는다. 태양이 너무 뜨겁다고 원망하지도 않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탓하지도 않는다. 폭우가 쏟아진다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나무는 그럴수록 제 뿌리에 의지해서 제 뿌리의 힘을 믿고 역경을 헤치며 자란다. 나무의 생명에너지는 다만 자라는 행동 그것에 충실할뿐이다.

내 생명의 원천, 그것만을 믿고 가라. 사량분별을 놓고 오로지 생명에너지로 행동하라. 그러면 막혔던 샘이 터져 용솟음치게 된다. 누구에게나 있는 저 무한량의 에너지가 그대를 가득 채우고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무슨 잘되고 잘못되는 경계 따위가 걸리적 거리겠는가.

협 찬 : 한 마 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일상생활서 가르침 하나라도 실천을

☞ 17면에서 계속

이다, 독성각이다 신중단이다 차려놓고는 거기에도 공양을 올리게 했던 겁니다. 거기에 커다랗게 쌀 한말쯤 들어가는 불기를 만들어 놓고 정성을 드리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몇 사람만 다녀가도 스님네들이 양식문제를 해결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안다면 이젠 개선할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더구나 오늘같이 이 밝고 밝은 세상에, 물질과학이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시점에서 기복적인 것을 개선하지 못한대서야 우리 불교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가며 호국불교인들 논의하겠습니까?

지금은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고 좋겠지만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 능력껏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부처님 자리에 함께 하도록' 진심으로 바라면서 하는 것이 옳지요. 정히 없으면 내가 먹는 밥 한그릇을 가지고도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지극 정성으로 해 드리면 됩니다.

큰스님께 여쭈면 병낫는 도리

문 한마음선원에서 발간한 〈한마음요전〉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어떤 병자가 하소연을 하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셨고 그후 그 사람은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 도리가 어떤 도리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면 마음공부 차원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과 물 섞이면 그대로 물입니다 '나'라는 생각놓고 한생각 돌리면 그 마음이 '한마음'입니다"



그림 · 최주현

앉아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미국이나 중국으로 오고 가고 말이 통하고 그러는 세상이니 이제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기복적인 데 있질 않으니 그 점을 잘 아시고 어머님께서도 잘 납득하실 수 있게 일깨워드리도록 하십시오.

부모님 예수재 지내고 싶어요

문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위해 예수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살림이 넉넉치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올해는, 올해는, 하면서도 수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기르침 주십시오.

답 부모님을 위해서 예수재를 지내는 것은 아주 찬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부터 피와 살과 뼈를 받고 열달동안 뱃속에서 보살핌을 받았는데 그 일만 해도 참 머리를 깎아 신을 삼아드려도 다 못갚을 일입니다.

더군다나 태어난 후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뉘어주고 온갖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을 다 나를 위해 해주셨으니 그 빚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안 먹고 안 쓰면서 힘 자라는 데까지 희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가령 부모가 지겟꾼이라서 자식을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거나 공부를 못시켰다고 해도 현실의 능력이 모자라서 못했지 마음이 모자라서 못했겠습니까?

걸핏하면 조상 탓 부모 탓을 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어느 부모가 죽어서나 살아서나 자식 잘못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묵은 빚이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 예수재를 지낸다든지 천도재를 지내드리는 건 아주 찬성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빚을 얻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능력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들 힘들고 곤란한 일 당하는 걸 좋아라 하겠습니까? 예수재를 지내드리는 것은 부모님에게 무(無)의 통장을 해드리는 것인데 다음에 환토해서 이 세상에 나오실 때 궁색하지 않게 잘 사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님네들에게 제 능력껏, 할수있는 만큼 해드리는게 답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여러 곳에 지원이 있지만 그때는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사람만이 아니라 미국사람들도 여러번 전화를 해왔는데 주로 봄 아픈 사람들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그 때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그냥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그 말밖에는 못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만나든지 말이 통해야 '네 마음 속에 주인공, 진짜 보배가 있으니 거기서 해결하라'고 일러줄텐데 사정이 그렇고 전화를 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하고 심부름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심부름이요.

그렇다고 그 심부름이라는게 무슨 너와 내가 둘이 되어서 하는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심부름입니다.

여북하면 옛날에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불법이 뭐냐? 했더니 '똥친 막대기'라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와같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내 이 모습은 놓아두고 모습없는 모습들이 무도라는 말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런 걸 종합해서 주인공! 하는 것이고 삼천대천세계가 다 공했으니까, 찰나찰나 나투며 돌아가니까 빌 공자 주인공 할수밖에요.

그러니까 주인공, 그 내 마음의 보배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누가 심부름해주고 말고 할 것도 없지요. 믿는다면 일체만법을 다 닥치는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꼭 되는 것만 법이 아니라 안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자비입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대로 '주인공 당신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집안이라 계 못받아

문 저는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오랜동안 몸부림치다가 도의 삶을 사는게 될 것입니다.

보시로 문제해결 되는지요

문 고등학교 1학년때 처음 절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29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불법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고 남들과의 유대관계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한테는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조금 야속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 나름으로 되돌려 놓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이 문제를 걸고 보시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크지만 애초에 정한 것이라 깎아서 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요.

합니다.

보시란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나를 위해서 하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분명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주고 받았다는게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한 사이없이 한 셈이지요. 우리가 일체를 둘 아니게 생각하고 네 자리 내 자리, 네 아픔 내 아픔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보시라는 말조차도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를 해야 옳으냐, 많으냐 적으냐 하고 따질 일이 아니지요, 한 생각 일어났으면 그냥 한 사이없이 하면 그뿐입니다.

절에 안나가도 공부됩니까

문 초심자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라 법회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체만물이 다 가설되어 있다고 하시니 절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마음공부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전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법회에 참석해서 가르침을 듣고 예불을 보는 것은 아다시피 꼭 그래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스승도 없이 혼자서 공부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는 자만에 빠지거나 공부하다가 조금 콧김이 더워지면 '이만하면 됐지' 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량에 나와 하심하는 법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되새기는 게 좋습니다. 또 도량이 그냥 도량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부처될 자격이 있고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평등하지만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경우라면 스승을 따라서 배우는게 있습니다.

깨우친 스승은 누구하고도 한마음이 되어 상응할 수 있지만 깨우치지 못한 경우라면 아직은 제발로 걷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히 사정이 허락치 않는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생활 그 자체도 참선이니 그도 그것은 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도란 모든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인줄 알아 신통력까지도 내 근본마음자리에 돌려 놓아 무심이 되는 경지입니다. 거기엔 이미 내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문제조차 붙질 않는데 무슨 주인되시는 분이 있고 그 분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본래 고정된 것은 없고 찰나찰나에 나투고 돌아갈 뿐이라서 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한 것도 빌 공자 주인공이요 그 또한 이름이라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계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것까지 다시 놓고가야 합니다. 이 공부는 첫째도 내가 죽는 공부요, 둘째도 내가 죽는 공부요, 셋째도 내가 죽는 공부입니다.

"진정한 도란 신통력까지도 근본자리에 돌려놓아 무심이 되는 경지입니다"

마음공부해서 부모님께 진 묵은 빚 갚길 내가 하심하면 그 향기가 상대마음 녹여

엇으로든 될 수 있어야 하지요. 마음도리엔 그런 멋진 묘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고등동물입니다. 누구나 다 천체무전기를 갖고 있고 천체망원경을 갖고 있고…, 말하자면 오신통을 다 굴릴 수 있습니다. 남의 속을 빤히 볼 수도 있고 남이 지나온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진통! 이런다면 다섯가지 신통을 다 굴려서 자유인이라 이겁니다.

보는 것만이 도냐? 또는 병 고치는게 도냐? 속속들이 듣는게 도냐? 한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다섯가지를 다 굴려야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부터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 식구가 기독교를 믿기에 계를 받지 못하고 사찰에 적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펜을 들었습니다. 기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의 근본이 둘이 아닌줄을 굳게, 진실하게 믿으신다면 항상 예불을 올리는 것이 되고 항상 향을 피우고 탑돌이하는 것이 됩니다. 계를 받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실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몸뚱이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마음이 그러한 것이니까 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참된 예경이란 나를 낮추고 불보살과 선지식을 높이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일체 한마음과 더불어 둘이 아닌 꿋꿋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는데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기독교를 믿어서 드러내놓고 불자로 행세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마음으로 지극하게 가족들이 타력신앙에 빠지지 않게 한 생각 돌리시고, 그것 또한 공부의 재료로 삼으면서, 일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그게 바로 부처님께 경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구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답 무엇보다도 자기의 고정관념을 고집하지 말고 놓으세요. 고정관념이란 자기만의 좁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넓으면 세상을 다 알고도 남음이 있지만 좁으면 바늘 끝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늘 하심하고 늘 공경하는 마음이야말로 불법에 귀의하는 것이고 자유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늘 하심하고 마음이 넉넉하면 그 향기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설사 상대가 밉게 보이거나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몰랐던 시절의 나, 못났던 시절의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 모습이려니 해야 합니다. 저 풀벌레나 초목도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저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려거든, 그렇게 되고 싶으시다면 지극하게 마음과 마음이 상응하도록 놓고 관해 보세요.

물과 물이 섞이면 그대로 물입니다. '나'라는 생각을 놓고 한 생각 돌려서 하심하고 돌아간다면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시금을 정해놓고 애를 쓰시는 중이라는데 진정한 보시란 아다시피 무주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라고 하는 보시는 공덕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그것까지도 주인공에 맡기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셔야 속에서 공부를 하셔야 하겠지요.

경전을 열심히 읽겠다고 하시는데 경전은 길잡이입니다. 그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에 걸리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도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려하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려하는 폐단을 염려해서 입니다.

경전을 보되 글자를 보지 마시고 백지를 보세요. 그래야 경전을 바르게 대하는 게 됩니다.

"낮은 자기에 귀의하라" 뜻

문 31살의 남자입니다. 많은 고난을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우연히 '주인되시는 분의 존재와 그 분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깨달음과 저윽이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주인이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모자라고 낮은 자기 자신에 귀의하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르침 바라옵니다.

답 천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시란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나를 위해서 하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분명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주고 받았다는게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한 사이없이 한 셈이지요. 우리가 일체를 둘 아니게 생각하고 네 자리 내 자리, 네 아픔 내 아픔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보시라는 말조차도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를 해야 옳으냐, 많으냐 적으냐 하고 따질 일이 아니지요, 한 생각 일어났으면 그냥 한 사이없이 하면 그뿐입니다.

절에 안나가도 공부됩니까

문 초심자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라 법회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체만물이 다 가설되어 있다고 하시니 절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마음공부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전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법회에 참석해서 가르침을 듣고 예불을 보는 것은 아다시피 꼭 그래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스승도 없이 혼자서 공부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는 자만에 빠지거나 공부하다가 조금 콧김이 더워지면 '이만하면 됐지' 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량에 나와 하심하는 법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되새기는 게 좋습니다. 또 도량이 그냥 도량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부처될 자격이 있고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평등하지만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경우라면 스승을 따라서 배우는게 있습니다.

깨우친 스승은 누구하고도 한마음이 되어 상응할 수 있지만 깨우치지 못한 경우라면 아직은 제발로 걷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히 사정이 허락치 않는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생활 그 자체도 참선이니 그도 그것은 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도란 모든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인줄 알아 신통력까지도 내 근본마음자리에 돌려 놓아 무심이 되는 경지입니다. 거기엔 이미 내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문제조차 붙질 않는데 무슨 주인되시는 분이 있고 그 분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본래 고정된 것은 없고 찰나찰나에 나투고 돌아갈 뿐이라서 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한 것도 빌 공자 주인공이요 그 또한 이름이라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계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것까지 다시 놓고가야 합니다. 이 공부는 첫째도 내가 죽는 공부요, 둘째도 내가 죽는 공부요, 셋째도 내가 죽는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 '내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고 너 자신에 의지하라' 하신 것은 부처님이 하찮아서도 아니고 법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본래 높고 낮음이 없으니 높아뵌다고 높게 보지도 말며 낮아 뵌다고 낮게 보지도 말라, 오로지 너 자신 속에서 너의 근본성품을 발견하고 그 근본성품에 귀의하라 하신 것입니다. 흔히들 밖으로 찾고 바깥대상에 의지하려 하니까 안에서 찾고 안으로 귀의하라 하신 것이지만 본래는 안과 밖이 둘이 아닙니다. 무심이면 그대로 여여할 뿐입니다.

전생연인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문 최근 한 정신과 의사가 최면요법을 시술하던 중에 환자들의 질병이 전생과 연관되어 있다는걸 알고 치료에 이용했다면서 책을 펴 냈습니다. 이분이 또 두번째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환자가 전생에 자기와 4번이나 연인이었다면서 지금의 부인과 헤어지고 그 연인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처사가 하도 기막혀 스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답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인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전자에 겪었던 일들이 지금 내 잠재의식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서 현재의식으로 연방 튀어나오곤 하는데 저 녹음테이프를 지우듯이 나오는대로 되놓으면 전자의 의식은 녹아지고 맙니다. 그렇게 놓고 갈줄 모른다면 그런 잠재의식은 마치 산더미같은 노비문서가 되어 나를 묶게 됩니다.

그래서 노비로 살 것이냐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전생이 있느니 어쩌니 하면서 거기에 묶여 살면 꼼짝없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음을 걷는데 앞서의 발자국을 의식하면서 걷는게 아니질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아버지노릇, 어머니노릇만 하는게 아니고 아들이 되었다가 딸이 되었다가 때로는 동생도 되고 형도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자기를 딱 고정시켜 놓고 그 역할만 해야 한다며 고집하며 살아야 합니까? 본래 누구나 자유인인데 말입니다.

전생이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습니다. 그러길래 과거를 알려거든 현재의 너 자신을 보아라, 잠재의식인 부(父)와 현재의식인 자(子)가 상봉하는 도리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찬 김지양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和音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5신 410쪽
이시아문 퍼냄
값 5,000원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0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셨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부처님 말씀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

"21세기 디지털 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

'국난극복과 미래 자손을 위한 회향, 21세기 디지털 팔만대장경을 만들자'는 발원을 모은 사찰 후원법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3월 한달 동안에만 6개 사찰에서 후원법회를 개최했으며, 267가족이 후원을 약정했다.

3월 한달 6곳서 후원법회 · 267가족 동참

법회 후원인 명단

도안사 ▶법공스님 혜자스님 진성스님 ▶안종은(서울 금천구) ▶송현 정은경(경기도 고양시) ▶안미옥(경기도 의정부시) ▶조현곤 조현철 조현수(경남 김해시) ▶이윤현 조현욱 이정원 이도흔(경남 울산시) ▶허미애 이임수 정재현(서울 노원구) ▶정현직 이참숙 정재기 정재준(서울 노원구) ▶김승구(서울 용산구)

진관사 ▶김윤철 김양기 윤경순 김현철(이하 경기도 고양시) ▶윤미란 윤능희 윤강진 윤태희 ▶이영순 박주환 박광원 박미선 이현주 ▶김옥순 박윤환 박석원 박정미 박진미 박선미 박현미 최경아 ▶박정애 이기영 마추선 이윤신 이성민 이광수 안영심 ▶신경렬 김군자 신광균 신용균 홍미애 유의숙 이희철 이채은 이예진 ▶김성애 이정행 이건민 이건돈 ▶최원봉 이미옥 최지영 최찬영 ▶김문영 이경숙 김윤진 김성민 유지추 권주미 ▶조용심 조영자 허수재 허영유(경기도 구리시) ▶박정희 임정래 임규환 임미희 구본원 임미라 구형모 구인지(서울 강동구) ▶이인형 이재희 이노성 서아경 이문성 이현미 이현진 이기택 이기웅 이가영(이하 서울 성동구) ▶김갑순 정상직 정은상 정은호 ▶조현곤 정희정 조재환 조재영 ▶이영숙 최사옥 최미경 최종수 이용섭(서울 마포구) ▶한재숙 김지헌 김지영 이문조(이하 서울 서대문구) ▶김옥희 김기성 청정심 김래영 김래현 송철숭 ▶이영주 장정환 이성권 이금순 이금숙 이금선 ▶장동례 김항배 김종천 김희연 김인겸 김종영 김유림 ▶최원현 오정현 최중호 최중인(서울 서초구) ▶이창수 유부자 이지선 이지현 이승현(서울 송파구) ▶홍도식 김영준 홍혜인 홍성민(서울 양천구) ▶김수업(서울 양천구) ▶김종철 김혜선 김성민 김성정(이하 서울 은평구) ▶박상원 박치원 이원기 김민지 박주연 박소연 박성준 ▶이용두 이복점 이후근 이정옥 이정아 김태희 ▶김해두 이경자 김정재 김형준 김형민 ▶김유미 홍영백 홍정수 홍창수 최리라 유보현 고성수 김정미 ▶전규환 최인수 전길용 전홍석 전창민 ▶장태성 장용준 장혜연 장수연 장혜운 권수선 장준이 최소덕 ▶이명순 유원영 유정우 김지운 유승희 유정호 윤진수 유지성 ▶윤숙임 조현진 조현균 ▶윤승식 명금자 윤성욱 윤성택 윤성혜 ▶최귀옥 박상득 박정신 박성현 박성훈 ▶김혜경 장은봉 장문호 장준호 김대호 ▶김수웅 김민덕행 ▶최문정 장현태 장재영 장준영 장윤성 ▶정호양 이상배 ▶이수철 ▶이만수 곽용식 이인후 이경화 ▶양입분 양영환 김순희 양재국 ▶이춘주 허철조 허준 허란 허윤 ▶신순호 노순자 신문수 신문숙 박화순 신기식 ▶박화순 신을호 신상용 신승용 신혜지 ▶이문행 유향자 이지영 이소영 이지선 이준절(서울 종로구)

승가사 ▶이인남 최승용 이인남 최윤식 김연희 최호재 최정문(경기도 성남시) ▶정영주 박철 정영주 박성훈(경기도 성남시) ▶진재현 홍미선 진주연(경기도 안산시) ▶신영애(경북 칠곡군) ▶오범순 오범석(경기 부천시) ▶박경철 조남원 박선희 박윤성(서울 강남구) ▶김동욱(서울 강동구) ▶임춘하(서울 서대문구) ▶윤옥자 이삼락 목진호 목인수 목경미(서울 서대문구) ▶이은경 이용섭 이한솔 장옥환(서울 서대문구) ▶최순희(서울 용산구) ▶홍인경 양육 이혜준 양지승 양지연 신범철 양승혜 신동익 신아영(서울 종로구)

노적사 ▶장금숙 강가연 강주연 강대화(경기도 양주군) ▶이은경 김옥수 이부송(경기도 의정부시)

극락정사 ▶서삼술 윤성혁 박의호 윤참경 우영숙 윤보경 윤보성 윤보혁(서울 강남구) ▶이대근 우숙향 이경석 이동현(서울 강남구) ▶정영숙 백영규 형숙자 백승철 백승민 백수민 김용서 백명희 김민중 김민정 정문수화(서울 관악구) ▶김일륜실 신민태 신현일 박현숙 신현구 김소연 신의철 신승철 신병철 신경철(서울 관악구) ▶차민석 장순례 차재윤 서선례 차현우 김미해 차정우 차현정(이하 서울 동작구) ▶서청원 ▶오실상화 이철재 이충호 이현민 이충선 이태민 이소영 이충길 이수정 이송이 ▶보칠스님 진귀님 변동욱 박옥자 변고관 변기록(사자암) ▶박영순 홍순목 홍준모 홍성표 홍인자 박영순 ▶오명숙 박용근 류경식 오명숙 류승우 류승희 ▶우종생 서보현심 우유택 남미경 우수현 우경원 우동민(서울 서초구) ▶심재문 왕효식 심재문(서울 서초구) ▶류신행월 오문현 오제철 오태복 오승욱(서울 서초구) ▶차재선 박예순 박소미(서울 성동구) ▶서영분 허만 허용구 허미선 심말선(서울 성동구) ▶허숙 최규복 최규동 최정욱(서울 성동구) ▶홍순조 홍기표 정옥순(이하 서울 성북구) ▶정종철 ▶조진호 ▶조영악 박신영 이문호 ▶권태자 최세경 ▶최갑섭 최대우 ▶차귀만 오암전 차인덕 우현숙 차동준 차지은(서울 송파구) ▶소진승 박상백 박노진 박노환 박민선(이하 서울 영등포구) ▶황선호 신찬호 신달수 신한수 ▶이택기 박숙자 이석구 이영혜 이사원 ▶홍복남 한재민 박명혜 한지원

삼성암 ▶김배격 김정남 김제훈 김영선(서울 강남구) ▶이재완 김보각성 이영진 김정아 이주연(서울 강남구) ▶박은화 오세종 오주현(서울 강동구) ▶임정선 민혜림 민지훈 민영근 (서울 강동구) ▶김종순 박남규 박재우 박재복 박재준 박세진 박정진 박경진 박영진 박혜성(서울 광진구) ▶허승구 이정희 허두진 허의재 허연재(서울 금천구) ▶지경철 김영숙 지정연 지기석(서울 노원구) ▶이복순 김연홍 김명식 김광식(서울 송파구) ▶정영인 노혜정 정성헌 정재엽 정휘엽(서울 중랑구) ▶윤윤석(인천 남동구) ▶이경연 황선정 황지현 황수현 황순일 ▶김후영(인천 부평구) 김후영 김석박청자 김세윤 안지현 김지수 김하성(인천 부평구) ▶권여택 권이범 최용욱 정상미 권예슬 권예지(이하 제주시) ▶권세현 조현주 권소정 권미정 권영훈 ▶백희탁 양치배 김미령 백효종 백주희 ▶윤미란 김연희 윤무실(충남 보령)

천축사 ▶고경숙 이보람(이하 서울 도봉구) ▶박은희 박성완 박재현 박선양 ▶이정금 김성근 김은덕 김진형 ▶황선각 김일명 황이리영

가족 후원인 명단

서울 ▶연순옥 박병식 박성원 이보비(이하 강남구) ▶송영재 박정숙 송민정 송승아 송민수 송종원 ▶홍금숙 강유모 ▶강남국 한서은 강우일 강민재 ▶강남홍 김미영 강우태 강우성 ▶강원준 조수연 강윤호 강민수 ▶정현석 한명희 정광연 정일석 정한석 ▶김정남 ▶김근수 ▶김상한 이희숙 김후동 ▶유성준 유한종 유석종 유진종 유경숙 유희숙 ▶박영숙 맹정호 맹지훈 맹지혜 맹지연 ▶송병우 임후분 송기헌 송정헌(이하 강서구) ▶정홍렬 신현수 정지윤 정성원 ▶고선이 이정호 이승욱(이하 관악구) ▶김인숙 황사수 황병무 황병호 황병기 ▶신태호 박광자 신경수 신정수 신성수(광진구) ▶최상권 이미자 최재혁 최재훈(이하 도봉구) ▶최진성 장을년 최필기 최우일 ▶김옥희 고형곤 고세욱 고세범 ▶오경석(이하 동작구) ▶한순난 손용헌 손재우 손재진 ▶수정화 ▶이의재 ▶임재현 ▶민태희 한준호 한상희 한상윤 한종희(이하 서초구) ▶정인순 ▶심월화 ▶김대만 조용화 조우정 조소정(이하 송파구) ▶국형철 이희숙 국경학 국인영 ▶김상갑 김희순 김상갑 유승희 김경훈 김은정 ▶류창선 서정숙 류제혁 류혜영 ▶김인주 박현정 김재윤 ▶신광철 박미자 신동범(이하 영등포구) ▶조영단 조영숙 조수영 조영미 조영덕 김영철 유영만 조창열 ▶백우현(이하 용산구) ▶김상훈 김찬익 이미자 김세희 ▶정순자(은평구) ▶김세진 김정옥(이하 종로구) ▶두병호 장연심 ▶김철환 부주재 ▶최욱 ▶진현 김정순 진윤희 진은이 진하영 진해영 진하숙 진민선(중구) ▶이난숙 김용근(이하 광진구) ▶김순희 ▶현용주 (노원구) ▶최혜경 김경수 김재민 김재현(마포구) ▶한성수 김미자 한소희 한소리 한승모(성동구) ▶정주헌 신미현 정은화 정은욱 정은빈(성북구) ▶이순자 우희운 우원규(이하 중랑구) ▶원종욱 박명선 원동연 원영회

부산 ▶김복남 박종복 박상훈 박상준(남구) ▶윤용수 김선애 윤종호 윤대근 윤지원(동래구) ▶허점돌 이상욱 이석빈 이명신 이윤정(사하구) ▶조승호 홍계주 조원서 조원철(연제구) ▶김병조 이향미 김보형 김보미(영도구) ▶박백광월(금정구) 엄기복 김정분 엄기주(금정구) ▶서진준 조춘자(진구) ▶허갑성 이분삼 김진희 허원진 허유진(북구) ▶이용갑 윤연희 이도원 이도경 이승열(서구) ▶이현정 허숙(서구) ▶유상현 김연순 유석만(서구) ▶정영숙 이상권 이찬식(수영구) ▶전화식 신영순 전혜정 전효선 전연희(진구) ▶홍정아 곽부수 곽동기 곽동원(이하 해운대구) ▶박광하 안길수 박무곤 김경덕 박경봉 박거봉 ▶하가선 정창길 정세용 정하석

경기 ▶김효성 박천기 박효성 박겸(고양시) ▶이효구(고양시) ▶허학수(구리시) ▶하종은 김갑소 하정일 하지순 하태규(구리시) ▶임점순 임보덕 행 이대승심(군포시) ▶원창호 원정호 조명애 원성훈 원성희(동두천시) ▶천병철 천옥인 조경진 천대웅 김고은 천재현 천우현(부천시) ▶송명희 감승한 김춘한 김주한 김태한 김평동 김윤동(부천시) ▶변성란 원종섭 원대연 원정연 원창연(부천시) ▶조정연 김수만 김종완 김종재(성남시) ▶조현장 정봉아 윤성원 조대영 조희정(성남시) ▶이승해(성남시) 현채순 박기한 ▶현채순 박상혁 박상준(성남시) ▶윤영식(송탄시) 이대호(이하 수원시) ▶이종구 ▶조연신 ▶이현재 ▶이종길(안산시) ▶금현주(이하 안양시) ▶혜량스님 ▶김경자 ▶업금용 김인숙 업태경 업보경(이하 용인시) ▶남익수 전선자 남원남 남효원 ▶김정필 심재경 심은지 심현보 ▶차무항(평택시)

경남 ▶최귀묘(김해시) ▶김선장 전정민(양산시) ▶박문규 전선재 박종언 박종후(양산시) ▶이자윤 허필순 이선정 이효(진해시) ▶김차선 최낙건 박유의 최재봉 최용길(창원시) ▶정종호 김선희 정우성 정우진(창원시) ▶보문스님(합천군) ▶권영현 권재욱 김관점 권성현 이미숙 권호연 권호선 권효일(거창군) ▶이양래 허미선 이진숙 이창렬 이영구(고성군) ▶박기섭 박수진 박태진(이하 마산시) ▶이영리 이옥정 이현석 이연주 이은희 ▶송정숙 강현진 ▶곽미화 최인백 최상근 최정우(사천시) ▶제종범(통영시)

경북 ▶김철수 김명식 백영자 김영수 김현수 김정안(김천시) ▶정경하 권영욱 정자재성 권오경 권민정(이하 안동시) ▶감호 박경자 정태하 ▶김상동 김갑남 김관현 김금현 ▶윤귀석 이순애 윤지윤(이하 포항시) ▶김영희 이광희 이재준 이재민 김우연 이상원 김경화 ▶정분이 ▶민경석 ▶정영미 ▶심혜순 심일섭(경주시) ▶이수용 이진실 이형조 이홍조(구미시) ▶김종진 한혜정 김지현 김민범(김천시)

광주 ▶김포심 이정길 이철균 김양숙 이영옥 이원석 이현승 이진희(동구) ▶이재옥 문정숙 이형주 이명선 이용선 이종연 김미숙 이민선 이창호(동구) ▶김준순 양금승 양기호 양기연 양동필(북구) 김숙자 최형남 ▶김숙자 최용석 최경석(북구)

대구 ▶김귀연 김순남 김병국 김태윤(남구) ▶윤언년 김옥출 석태호 석성희 석세희(수성구) ▶최해옥 최대도 행 배문정(남구) ▶김정희 성하경 성채원 성상윤(달서구) ▶임영일(북구) ▶정재진 이복영(북구) ▶정성복 이명희 정재민 정성균 정덕균(수성구) ▶윤준삼 윤봉주 윤정화(중구)

대전 ▶조승윤 이영순 조아영 조소영(유성구) ▶오승민 오명수 석옥련 오선희 오용석(동구) ▶최정관 권수옥 최은누 최누리 최준혁(서구) ▶최정택 하홍순 최기화(중구)

인천 ▶윤동근(강화군) ▶임병동 김숙희 임주환(서구) ▶정금섭 조서연 조은비(서구) ▶임종일 정예순 임효택(이하 남동구) ▶임원규 박갑분 임종길 이옥순 임진환 임지연 ▶강윤호 임남숙 강소연 강영훈 ▶이윤선 김병권 김미라 김재윤 ▶최금자 이종석 이계현 이계린 이필호(북구) ▶갑태식 갑태영 김영옥(계양구) ▶감용준 임미원 김호정

※나머지 명단은 추후 게재합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02)3785-0632~5
PC통신 유니텔 · 하이텔 팔만대장경 포럼(Go K80000)

캠페인 참여 권유의 말

"국난극복 염원 전산화에 결집"

종후스님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은 국난극복의 의지와 우리 민족의 안녕이라는 염원을 담은 국민적 불사였습니다. 이제 그 불사가 21세기를 향해 다시 태어나는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만든 문화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자비정신의 시작입니다.

정보화시대, 팔만대장경 속의 부처님 말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법보시, 바로 고려팔만대장경을 세계가 함께 보고 이를 널리 알리는 불사이기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불사입니다.

저희 사찰 신도님들의 조그마한 동참이 팔만대장경 전산화 불사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후원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전산화의 원만성취를 함께 기원합니다. 〈노적사 주지〉

"뜻모아 미래포교 바른길 제시"

몽월스님



고려대장경 전산화는 후손에게 남겨주는 가장 뜻깊은 불사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세를 위한 불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불사라는 생각에 흔쾌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중에서 진행중인 사찰 불사가 있음에도 우리 신도님들이 쾌히 동참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고려대장경을 사랑하는 참 불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IMF라는 힘든 경제적 고통 속에서 불법을 바로 세우고, 널리 후손에게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를 자비로 묶는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차 고려대장경이 미래포교의 바른 길을 제시하며, 모든 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우리 시대의 큰일꾼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발원을 해봅니다.
〈극락정사 주지〉

독자마당

독자여러분의 글 · 사진 · 단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특정종교 비하성 발언 공중파TV서 방송 불쾌

공중파TV 방송은 전국민이 시청자인 만큼 모든 부문에서 공정하고 보편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 제작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 3월5일 아침8시에 방송된 SBS-TV '출발, 생방송 모닝와이드'에서는 서울대공원 김정만박사가 대구 소싸움을 소개하며 그 유래가 분명치 않다고 말하자 리포터가 '절도 중도 아니다'는 저속한 비유를 들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설명했다.

불자로서 분노를 느껴 방송이 끝난후 담당PD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특정종교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며 "생방송중 리포터의 즉석 멘트라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변명만 늘어 놓았다.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속어나 비어, 특정종교를 격하시키는 말들은 철저히 삼가 했으면 바란다.

장화숙〈서울시 강남구〉

스님품위 해치는 대사 드라마 방영전 삭제를

3월22일 MBC-TV에서 오전9시에 방영된 일요아침드라마 '사랑밖엔 난몰라'에는 스님의 품위를 격하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날 드라마에서는 극중 아버지(이순재 분)가 "나도 랩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부인(윤여정 분)이 "랩이 뭐냐?"고 물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김영옥 분)는 "비맞은 스님이 중얼중얼 염불하는 거야"라고 설명했다.

외국에서 건너온 노래인 랩송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상관도 없는 스님이 왜 불쑥 거론되는가. 드라마 전개상 전혀 관계없는 특정종교의 성직자를 비하 하면서까지 웃음을 유발하려하는 우리나라 방송 현실에 우울감을 느낀다.

드라마를 비롯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말, 품위있는 표현 등으로 건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김명화〈경기도 여주시〉

수행 정진에만 힘쓰게 스님 노후대책 보장을

불자로서 불교계를 둘러보면 가장 시급하게 생각되는 것이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한 노후 보장책 마련인 것 같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걸림이 없어야 한다. 스님의 노후보장이 잘되어 있다면 마음놓고 수행에 매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실버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적어도 스님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행자들이 입는것 먹는 것 살곳 걱정 없이 정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재가불자가 할 일이 아닐까.

장인식〈하이텔 JBMHAA〉

무속인 불상봉안 반대 불교가르침 왜곡 우려

누구든 불상 모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그 부처를 모시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처님을 모셔놓고 불자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세무민하며 점이나 치고 굿이나 하는 그들은 그 대가로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받아 챙기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폐해는 부처님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들의 생활이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의 인식까지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는데 있다.

부처님이 복을 주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보면 결국 그 과보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명택〈경기도 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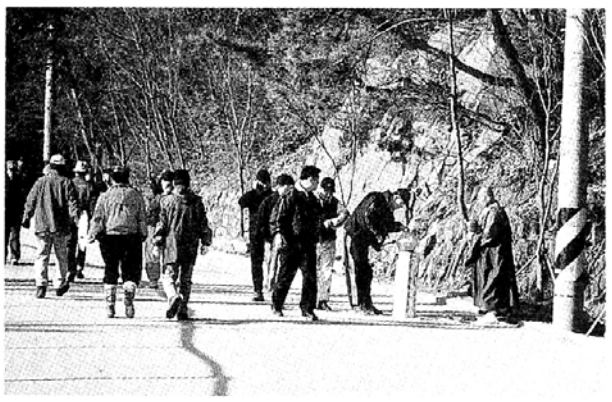
재정악화 교계 방송국 통합으로 살길 모색을

요즘 들리는 불교방송과 불교TV의 재정난 소식에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다양한 장르의 볼거리와 들을거리들이 범람하는 현 시대에 불교방송과 불교TV는 종단의 지원하에 통합해 매체의 특성을 살려 범 불교인의 방송 매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통합이 되면 인건비, 제작비 절감 등으로 재정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다.

또 불자들이 우리들의 방송국이라는 주인 의식을 갖게 돼 기존에 양분됐던 지원금도 한 창구로 단일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기숙〈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탁발금지 풀렸나(?)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관악산에 오르던 길에 탁발하는 스님을 봤다. 조계종에서는 개인의 거리탁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조계종 스님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리탁발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김재현〈서울 종로구〉

독자시

부처님이 나신 땅

부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시건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죽은 부처만 찾고 있다네

부처님은 이 땅에 나투셨지만
자기가 스스로 부처이기를 포기하고 믿는다 하고
자기가 알고나서 믿는다고 하여
산 부처를 죽은 부처로 만든다네

부처님과 자기가 둘이 아니건만
공짜가 없다는 것을 몰라 탐욕에 물들고
미워하는 마음 다스리지 못해 성냄에 물들고
'나' 잘났는 마음 꺾지 못해 어리석음에 물들어
스스로가 부처님임을 모른다네

부처님은 만물만생을 함해도 한분이건만
'나'라는 생각이 있어 분하고
'나'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여 고통을 받네
'나'가 없어지면
모두가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한 부처가 된다네

이광빈〈서울 강남구〉

산승이 바라는 한국정치

우향스님 기고



산승은 IMF시대에 즈음하여 헛소리를 글로 옮기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한국 경제 난세가 걱정되어 몇마디 말도 안되는 등불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각자 다양한 성씨를 가졌지만, 뿌리는 하나인 한 민족이다.

그런데 대다수 기업인과 정치인이 하심하지 않고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서 내 이익만 챙겼으며,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이바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데만 힘쓰고 문어발식으로 사업만 확장하니 국민 모두가 고통만 되지 않았는가?

경제 위기의 원인은 바로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습성에서 왔다고 본다. 각자가 짓는 업에 따라 각자가 받는 업보가 있지만, 한 사회 한 국가 전체가 받는 인과는 공업중생 전체의 책임인 것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종교인이 많은 나라도 없는데 국민의 대다수가 종교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긴 이면에는 종교인의 책임도 있다고 보아진다.

미래한국의 경제발전 위상을 끌어올리는 길은 오직 국민 모두가 애국심을 가지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와 화해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우리조국의 민심은 세계 방방곡곡에 밝은 횃불을 밝히고 우리 국민은 저 언덕을 넘어 세계 평화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국민 스스로가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하며 향락적 과소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서로가 상부상조하여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진정으로 대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여 서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된다.

셋째, 국민 모두의 대중화합이다. 자타가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지 말라. 상호간의 충분한 대화 속에 진리가 있으니 민주화가 성취되면 과감히 시도하라.

넷째, 일체 사무을 살피되 소홀히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성의 눈으로 사물을 살펴라.

다섯째, 사사로운 시비로 일들을 그르칠 수가 있으니 서로 양보하고 신뢰를 쌓아 정진하되 삿된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지나간 잘못을 과감히 용서하라.

여섯째, 진심으로 친절하라. 가정과 사회에서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친절하라. 친절은 온 집안의 화목이 점차적으로 발전할 때, 재산 · 명예 · 부귀 · 공명이 들어오는 문이다.

불가에서 가르치는 중도와 화쟁의 논리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여 중도의 사상을 가르쳐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간하고 그렇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서로 용서하고 자타가 화해 · 화합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에게 덧붙이고 싶다. 앞으로 정치인은 세계인의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정치보복을 해서는 안된다. 지난날의 과거를 뼈저리게 교훈삼아 절대로 보복없는 화해 정치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천은정사 주지〉

불자 세상보기

실업자 급증… "고통분담 최선책"

공무원 봉급 20~10% 삭감 실업대책비로
종교·시민단체 "서로돕는 세상 가꾸자"

공무원도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

정부와 여당은 3월23일 당정협의회에서 장·차관 20%, 1-3급 15%,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10%씩의 봉급을 삭감, 약 1조2천억의 재원을 마련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실직자들의 실업대책비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도 긴축과 내핍을 견디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은 물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정부투자기관등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외계층이 된 실업자의 부조(扶助)에 사회각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수 있기 때문. 더욱이 IMF체제가 1백여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흐트러지고 있는 내핍을 통한 위기극복 정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봉급에 대한 전면적인 삭감조치는 정부수립이후 처음있는 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삭감 보다는 반납조치를 희망해 왔으며 지난 3월23일 행정자치부 소속 4급이하 공무원 2백여명은 회의실에 모여 '봉급 10%반납'을 결의 했다. 또 서울 은평구는 희망직원에 한해 4월부터 봉급에서 1만원씩을 거둬 6개월 동안 실직자 가정에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랑의 봉급 나누기 운동'도 벌인다.

공무원의 봉급 삭감을 계기로 사용자와 근로자 등 시민들의 고통분담이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일시적인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유-무급휴가 등의 방법을 통해 종업원의 해고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종교·사회단체들도 고용보험이 보호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부조의 차원에서 복지지출을 확충하는등 전국민적 지원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3월13일 종로일대에서 '자비의 탁발' 행사를 벌여 4천여 만원의 성금을 모으는등 전국적으로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대법회'를 열어 모금액의 상당액을 실직자를 위해 쓸 예정이다.

또한 백양사는 실직자를 위한 불교귀농학교를 , 동화사등 10여개 사찰은 IMF쉼터를 개설해 재기를 돕고 있다. 기독교계와 MBC등 방송사도 실직자 기금 모금에 나서고 있어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계기로 온국민의 '고통 나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봉급 반납결의

3월23일 오전 행정자치부 14층 회의실에 모인 행자부 직원 2백여명이 4월부터 봉급 10%를 자진 반납키로 결의하고 있다.

종교의 눈 "사섭법 실천 더불어 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3월22일 관악산 연주암(주지 자승) 주최 '한마음공동체를 위한 대법회'에 참석, "깨닫고 보면 나와 이웃과 삼라만상이 둘이 아니다"면서 "실직자등 불우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성금모으기에 동참, 사회구제운동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서울시청불심회 조정봉 상임지도법사(감사관)는 "공무원의 봉급삭감이 각 가정에 안겨주게 될 어려움이 적지 않겠지만, 보너스 반납은 물론이고 기본급 삭감까지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는 근로자의 아픔을 생각할 때 공무원들도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방등경〉

복지부 노숙자에 귀향·급식비 지급

서울시 '노숙자 재기 합숙소' 추진

4월 1일부터 도시노숙자(Homeless)들에게 무료급식과 귀향여비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IMF사태 이후 직장을 잃고 집을 나온 노숙자들이 전국적으로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4월부터 10개월간 2천원 상당의 점심을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가 운영하는 급식소를 통해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불교계는 조계사를 비롯 17개 무료급식소가 적십자사에 예산 지원을 신청) 또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상경한 노숙자들에겐 귀향을 원할 경우 1인당 2만원의 귀향여비를 지급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실업 노숙자들을 수용할 '홈리스 재기 합숙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강덕기 서울시장은 3월23일 "60년대 서울역 근처 남영동에 있었던 '근로자 합숙소'를 본떠, 노숙자들이 재기할 기간 동안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숙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심리학교수들 '실직자 봉사단' 발족

연세대 심리학과 이훈구교수는 3월23일 대규모 실업시대에 실직자와 그 가족들의 무료심리상담을 위해 전국 모든 대학 심리학과가 참여하는 가칭 '심리학 봉사단(02-361-2437)'을 이달말경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 모든 대학과 사설상담단체 등 43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심리학 봉사단'은 실직된 뒤 불면과 자살유혹 가정불화에 시달리는 실직자와 그 가족의 심리치료에 나서게 된다.

경실련-환경연합 10만명 고용창출 '산림가꾸기' 추진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추진위원회'는 3월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산림자원 조성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실업자 10만여명을 흡수, 국유림을 포함한 30만ha의 숲에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버섯채취등의 산림작업을 펼치게 되는 대규모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4월 3일에는 나무심기와 묘목나눠주기 행사도 연다. (02)741-7961

어머니에 신장기증한 여고생

충남 논산 건양고 1학년에 재학중인 이명인(이명인·16)양은 지난해 11월 악성 신부전증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어머니(홍선자·홍선자·38)에게 한쪽 신장을 제공, 삶을 되찾게 했다. 이양은 당시 딸의 몸에 칼을 댈 수 없다며 한사코 신장이식을 거절하는 어머니를 간곡히 설득, 수술을 받도록 허 주위를 감동케 했다. 오재욱 충남교육감은 3월18일 이양에게 효행상과 격려금 20만원을 전달했다.

교수 미망인 장학금 1천만원

지난 2월초 중풍으로 숨진 서울대 농화학과 박창규(당시 64세)교수의 미망인 장옥희(54·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씨가 서울대에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내놓았다. 장씨는 박교수가 지병인 중풍으로 사경을 헤매던 지난 1월말 학과에 "남편의 후학들을 위해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최근 농화학과 학술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서점주인 책 13만권 기증

대전의 한 소형서점 주인이 각급 학교와 학생도서관 등에 20년간 모두 13만 여권의 책을 기증해온 사실이 밝혀져 화제다. 대전시 중구 대흥 2동 대전시청 앞에서 대영서림을 운영하는 정낙영(53)씨는 지난 2월 대전과 충남도교육청을 통해 춘원 이광수의 소설 〈흙〉등 2백여가지의 책 1만여권(5천여만원 상당)을 기증하는 등 올해로 20년째 해마다 각급 학교의 도서실 등에 책보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백혈병 이웃에 1백명 헌혈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해강아파트부녀회(회장 이정희, 0523-386-0607)는 같은 아파트 3동 1008호에 거주하고 있는 성영옥씨(35·여)가 올해초 백혈병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하자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로 하고 집집마다 성금을 모으고 있다. 부녀회는 이와 함께 헌혈운동을 전개해 1백여명이 지난 3월21일 오후 아파트 광장에서 헌혈을 실시했다.

여중생 4명 동반 투신자살

여중생 4명이 고층아파트에서 투신, 동반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월25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한신아파트 123동앞 콘크리트 바닥에 임모양(16·J여중3년)등 같은 학교 3학년 학생 4명이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5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임양 등은 긴급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투신 현장상황과 유서내용, 학교관계자의 진술로 미뤄 이들 여중생이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사 소비자파산 첫 신청

소비자파산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 처음으로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했다.

일반외과 전문의 김모씨(37·부산 남구)는 94년 5월 개인병원 개업시 은행에서 3천만원을 빌린데다 친구가 사업자금 8억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줬으나 이 회사가 부도가 나는등 총 9억3천만원의 빚을 떠 안게 됐으며, 이중 7천여만원을 갚았지만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어 3월23일 부산지법에 소비자 파산을 신청했다.

이렇게 들었다

우리사회의 집단과 개인 이기주의는 이제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서울 시민에게 산지 직송으로 싼 값에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96년부터 추진돼 온 '학여울역 농수축산물 전시 판매장' 설립이 강남 지역 주민과 상인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집단이기주의에는 속수무책임을 보여준 사례다. 또 얼마전에는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은행이 명퇴자에게 최고 3억원의 위로퇴직금을 지급해 기관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정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국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편집자 주〉

이기주의 만족할줄 모르고 허덕이면…

▨마땅히 나와 남의 생각 버리고 흡로 거처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닦아 욕심 없애어 더러운 냄새 없게 하여야 제석 하늘에 태어날 수 있으리. 〈불설장아함경〉

▨아난아, 마땅히 알라. 애(愛)를 인하여 구함이 있고 구함을 인하여 이익이 있고 이익을 인하여 씀이 있고 씀을 인하여 욕심이 있고 욕심을 인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을 인하여 질투가 있고 질투를 인하여 지킴이 있고 지킴을 인하여 보호가 있다. 아난아, 보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칼과 막대와 송사가 있어 무수한 악을 짓는다. 〈장아함경〉

▨공론이나 논쟁이 있는 곳에는 온갖 번뇌가 많이 일어나게 마련이니, 슬기로운 사람은 응당 이를 멀리해야 한다. 〈대보적경〉

▨괴로운 일이다. 중생이 탐욕에서 허덕이는 저 꼴은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그들이다. 이런 속에 즐거움은 적은 반면 괴로움이 많을 것은 당연하매, 지혜있는 자라면 능히 깨닫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정생왕인연경〉

▨부처님께서 바라동산에 계실 때였다. 어느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대개 이익이라는 것은 사람을 나쁜 곳으로 떨어뜨려 깊은 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수행자는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이익에 매달리면 오분법신(五分法身)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증일아함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대중들이 다투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큰 뜻을 가지고 출가하였는데 어찌하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탐욕을 일으키고 성내고 다투어 서로 미워하고 혼란에 빠지느냐. 그것은 마치 어둠에서 나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감이고, 변소에서 나와다가 다시 변소로 들어가는 것이며, 피로써 피를 씻으며, 악을 버렸다가 다시 악에 빠지는 것과 같느니라. 어찌 그 많은 생각 가운데 탐욕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에 매달리느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잡아함경〉

새상품

'연지곤지 우리옷'

명절 뿐만아니라 평상시 일할때나 외출할 경우에도 입을 수 있는 개량한복 '연지곤지 우리옷.'

전통한복의 느낌을 살려 캐주얼하게 현대식으로 디자인한 이 제품은 땀흡수가 잘되는 면을 소재로 사용, 운동할 때나 불자들의 기도 정진시에 유용하게 입을 수 있다.



옷은 각 계절에 따라 저고리, 바지, 속적삼, 원피스, 두루마기 등 10여종이 있으며 색깔은 20여 가지 이상이 될 정도로 다양하다. 가격은 8~11만원. (02)3461-8552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괄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 45Cm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걸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갈아놓았던 동관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불자님을 위한 전문 광고회사

광고다운 광고!

"광고전문가와 만나십시오"

광 고는 해야 하는데 아무곳에나 맡길 수도 없고, 아시는 광고회사도 없으십니까 ?

고 생고생해서 시작한 사업을 광고(카다로그 광고전단) 잘못으로 낭패를 보시겠습니까 ?

전 화 주십시오 ! 돌이 아닌 한마음으로 불자님의 광고를 전담해 드리겠습니다.

문 제를 해결하고, 경쟁사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생생한 광고를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가 장 큰 광고회사는 아니지만 근본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광고회사 애드·윌 입니다.

※ 인쇄 관련 모든 광고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기업홍보 브로셔, 제품 카다로그, 리플렛, 상품전단
- C·I, B·I 메뉴얼, 심볼.로고작업, 특수인쇄
- 신문광고, 잡지광고, 포스터, 카렌더, P·O·P

ADVERTISING WILL 元希 합장

광고문의 : (02) 512-8868 · 8869

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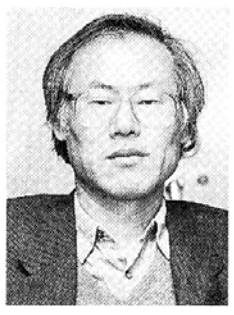
국민은 뒷전인가

요즘 북풍공작 사건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되고, 언론들은 사건의 본질을 다루기 보다는 관련정치인이 누구인지, 권영해의 자해행위가 자살기도인지 등 선정성 위주로 다루고 있어 정작 1백만에 가까운 실업자의 생존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에 대한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북풍논쟁 몰두 실업문제등 민생 소홀

국민들은 북풍공작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기해서 IMF와 실업자의 삶의 문제에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에너지가 집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북풍공작사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이 일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 · 사회학〉

우리는 과거 수십년 동안 선거만 되면 공안정국, 간첩사건, 북풍, 빨갱이 마녀사냥 등이 주기적으로 계속되어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이 승리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풍공작과 같은 정권안보를 위한 공작이 이제까지 자행되어 왔지만 정권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은폐되어 왔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규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화, 정치발전, 인권보장 등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었던 정권안보용 공작정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흐리는 정치공세 등에 비판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북풍공작에 최소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구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반성과 자숙을 하기는 커녕 북풍공작에 대한 수사를 마치 '야당탄압'이나 '정계개편의 수순'으로 몰아붙여서 검찰의 수사방향에 흠집을 내어 사건의 본말을 전도하는 행위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은폐기도 등의 반개혁음모를 간파해야 할 것이다. 실업자 문제 등이 중요하지만 경제문제 때문에 이 북풍공작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의아니게 반민주세력과 수구세력의 숨겨진 반개혁 음모를 지원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북풍공작에 대한 수사방향이 '진실규명 차원에서 조용히 수사한다'는 방침대로만 진행되었더라면 전혀 실업자 문제 등 경제문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본질을 호도하고 정치공세를 펴면서 정쟁거리로 만든 것을 간과한 채 정치권 전체를 양비론적으로 몰거나 사상논쟁만을 재연시킨다면 개혁전반을 파국으로 몰고가 IMF극복의 경제정책도, 실업자 생존권 보호문제도,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문제도 모두 망쳐 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새 정권의 통일정책은 인위적 대북흡수통일정책이 아니라 남북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 통일이다. 과거 정권은 정권안보차원에서 북한을 앞세워 왔다. 적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던 대북공작은 이제 근본적인 방향 선회를 하여야 한다. 오히려 대의 산업정보업무나 남과 북을 아우르는 민족안보를 중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목적지향, 곧 대외정보 중시에 맞게 안기부의 전면적인 물갈이는 필수적이다.

이 문제로 대북관계가 경색되어서는 안된다. 이제까지 남과 북은 공작과 역공작의 연속이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은 물론 상호 적대감만 증폭시켜 왔다. 남과 북은

나라 망치는 대북공작 이제 방향 선회하자

50년간 적대관계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통일의 그 날까지 남북간에는 아주 사소한 다툼이 줄지을 것이다. 그때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버리면 이야말로 빈대가 성가셔서 민족통일의 큰 집인 초가삼칸을 불태우는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다. 서로 인내하고 작은 일은 작은 일로 처리하는 민족적 예지를 통일의 그 날까지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북풍공작사건 해결에 올바른 해결방향을 가질 때 실업자의 문제도, IMF 극복이나 민주주의 문제 등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바탕으로 착실한 진전을 기할 것이다.



◇새 정부 인사를 두고 종교편향적이라는 불교계의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인재등용에 종교까지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와 더불어 불교계의 '사람키우기' 자성론도 일고 있다. 3월16일 김대중대통령이 주재한 첫 경제대책조정회의.

'국민정부' 각료 18명의 종교별 분포는 개신교 8명, 천주교 4명, 불교 2명으로 밝혀졌다. 특히 종교관련 부서인 문화관광부 장관에 개신교신학자가 임명된 것에 대해 불교계의 우려가 있었다. 여기에 전통사찰의 유지와 관리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까지 개신교 집사인 것으로 알려지자 불교계의 우려는 분노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시각은 정부인사를 하며 종교까지 따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하며, 차제에 인재양성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자성론도 있다. 극민정부의 인사와 관련, 불교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열린마당

새 정부 인사와 종교편향

기독교인위주 인사 과거정권 답습

무관 〈동국대 석림회장〉



종립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는 최근 단행된 각료인선과정에서 특정종교가 배제되어온 점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 이어 불교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개신교 인사를 내정했다는 것은 김대중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언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에 불교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불교계의 입장이 반영되었는가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전통문화 보존의 최소한의 의지마저 저버리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든다. 어느 기구의 대표이든 대표가 갖는 권한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누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전이사장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분리징수하겠다고 말해 불교계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다. 당시 이사장의 불교계에 대한 이해부족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다.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는 여-야간의 정권인수 차원의 의미를 넘어 그동안 기득권 세력에 의해 조성된 부조리와 부패문화를 하나씩 해소해가는 것과 국민, 지역, 종교간의 화합을 통해 올바른 정신문화를 창출하고 국민대화합을 실현하는데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정종교를 배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보다는 이해에 천착한 각료인선은 정권 교체의 올바른 의미를 새기지 못하는 것이며, 과거 정권이 행한 종교편향을 답보하는 행위이다. 이에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안목, 충분한 식견을 가진 사람을 선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종교간 형평성 최소한 유지해야

김춘길 〈전불련 집행위원장〉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불교계에서 우려하던 바가 나타나고 있다. 신임각료 인선과정에서 나타난 종교간의 형평성 문제가 김영삼정부 출범 초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불교계는 김대중정부에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기간중 김영삼 전대통령처럼 자신의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더러, 오랜 기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합리성에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불교계는 그런 기대 못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 문화를 총괄하고 종교업무를 책임지는 문화관광부 장관에 기독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임명되었고, 불교계와 밀접한 이해 관계를 가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개신교 집사이며, 사설 묘지 사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내정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불교계 여러 단체들이 새정부 인선에 나타난 특정종교 편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인사를 볼 때 과연 김대중정부가 내세웠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등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었다. 각료 인선에 종교간의 균등한 배분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종교간의 형평성을 최소한이나마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처나 공단의 책임자는 전통문화에 대한 정서와 이해를 가진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립공원의 많은 부분이 사찰 재산이고, 국립공원의 유지는 전통 사찰의 문화적 보존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에 다름 아닐진데, 여기에 불교인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기독교인이 임명되었다면 누가 보아도 부당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인재등용에 종교까지 따지나

김재일 〈동산반아회장〉



대한민국 정부수립 50년만에 첫 정권교체를 이룩한 새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새정부의 내각과 정부요직에 불교계 인사는 거의 없다. 심지어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화관광부 장관에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마저도 개신교 인사가 내정됐다는 보도다.

'국민의 정부'를 내세운 김대중정부가 종교를 따져가며 인사를 했을까. 국가경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정부인사를 두고 종교까지 따질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과거 정권의 기독교 일색의 편중된 인사 결과 정부와 불교계가 갈등을 빚었던 사실이 있어 의구심마저 거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우리 내부에서 찾아볼 일이다. 불교인들이 정부수립이나 자치단체장 탄생에 관심이 미약했다는 것도 문제다. 불교적 소양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후원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불교계의 국가 지도자 양성 내지 후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불교정신을 가진 지도자를 양성하고 후원해 불교계에 유리한 정책을 펴낼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다.

이번 김대중정부 인사에서 경실련에 참여했던 김성훈 김태동교수의 입각은 우리 불교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들은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해 학문의 성과를 현실에 반영했고, 현실참여를 통해 자질과 개혁성을 검증받았다. 그러나 불교인의 참여는 아직도 많지 않다. 시민·사회운동은 한때 반정부활동으로 오해되기도 했지만, 불교의 말로 표현하자면 회향에 다름아니다.

거사불교 활성등 교계 대책세워야

임동현 〈조계종포교사단사무국장〉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등의 정부인사에 대해 지나친 종교편향이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정부가 초기부터 종교간의 형평성을 의식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을 상기할 때 무작정 정부 탓만을 하는 것은 불교발전의 내일을 준비하는 교훈으로서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를 두둔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판은 하되 우리의 준비는 어떠했는가의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

어떤 집단이라 하더라도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시설등 외형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컴퓨터등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에서 사람의 중요성은 여타의 어떤 집단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교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그만두고라도 현재의 사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에 대한 이런 실정이 혹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일반 사찰의 법회등 신행프로그램을 살펴봐도 일정한 지적훈련을 거친 거사분들이 참여할 공간이 없다. 일요법회를 비롯 여타의 신행활동에서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재가자도 분명 사부대중의 일원이지만 현실은 승가의 보조집단 또는 신앙인의 우치에 머물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남신도들이 체계적으로 육성관리되지 못함은 당연하고 불교의 이런 사정이 이번 정부인사의 종교편향의 한 배경이 되는 것은 아닐까.



경전을 듣는 사람이면, 어리석음에서 눈뜨고 무명을 깨뜨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 무소유 보살경 -

1장의 CD에 25시간 분량의 부처님의 무량한 진리를 담았습니다! (세계 최초)

인켈 오디오북 「불경대전집」

● 수록내용:천수경, 반야심경, 고왕경, 금강경, 화엄경, 산왕경, 부모은중경, 법화경, 지장경, 석가모니불 정근, 관음정진, 관세음보살보문품경, 나옹화상 발원문, 천지팔양신주경, 신심명, 보현행원품, 약사여래본원경, 관세음보살 사십이수주, 약사여래불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 지장보살 정근, 화엄성중 정근, 마하반야바라밀 정근,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아미타경, 우리말 반야심경, 회심곡, 명상의 말씀 등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이 수록되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 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GOOD DESIGN 통상산업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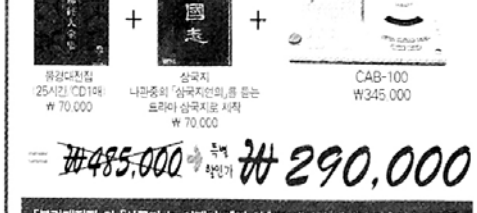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오디오북 플레이어(재생기)

● 듣고 싶은 부분을 바로 찾아 들려주고 몇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기능을 원터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인켈이 제작특허를 획득한 광단 오디오로 일반 CD와 FM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규격 W×D×H(26×18×6.5cm)

특별할인판매 40% 할인



불경대전집 25시간 CD10매 ₩70,000
+ 삼국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듣는 드라마 삼국지로 시작 ₩70,000
+ CAB-100 ₩345,000

~~₩485,000~~ → 특별할인가 ₩290,000

「불경대전집」과 「삼국지」는 인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 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오디오북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 오디오북 소프트웨어(CD)는 TOEIC 영화영어 여러이영어 소설 시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에서도 들을 수 있으며 별도의 어댑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별도판매)

구입 문의
■ 판 매 원 : 아울렛 유통(서울 용산)
■ 문의전화:(02)3274-119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은행계좌 : *국민은행 : 015-21-0955-947 *농협 : 011-01-430541 *조흥은행 : 952-04-132815 *에금주 :이 종 주

inkel

종단소식

조계종

만공스님 탄신 127돌 다례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3일 오전10시 정혜사에서 만공스님 탄신 1백27주기 다례제를 봉행한다. 이날 수덕사는 오후 1시부터 보살계수계대법회도 연다.

대둔사 보살계 수계법회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는 7일~8일까지 보살계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또 8일에는 서산대사 탄신 4백78주기 기념법회및 제4회 나라사랑글짓기 대회도 갖는다.

태고종

경기종무원장 형민스님

경기동부종무원은 3월17일 하남 선법사에서 사찰주지회의를 열고, 김형민스님(남양주 마석사 주지)을 새 종무원장에, 또 부원장으로 만월(수왕사주지) 혜공(보은정사 주지)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

영산재보존회 부설 범음대학(학장 송암)은 30일까지 승려 및 교역자를 대상으로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 (02)392-3007

천태종

천화사 국태민안 법회

부천 천화사(주지 장도정)는 2일부터 6일까지 국태민안 기원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총무원에서 비구니스님이 파견돼 입제와 회향을 집전하는 이번 법회는 4일간의 철야정진으로 진행된다.

진각종

실상 심인당 월초봉공

실상심인당(주교 회당)은 6일부터 7일간 월초불공을 봉행한다.

오전 10시~12시, 오후 6시~7시 하루 두차례에 걸려 봉행되는 월초불공은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 염송과 설법 등으로 진행된다.

관음종

경기종무원 종무회의

경기종무원(종무원장 양종명)은 1일 오후 3시 도봉산 흥법사에서 종무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무원장 선출의 건과 종단 운영 협조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문종

관음사 어린이집 개원

관음사(주지 지민)는 25일 룸비니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종단적으로 2번째 개원된 룸비니어린이집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6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1백20평 규모이다.

원융종

경제회복 기원 법회



총무원(총무원장 보인)은 26일 정동문화예술회관 대연회장에서 창종 17주년 기념 및 경제회복과 국태민안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전 총무원장 혜초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총지화 지수,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무찰스님 등 각 종교대표 및 신도 2백여명이 참석했다.

조동종

영덕사 후불탱화 점등식

영덕사(주지 강범혜)는 26일 대웅전에서 후불탱화 점등식 및 천등불사를 봉행한다.

범혜스님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불자들이 한등한등 정성들여 밝히는 간절함이 작금에 겪고 있는 고난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사종

17일 하순성씨 종정추대

총무원(총무원장 성순경)은 17일 오후 2시 을림피아호텔 임페리어홀에서 나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또 기원법회에 이어 1대 종정 하순성씨 추대 및 2대 총무원장 성순경씨 취임 축하법회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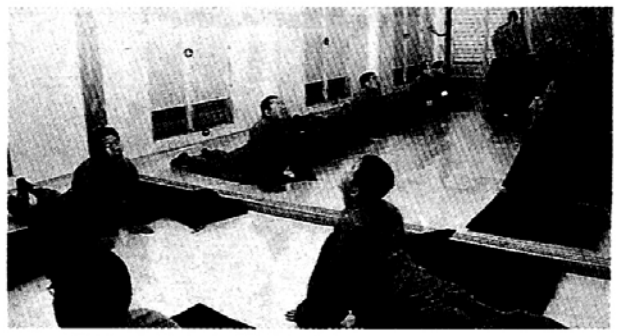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내몸도 내맘대로 못했으니…"

백양사 실직자 단기출가 수련

21명 입방…참선·요가 등 수행

"마음자리 찾다보니 용기 솟아"



◇실직자 단기출가 수련회에서 실직으로 인한 온갖 번뇌를 참선과 요가정진으로 풀어내고 있는 참가자들.

"실직하고 3D업종에 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내내 일한 대가가 겨우 60만원밖에 안되더라구요. 그것보다 더쓰면서 살아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백양사에 왔어요. 다른 묘안이 있을까 해서요."

마지막 꽃샘추위로 찬기운이 감도는 장성 백양사에서 23일~27일까지 열린 제1차 '실직자단기출가 수련회'에 참가한 한 실직자의 말이다. 30대중반부터 50대중반까지 연령도 다양하고, 사연도 각각인 21명의 실직자들이 입방했다. 새벽 3시30분부터 새벽예불, 108배 참회정진, 반복되는 참선과 요가, 발우공양, 운력 등 공동체수행생활이 진행됐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참선시간. 온갖 망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 '세상 가운데 고요히 앉아 제대로 10분간 앉아 있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세상에 내 몸도 하나 내 맘대로 못하면서 살아온 내 삶…' 가부좌를 틀고 앉은 그들의 표정에서 참회의 지난 날들이 묻어나온다.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은 "산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듯, 실직을 했으니 이제 다시 일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먼저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수행을 통해서 참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강원도에서 8시간이 넘게 차를 타고 백양사에 왔다는 김모씨(45세)는 IMF직전까지 증권 건설사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 부도로 일자리를 잃었다. "앞으로 3회정도 다른 사찰의 수련회에도 참가해 집중적으로 마음공부를 해볼 생각이예요. 꼭 다시 재기하고 싶은데 부처님 가피로 가능하겠죠? 허허허!"수련회를 통해 작은 희망을 붙잡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미래에 김씨는 허탈한 웃음을 남겼다.

종교적 차원에서 실직자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된 이번 수련회는 큰 기대와 부담감속에 실시됐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한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자기밖의 일자리를 찾기에 앞서 실직자들에게 자기 마음의 일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백양사는 오는 7월까지 5차에 걸쳐 매월 실직자단기출가수련회를 실시한다.

장성 백양사=이은자 기자



◇25일 선암사에서 열린 태고종 승려대회 장면.

선암사 수호 종도의지 결집

태고종 승려대회… "종단협 행사 당분간 불참"

선암사와 종권수호를 위한 태고종도의 의지를 결집하는 태고종 국난극복 및 종단중흥을 위한 전국승려대표자 대회가 25일 1천여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선암사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는 선암사 주지(총무원장 인곡스님) 임명장 수여식, 대회사·대등령께 드리는 메시지·이천만 불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또 △근검절약 및 민족화합과 평화통일 선도 △선암사에 대한 정당한 불교재산관리법의 발효를 현정부에 촉구 △종권회복 위한 헌법소원 제기 △사찰침탈행위 및 해종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총무원을 선암사로 이전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이날 대회에서 "태고종은 부종수교와 호국일념으로써 이 나라불교를 수호발전시켜오는데 진력해온 한국불교 유일의 정통종단이다"라고 못박고"선암사를 성역화하고, 선방교육도량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계종이 향림사 주지 혜일과 세민스님을 징계하지 않는 한 종단협행사 및 업무에 당분간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승려대회에 이어 총무원 현판식을 선암사 일주문에서 갖고, 선암사 부주지 및 삼직을 임명했다.

이날 법회와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부처님오신날 이후 태고종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태고종 조처는 탈법행위"

혜강스님 기자회견

태고종에서 행종행위자로 지목돼 제적된 혜강스님이 3월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암사는 역대로 태고종 총무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암사 대중스님들의 공사에 의해 운영돼 왔다"면서 "태고종 총무원의 일방적 선암사 주지임명과 총무원 이전은 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불교TV 수익사업 전개

경영난 타개위해 장례·불교용품 등 취급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문화사업단을 신설,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익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불교TV 기획조정실장 남현스님은 3월25일 "경영활성화를 위해 수익증대의 일환으로 문화사업단을 구성해 신행문화, 종단 및 사찰지원, 장례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고 피력했다.

불교TV는 역점사업으로 납골당 운영과 임종시 평안한 열반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지원, 장례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운명의 전화'등 장례문화 사업과 불교음악, 봉축행사 음악, 찬불가 반주기, 한국산 삼베 수의 보급 등을 기획, 내달안으로 전국 체인망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단기출가 체험 이벤트, 사찰법회 지원 등 신행문화 사업과 열린음악회 형식인 '연꽃 여슬마당 축제' 등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불교TV는 '디지털 btn', 홈페이지와 영어 사이트도 개설하는 등 인프라구축사업도 추진 할 계획이다.

태응스님 회장 인준

btn 제4차 정기 주총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3월26일 제4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前 사장 태응스님을 회장으로 인준했다.

불교TV는 2월25일 정기 이사회에서 태응스님을 회장에 선임했다.

한편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총지종 총지화 통리원장, 우판수 前 부산불교TV 지사장 등 3명의 이사와 삼화회계법인 손기원 대표를 비상임감사로 인준했다.

"공금횡령 철저조사"

BBS범대위 당국에 진정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지원스님)는 3월25일 '불교방송 공금 횡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장관 등에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대책위는 "조계종 중앙종회의 불교방송 감사, 검찰 등의 조사에서 30억원 이상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관련자 처벌이 안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불교방송 공금 횡령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선산 원각사 교육관 연내 기공

만등불사 회향법회

선산 원각사(주지 대혜)는 3월20일 증창불사를 위한 만등불사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법요식에 이어 법문, 만등점화, 탑돌이등이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직지사회주 늑원스님, 이웅원 구미시장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대혜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산은 신라불교의 초전법륜지인 모례원이 있어 전법의 전통이 서린 곳"이라며 "교육불사를 통해 지역포교에 진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각사는 올해 어린이집 1동과 교육관불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서봉당 대우스님 입적

태고종 서봉당 대우스님이 3월20일 세수 90세, 법랍 75세의 일기로 입적했다.

1924년 등도사에서 일옹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경북교구 종회의장(70년) 승정(89년) 중앙선원 선원장(92년) 등을 역임했다. 다비식은 3월24일 대구경북교구장으로 엄수됐다.

"경주교도소 이전 촉구"

20여 단체 서명운동

경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 청년원효(회장 장기영·포항산업과학연구원)는 3월 7일부터 경주교도소 이전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불국다보회, 경주불교청년회, 늑색환경감시단 등 2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며 1차로 3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국불교사회연구원측은 "경주교도소가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노천박물관 남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남산보존과 성역화를 위해 이전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불교성지의 원형을 찾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 복용하면 1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5,200여 한국 사찰의 역사 집대성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 사찰의 어제와 오늘!

韓國寺刹寶鑑

佛名辭典

우리 나라 최초의 불명사전!

▶18년에 걸친 편찬작업
(한국사찰보감)은 한국사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국내의 모든 사찰관련 자료를 망라하여 5,200여 사찰의 어제와 오늘을 집대성했다. 편자 이동술 선생(前국민대 고전실 근무)의 18년에 걸친 자료조사와 발굴·정리 작업, 까다로운 편찬작업을 거쳐 완간된 (한국사찰보감)은 한말(1910년)까지 국내에 건립 또는 유적을 가진 사찰 5,200여 곳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했다.

▶일목요연하게 편집된 한국 사찰의 어제와 오늘
5,200여 한국사찰의 사찰명, 사찰 위치, 연혁, 설화, 부속암자, 유형문화재, 유적 및 천연기념물, 탑비·부도류, 모든 참고문헌목록을 수록했다.

▶불교사상과 고승 연구의 길잡이
(한국사찰보감)에 수록된 연혁이나 소장 문화재류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며, 흥미롭고 교훈적인 설화류나 기록 등해서는 불교사상과 고승에 대한 연구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동술 편 신국판 양장 540면 값 35,000원



고성훈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320쪽 / 값 30,000원

▶국내 최초의 불명사전
1,420개 (저사 불명 700개, 보살 불명720개)의 불명에 대한 해설 수록.

▶불자들의 불심 고양을 위해 꼭 필요한 책
고 고성훈 스님이 생전에 세인들의 불심 고양을 위해 기획한 후 7년에 걸친 작업 끝에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으로 간행.

▶불명 짓는 법 수록
생년월일에 맞추어 불자들 스스로 자신의 불명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불명 짓는 법을 수록하였다. 신도들도 그 의식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계의식 순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전화:(02)313-5047, 5056
팩스:(02)393-9696

시각장애인 전용법당 '탄생'

혜광맹인불자회 춘천에 '도림원' 낙성
50평 조립식 건물…수련원 건립등 추진

시각장애인 전용 법당이 교계 최초로 마련됐다.

혜광맹인불자회(회장 김부봉)는 3월26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에 위치한 도림원(주지 현담스님)에서 법당 낙성식을 가졌다.

시각장애인 불자 전용으로 건립된 도림원 법당은 5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 법당은 계단과 문턱을 대폭 줄이고 법당에서 바로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등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됐다. 혜광맹인불자회는 97년 총 6천여평의 부지를 매입 도림원 시각장애인 전용법당 건립을 추진해 왔다. 89년 3월26일 창립한 이래 종로 태일빌딩, 청량리 한국불교교화원, 보문동, 도곡동의 월세 법당 등으로 옮겨다니다가 9년만에 도림원에 자체 법당을 마련한 것이다.

도림원은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맘놓고 수행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점자도서실, 수련원 건립, 시각장애인 휴식공간 조성 등의 불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법당 낙성식에는 서울혜광맹인불자회와 대구 대광맹인불자회 회원들을 비롯 전국에서 모여든 맹인불자회 회원 및 가족 자원봉사자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낙성식 후에는 대광맹인불자회 소속 사물놀이패의 한바탕 사물놀이도 신명나게 펼쳐졌다.

법당 낙성식을 가진 도림원은 점자도서실 수련원등 각종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마련이 근본적인 난제로 남아 있다. 종단과 사찰의 지원이 전무한데다 IMF시대에 줄어든 회원들의 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부봉회장은 "지금 맡고 있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이사장 및 관장 임기가 끝나는 5년 후에는 도림원에서 살고 싶다"며 "부처님을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칠 도림원에 불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춘천=강지연 기자〉



◇도림원 법당 낙성식에 모인 혜광맹인불자회 회원들은 비록 부처님 상호를 볼 수는 없지만 스님의 법문으로 불법의 갈증을 달래고 있다. 도림원은 앞으로 점자도서실, 수련원 등을 건립해 시각장애인 불자들을 위한 공간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해인사 판전 지붕보수 '착수'

35년만에 기와교체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와 문화재관리국은 3월24일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국보32호)을 봉안한 관전(국보52호)보수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3월25일부터 수다라전 지붕보수에 착수했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 2월23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11억2천8백여만원을 들여 수다라전과 법보전의 기와 및 연목교체, CCTV 및 방범화재시스템 구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 불사는 지난 62년 기와를 전면교체한지 35년만의 일인데다 경관과 관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외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과 해인사의 기술지도단은 보수기간중 관람객 출입을 일시통제하는 문제와 경관에 대한 소금물소독 등은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새 사미(니) 176명 탄생
조계종 행자교육원 회향

조계종 새 사미·사미니 1백76명이 탄생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3월5일부터 27일까지 승주 송광사에서 실시된 제14기 행자교육원을 회향 27일 오전10시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번 행자교육원에는 모두 1백85명이 입방했으나 교육도중 9명이 탈락했다. 수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원장 암도스님 등 종단 중진스님들이 참석 "간단없는 정진으로 한국불교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구 팔공산에 불교실버타운

연꽃마을 '보살선원' 개원…50여명 입주

대구 팔공산에 노인불자들의 수행과 복지를 위한 실버타운이 건립됐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3월27일 동구 덕곡동 산38-1번지에 보살선원을 개원, 삼존불 봉안 및 1백일 기도입제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노인복지와 수행의 개념을 통합한 새로운 실버타운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보살선원은 6천여평의 부지에 1차로 연건평 3백평에 지상2층 지하2층 규모의 복지센터를 완공, 50여명의 노인불자들이 입주했다.

보살선원은 앞으로 노인단기출가, 노인1년출가, 노인평생출가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노인의료시설 노인여가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해 노인복지의 요람으로 꾸며갈 계획이다.

각현스님은 "서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노인전문수도원의 건립을 통해 노인복지의 새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납골당 웹사이트' 개설
교헌사, 사이버 성묘 추진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주지 혜가스님)는 조상의 생전 모습을 담은 '납골당 웹사이트'(http://www.trend.co.kr)를 최근 개설, '사이버 성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헌사는 조상의 유골을 모시는 납골시설, 사이버 성묘와 컴퓨터를 이용한 첨단시설을 갖춘 영묘전을 건립, 21세기형 새로운 장묘문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도곡동 모델하우스에서 납골시설을 분양중이다.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에 위치한 교헌사 영묘전은 국내 최초의 지상 영묘전(기하2층~지상5층)으로 현대식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기당 2백50만원의 단가로 개인단·부부단·가족단·선산단으로 구분된 납골시설을 영구임대 할 수 있다. (02)576-3335

분황사 역사 적힌 상량문 발견

보광전 개축과정서…중건내역등 상세 기록

경주 분황사 보광전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사찰의 중건내력 등을 기록한 상량문과 불교벽화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주시는 3월24일 분황사 보광전을 개축공사하던 중 대들보에서 분황사의 창건연대와 중건과정, 보광전에 안치돼 있는 약사여래좌상(경북도 문화재자료 319호)의 주조 등 분황사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돼 있는 상량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상량문은 2개로 하나는 길이 2백80㎝, 너비 25㎝ 대들보에 기문형식으로 써내려갔고 다른 하나는 대들보에 홈을 파고 1장의 한지(가로 30㎝, 세로 10㎝)를 이용해 기록했다. 경주시는 현재 한지가 물에 젖어 문화재관리국에 의뢰, 해독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들보에 기록된 상량문에는 분황사의 창건연대가 선덕여왕 3년(634년)으로 돼있어 기존의 알려진 바와 같다.

한편, 보광전 좌측벽에서 발견된 벽화는 높이 80㎝, 폭 50㎝ 규모로 금발머리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모양의 관을 쓰고 있어 약사여래상으로 추정된다.



◇분황사 보광전 대들보에서 발견된 상량문. 창건연대 중건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괌 KAL기 추락
미확인 영령 위령제
불교-개신교-천주교 합동

괌 KAL기 추락사건 희생 미확인 57위 영령을 위한 종교합동 위령제가 19일 괌도 미니츠 언덕 사고현장에서 봉행됐다.

미국 법원의 57위 희생자에 대한 미확인 최종 통보에 따라 열린 이날 위령제에는 유가족 1백여명 과 불교 개신교 천주교 대표가 참석했다. 불교계 대표로는 조계종 사회국장 일화스님이 참석, 희생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목탁소리

대불 입·출금 감사보고서

오 종 욱 〈취재1부 기자〉

3월21일 종로구 송현클럽에서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이하 대불) 총회에서 불거져 나온 불협화음은 불교계의 기대를 저버린 '대불'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사건의 발단은 94~97년까지의 '대불 입·출금보고서'를 감사한 결과 대불 발전기금 총 3천2백만원이 모두 소모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비롯됐다. 이 기금은 95년 대불이 동문회라는 친목단체에서 사단법인 대불로 거듭나기 위해 주요회원들과 이사들이 적립했던 대불의 자립기금.

이 일로 95년부터 회계 등 실무를 전담해 왔던 前 사무총장이 대불의 주요 회원들에게 기금 훼손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는 "94년부터 누적된 적자로 기금이 훼손됐다"며 "예산확보·집행승인·결산감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한 감사는 △회계장부와 지출승인 절차 부재 △과도한 인건비 등이 발전기금을 훼손시킨 주요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기금 훼손의 근본적인 이유로 자금운영이 투명하지 못했던 사무총장의 탓뿐 아니라 대불 이사들의 행정력 상실도 보여주고 있다. 대불이 95년 사단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회(會)를 키웠지만 정작 97년까지도 대불 입·출금에 대한 공식적인 결산과 감사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감사보고서는 바로 지도체제 결핍이라는 대불의 헛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30여년간 대불 본부는 지도력과 행정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총회에서는 대불 련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일을 계기로 대불은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출범시켰다.〈회장인터뷰 4면〉 70년대 학번의 회장단들. 민중불교운동에 관심을 보였던 새 인물들에게 지성불교의 몫을 기대해 본다.

뉴스 & 뉴스

조계종 교육지도자회의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이 주최하는 '조계종 교육지도자 회의'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종단 교육계 원로스님,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 종단 각급 교육기관 교직자, 교육원 3개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향후 승가교육 발전방안과 승가교육체계 확립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쩍새마을 원장 사표 수리

중앙승가대 부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은 3월27일 오후2시 중앙승가대학교 회의실에서 1998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각스님의 상임이사직 및 소쩍새마을 원장직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이사회는 상임이사에 이사인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선임했다. 또 최금한 이사의 유고로 인한 결원에 따라 봉은사주지 무상스님(중앙승가대동문회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도심포교당 주지 세미나

조계종포교연구실(실장 효종)은 3일 오후2시부터 포교원회의실에서 '포교당의 신도교육체계와 방법론'을 주제로 도심포교당 주지스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지홍스님(광명 금강정사 주지)의 주제발제와 초격스님(서울방배동 광명선원 주지)과 선혜스님(서울중계동 법륜왕사 주지)의 사례발표,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동국대 나라살리기 헌혈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자비의 실천! 작은사랑나누기, 동국인 나라살리기 헌혈' 행사를 3월25일부터 27일까지 교내 중앙도서관 앞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자비의 실천과 더불어 IMF 구제금융 시대에 혈장 수입으로 지출되는 연간 2천5백만달러(약 4백억원)의 외화를 절약하자는 취지로, 학교당국과 교수회, 대학원 총학생회, 총학비상대책위원회, 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했다.

불심홍법원 8회 바라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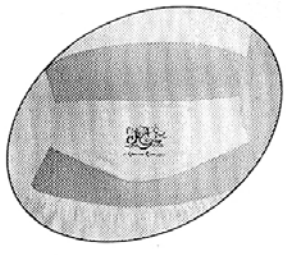
부산 불심홍법원(이사장 하도명화)은 3월21일 골든웨딩프라자에서 제8회 홍법바라밀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남석, 박영동, 김원수씨가 각각 홍법대상을 수상했다.

하도명화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을 널리 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청소년포교를 비롯한 포교활동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지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옆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해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놀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상담실 080-200-4545

향 다이어트



탤런트 윤주영

살! 살! 살!

아름다운 몸매를 앗아간 악마!
그래서 굶어보기도 했습니다!
붙여도 봤습니다!
착용도 해봤습니다!
마시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살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연향인 아로마 트림을 사용했습니다. 코에다만 대주세요.
이 아로마 트림은 100% 천연향으로 이 향에는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호르몬 대사에 신속한 영향을 주어 불필요한 지방질을 산화시켜주며 맛의 90%인 음식의 향을 조절하여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므로 자연스러운 식욕조절로 번거로움 없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냄새만 맡으면 …

냄새만 맡는 다이어트는

■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다.** 대부분 다이어트 제품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아로마 트림은 사용하고자 할 때 어디서나 코에 대고 흡입만 하는 간편한 요법이다.

■ **천연향으로 인체에 조화롭게 작용한다.** 다이어트가 몸을 상하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로마 트림은 천연향으로 원하는 만큼 사용해도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다.

■ **인내와 고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해 다이어트를 실패한 분이 많습니다. 장기간 무리한 고통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망설이는 분 지금 이 아로마 트림을 사용해 보세요.

■ **자연스러움은 곧 과학이다.** 아로마 트림의 천연향은 후각의 자연스런 자극을 과학적으로 응용해 음식의 맛과 냄새에 변화를 주고 식욕을 조절하는 제품으로 미국 청소년비만협회 회장인 어니스트 반드그웨히 박사의 자신있는 제품입니다.

상담실 02)755-9821



통화의 신개념

귀로 듣고 귀로 말한다

삼성SPH-3100을 구입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매직프리 이어폰 마이크 (5만원상당)를
무료로 드립니다.

● 품절시 쿠폰을 드리며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사용가능 PCS폰
삼성SPH-3100

매직프리
Magic free

PCS 016 TOP NEWS

● 지하철내 통화 서비스 개시

· 상호로밍서비스 개시로 전국 99% 통화 가능('98. 4월말 예정)

· PCS부문 '97 최다 히트상품 선정

IMF 시대니까, 이동전화는 PCS 016 1년에 2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같은 이동전화를 쓰면서 왜? 요금을 더 내고 계세요.
통화료가 저렴한 PCS 016 ! 쓰면 쓸수록 이익입니다.
하루 빨리 바꿔보세요(월40분 사용기준)

통화료 저렴한 PCS 016

구분		PCS 016	기존 휴대폰
보증금		없음	20만원 (또는 3년마다 보증보험료 2만원)
가입비		5만원	7만원
월기본료		16,500원	18,000원
통화료	평상시	19원/10초	24~26원/10초
	할인시	15원/10초	18원/10초
	심야	10원/10초	18원~12원/10초

PCS 016, 쓰면 쓸수록 확실한 금액차이를 아실 것입니다

월사용료	400분	300분	200분	400분
PCS 016	53,000원	45,000원	36,000원	33,600원
휴대폰 A사	69,820원	58,420원	49,200원	41,400원
1년 사용시 절약금액	201,840원	161,040원	158,400원	93,600원

· PCS 016의 요금 400, 300, 200, 분은 요금상품과 휴대폰 A사의 해당 요금상품을 비교(1998년 1월 29일 기준)
· A 요금비교는 (Call당 1분, 평상요금 기준입니다.

1년을 쓰시면 2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이용기간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할 인 율	5%	10%	15%	20%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추가 할인됩니다

가입시 자주 쓰는 번호를 3개 지정해 주시면 그 번호와의 통화 요금은 20%이상 할인됩니다. (월 사용료 2,0000월 별도)

유선전화로 PCS 016에 걸 경우 더 저렴합니다.

10초당 통화료	PCS 016	휴대폰 A사
	19원	24원

바람 1 Magic 이어폰 무료증정



이제 손을 자유롭게~
행사기간 내 SPH-3100 모델을 구입, 실가입 하시는
모든고객께 PCS 016이 매직 프리 이어폰을 무료증정합니다.
운전이나 업무중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바람 2 입학 선물은 PCS 016과 함께



입학을 축하드리면서 PCS 016이
당신의 캠퍼스로 찾아갑니다.
PCS 016 무료통화 시연회에서 친구와 친척들에게
입학의 기쁨을 마음껏 알려 보세요.
(실가입고객에게는 멋진 가방을 드립니다)

바람 3 최장 6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IMF시대, 고가의 단말기 가격! 부담되셨죠?
이제 PCS 016 이 제공해 드리는 무이자 카드 할부로
부담없이 PCS 시대를 열어 가세요.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할부 가능 카드사:국민, BC, 삼성 외환비자, LG, 신한비자,다이너스 카드)

PCS 016 - 앞서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욱 또렷한 통화품질
PCS 016은 깨끗한 통화품질로 이동전화의 통화품질을 한단계 높혔습니다.

다양한 액정화면 문자정보 서비스
문자서비스는 물론 E-Mail과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 등 가장 다양하고 편리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렴한 사용요금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부담없는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높아진 고속주행시 통화성능
160Km/h의 고속주행시에도 깨끗하고 또렷하게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촘촘한 기지국
촘촘한 기지국의 확보로 전국 어디에서나 깨끗하게 통합니다.

1단계 페이징의 중앙시스템 방식
3단계 페이징을 거쳐야 했던 셀룰라 방식에서 1단계로 바로 연결됩니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
www.pcs016.co.kr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납부하신 통화요금중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이란?

PCS 016 가입시, 「부다피아 포교기금」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나라."

▶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접수처

우편번호: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 : (02)732-1522, 737-8881 FAX : (02)737-0697, 0698,0696